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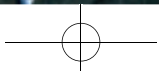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0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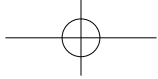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 리아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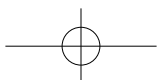
## 연차 대회 말씀

문슨 회장,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 봉사를  
하도록 촉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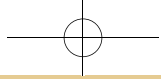




몬슨 회장은 제180차 반연차 대회 개최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십시오. …… 청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청남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신권 책임은 없지만 여러분도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를 환영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함께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여 봉사할 때 얻게 되는 감미로운 영광과 만족감을 누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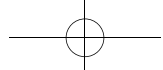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시고,  
월터 레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를  
촉은히 여기시며, 구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한복음 9:6~7).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가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시편 127:3)이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2 제180차 반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다시 함께 만나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9 계속 길에 머무르십시오  
로즈메리 엠 워슨
- 11 선지자에게 순종하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 13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데이비드 엠 맥쿱키
- 16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19 가장 중요한 것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3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4 선택의지: 구원의 계획의 본질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27 빛이 있으라!  
쿠엔틴 엘 쿡 장로
- 31 신앙-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 34 우리의 생존  
케빈 알 던컨 장로
- 36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가족에  
대한 증거  
게릿 더블류 공 장로
- 39 결단코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닐 엘 앤더슨 장로
- 43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신앙과  
성품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신권 모임

- 47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러셀 엠 벨슨 장로
- 50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낮게 하리라”  
패트릭 키아론 장로
- 53 주님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 55 교만과 신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59 영을 동반하여 봉사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7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70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행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4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 77 성신과 계시  
제이 이 켄슨 장로
- 80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메리 앤 쿡
- 83 교통하는 채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87 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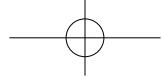
일요일 오후 모임

- 91 아론 신권  
엘 톰 페리 장로
- 94 성신을 받으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98 담대한 자녀 훈육  
래리 알 로렌스 장로
- 101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페르 지 맘 장로
- 103 죄의 멍을 피함시다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 105 너는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머빈 비 아놀드 장로
- 108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111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상호부조회 총회

- 11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일  
줄리 비 백
- 116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 119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바바라 톰슨
- 122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5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 126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6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27 교회 소식





# 제180차 반연차 대회 요약

##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 폐회 기도: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및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 및 클레이 크리스텐슨: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찬송가(영문) 41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린이 노래책 36쪽, 머피 편곡, 미출판; 통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폐회 기도: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주 샌디 및 드레이퍼 지역 가족 합창단; 지휘: 티머시 워크맨;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라이언 편곡, 책면 출판;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 찬송가 8장; “Lord, I Would Follow Thee”, 찬송가(영문) 220장; “Home”, 어린이 노래책(영문) 192쪽, 데일리 편곡, 미출판.

##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트스 장로. 폐회 기도: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음악 제공: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신권 합창단; 지휘: 더글러스 브렌칠리 및 라이언 에켓;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입슨 편곡, 미출판; “Go, Ye Messengers of Heaven”, 찬송가(영문) 327장;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부티 편곡, 미출판.

## 2010년 10월 3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제럴드 코세 장로. 폐회 기도: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 및 리차드 엘리엇: “영원하고 기록한 진리”, 찬송가 19장; “천지의 주재 여호와”, 찬송가 148장; “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0년 10월 3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 폐회 기도: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와서 기쁜 노래하라”, 찬송가 15장, 머피 편곡, 미출판; “어둠에 싸인 밤에”, 찬송가 79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 하세”, 찬송가 8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0년 9월 25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줄리 비 백. 개회 기도: 새론 엘 유뱅크. 폐회 기도: 마르사 지 백. 음악 제공: 유타 주 컨즈 지역 연합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 캐시 줄리;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케이슨 편곡, 책면 출판; “Carry On”, 찬송가(영문) 255장, 닐슨 및 부티 편곡, 미출판(프렌치 호른: 크리스티나 오컷 틀레슨, 메리 램프로스, 클레이 그로버); “기록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비비 편곡, 래리스 출판;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드포드 편곡, 미출판(플루트: 티아 제인즈와 나탈리 홀; 독창: 캐서린 다우스, 올리비아 다우스, 메건 다우스 브러튼, 제이니 다우스, 셸리 다우스 더핀, 소피아 리 다우스)

## 대회 말씀 자료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 접속하려면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 또는 [languages.lds.org](http://languages.lds.org)를 방문하십시오. 그런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 사진 촬영, 레스 닐슨.  
뒤: 사진 촬영, 웰턴 시 앤더슨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연차 대회 장만: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턴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린지 브릭스, 코디 벨, 마크 웨인버그, 웨스턴 콜튼, 로드 보임, 새라 캐라바인; 아르헨티나: 루시오 플레이타스; 브라질: 라우레니 포체토와 아나 클라우디아 솔리; 도미니카 공화국: 크리스타 그롬; 아일랜드: 페리스 제라드; 이탈리아: 알레산드로 디니 시아씨; 뉴질랜드: 빅토리아 타우파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빈 쿠니; 스웨덴: 젠스 라이드그랜; 우루과이: 아벨 코메스 페레이라. 몬슨 회장의 초상: Busath Photography.





2010년 11월호, 제47권, 제11호  
리아호나 092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발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텔라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요시히코 가무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곤트,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라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파커, 채드 이 페라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롭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렐

**선임 비서:** 로벨 듀셔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캬멘  
**제작 무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우, 콜레트 네베거 오운,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렛, 토마스 에스 처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낄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렌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32호, 제47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경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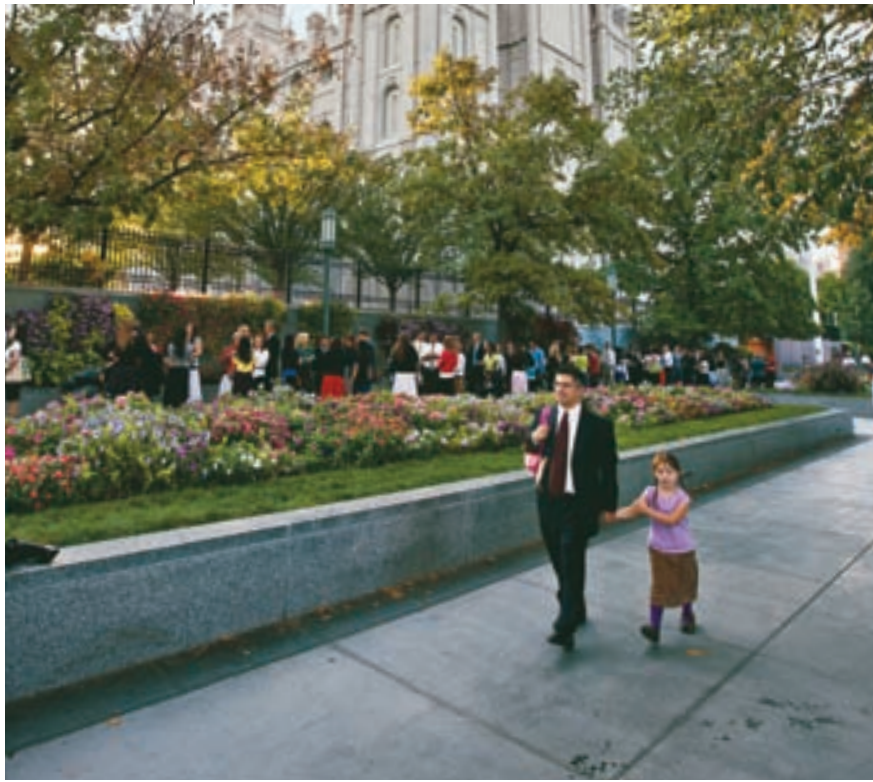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핀란드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전원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10 Vol. 34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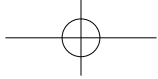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연사들(가나다순)**

- 게릿 더블류 공, 36
- 닐 엘 앤더슨, 39
- 델린 에이치 옥스, 83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4
- 데이비드 엠 맥쿠키, 13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6
-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9, 55
- 래리 알 로렌스, 98
- 라셀 엠 넬슨, 47
- 로버트 디 헤일즈, 24
- 로즈메리 엠 워쇼, 9
- 리차드 시 에즐리, 31
- 리차드 지 스코트, 43
- 머빈 비 아놀드, 105
- 베리 엘 쿨, 80
- 바바라 톰슨, 119
- 보이드 케이 패커, 74
-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6
- 엘 톨 페리, 91
- 엠 러셀 발라드, 108
- 자이로 마자가리드, 103
- 제이 이 젠슨, 77
- 제프리 알 홀랜드, 6
- 줄리 비 백, 112
- 케빈 알 던컨, 34
- 쿠엔틴 엘 쿨, 27
- 클라우드 알 엠 코스타, 11
- 토마스 에스 몬슨, 4, 67, 87, 111, 122
- 패트릭 키아론, 50
- 페르 지 맘, 101
- 헨리 비 아이어링, 23, 59, 70
- 후안 에이 우세다, 53

**주제 색인**

- 가르침, 9, 13
- 가족 역사, 36
- 가족, 19, 36, 98
- 간증, 31, 77, 101
- 감사, 6, 87
- 개종, 39
- 개척자, 34
- 결과, 67
- 결심, 67
- 검문, 55, 122
- 경전 공부, 9, 13
- 계명, 105
- 계시, 11, 77, 83, 94
- 교결성, 16, 27
- 교만, 55
- 구원의 계획, 9, 24, 116
- 권세, 83
-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 53
- 그리스도의 빛, 27
- 근면, 19
- 기도, 9, 83
- 단순함, 19
- 도덕성, 16, 27, 74, 80
- 동정심, 119
- 마음의 상처, 39
- 모범, 9, 47, 80
- 물문경, 77
- 방문 교육, 119
- 배움, 13
- 복음의 기본 사항, 19,
- 봉사, 6, 16, 55, 59, 91, 112, 119
- 사랑, 53
- 상호부조화, 112
- 선교 사업, 4, 47
- 선지자, 11, 34, 70
- 선택, 67
- 선택의지, 24, 27, 31, 67, 74, 103
- 성신, 13, 59, 77, 94, 98

- 성약, 36
- 성전, 4, 36
- 성품, 43
- 속죄, 36, 108
- 순종, 11, 34, 43, 50, 70, 94, 98, 101, 105, 111
- 신권, 59, 91
- 신뢰, 70
- 신앙, 6, 31, 34, 43, 80, 111, 116
- 아론 신권, 91
- 약물 남용, 108
- 양육, 98
- 영경, 116
- 연차 대회, 4, 111
- 예수 그리스도, 31, 39, 87
- 외설물, 74, 103
- 용기, 98
- 우정 증진, 47
- 의로움, 91
- 일, 16
- 자녀, 9
- 자애, 122
- 정직, 27
- 죄, 103
- 증독, 108
- 책임, 67
- 천사의 성역, 91
- 축복, 87
- 충성심, 39
- 치유, 50
- 판단, 122
- 평화, 101
- 표준, 80
- 헌납, 16
- 확인, 94
- 회개, 24, 50, 53, 74, 103
- 희생, 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다시 함께 만나서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차 대회를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마련되도록 뒤에서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모임 이후로 교회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전 네 곳을 헌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

보좌 및 그 밖에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애리조나 주 힐라 밸리,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 필리핀 세부 시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다녀왔습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성전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회원들은 각 성전을 통해 축복을 받고 있으며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각 성전이 헌납되기 전날 밤에 우리는 젊은이들과 연로하신 회원들이 참여한

## 스웨덴 스톡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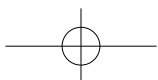
4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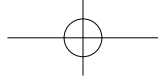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행사는 보통 큰 경기장에서 열리지만 키예프에서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열렸습니다. 춤, 노래, 뮤지컬, 전시는 훌륭했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께 찬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각 성전 헌납식은 영적 향연이었습니다. 모든 헌납식에서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을 재헌납할 예정입니다. 이 성전은 가장







오래된 성전 가운데 하나이며, 여러 달 동안 대대적인 개보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성스러운 의식이 기다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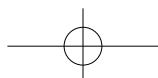
우리는 계속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섯 개 성전을 추가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지가 매입된 후 다음 지역에서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포르투갈 리스본,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 필리핀 우르다네타, 코네티컷 하트퍼드, 멕시코 티후아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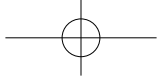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은 우리와 사랑하는 고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전은 점점 더 회원들과 가까운 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속 충실하게 참여합시다.

오늘 오전 연사들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업입니다.

우선, 아론 신권 청남들과 이제 곧 장로가

될 청남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되새겨드리겠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가능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곳에서는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에 참여하십시오. 선교사 지침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익히십시오.

청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청남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신권 책임은 없지만 여러분도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를 환영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봉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봉사하신 충실한 부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보여 주신 신앙과 헌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훌륭하게 봉사하셨고 위대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직 부부 선교사로 나갈 시기에 이르지 않은 분들께 촉구합니다. 여러분과 배우자가 선교 사업을 나갈 그 날을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건이 괜찮고 은퇴할 연령이 되어 건강이 허락한다면, 집을 떠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여 봉사할 때 얻게 되는 감미로운 영광과 만족감을 누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양일간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영에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는 점을 매일 삶에서 증명해 주시는 모든 훌륭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몬**슨 회장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 회원들이 훌륭한 합창단과 함께 그 위대한 찬송가를 부르며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외칩니다. 회장님의 삶과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시 열린 교회 연차 대회에서 환영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지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에서 우리는 몬슨 회장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총관리 역원을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드는 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있을 것이므로 모두를 대신해 제가 과감히 나서서 여러분이 해 주시는 거수에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없이는 봉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감리하는 역원들이 특별한 열쇠와 성약과 책임을 받았음을 알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 회원이 행사하는 신앙과 헌신 덕분에 교회가 비할 데 없는 힘과 매우 독특한 생명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든, 얼마나 나이가 어리든, 또는

자신을 얼마나 부족하게 느끼거나 얼마나 나이가 많은 상관없이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감리 역원들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가치,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가치와 성스러운 빛이야말로 구원과 승영의 계획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바로 여러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오,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연단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절하게 표현할 길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나누기 위해 행한 모든 선행과 친절한 말과 희생에 대해 하늘 천사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청녀 야영에 가서 머리감거나 샤워나 눈 화장도 포기한 채 연기 자욱한 모닥불 옆에서 하는 간증 모임을 청녀나 그 지도자들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주시는 청녀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시내산 만큼 강인하고 산상수훈만큼 자애로우셨던 교회의 모든 여성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끔 우리는





자매님들이 만든 초록색 젤로(과일 맛과 빛깔과 향을 낸 디저트용 젤리-웁긴이)와 켈트이불과 장례식용 감자요리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 짓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런 선물에 고마워한 적이 많습니다. 한번은 켈트이불과 장례식용 감자요리를 한꺼번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그마한 이불이었는데, 아기 때 목숨을 잃은 제 동생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고 싶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자매님들은 부탁 받지도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저희 가족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셨고, 저희는 고맙게 받았습니. 자매님들의 이런 전통을 듣고 웃음을 지으셔도 됩니다. 주목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처진 손과 연약한 무릎<sup>1</sup> 곁에는 항상 교회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자매님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음 말씀에 담긴 신성함을 본능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2</sup>

신권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와 자연 환경이 미친 영향으로 험난한 길을 80 킬로미터씩 도보여행을 하거나, 인생에서 가장 기나긴 듯한 밤을 보내기 위해 얼음 동굴을 파고 실제로 거기서

잠을 청하는 청남 지도자들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저희 대제사 그룹이 선사해 준 추억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둔 한 정원회 회원의 침실에 있는 작은 소파에서 몇 주 동안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만큼 연로하고 쇠약한 아내분은 사랑하는 남편이 살아 있는 마지막 몇 주 동안 조금이나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사와 역원과 고문과 서기들에게 감사드리며, 끝없이 반복되는 일인 탁자와 의자를 펴고 접는 일을 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임된 축복사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가족 역사가와 새벽 다섯 시에 자기 몸집보다 커 보이는 조그마한 짐가방을 들고 느릿느릿 성전으로 향하시는 골다공증에 걸린 노부부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장애나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여러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어쩌면 평생토록 돌보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들거나 노쇠한 부모님을 돌보고자 연로한 나이에 형제들과 더불어 힘쓰시는 자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거의 송구스러워하는 말투로 “저는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도와주는 일밖에 못해본 것 같아요.” 하고 속삭이시던 백발 성성한 한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자매님과 이 왕국의 모든 조력자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지도자인 우리 가운데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매님이 이미 달성하신 그런 위치에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러한 분들이 보여 주신 신앙과 선함에 감사를 표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13년 전에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뜨거운 화덕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던 일을 기억합니다. 화덕 옆에 둔 장작 상자가 비면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나가서 밖에 쌓여 있는 삼나무 장작으로 상자를 채우신 뒤 무거워진 상자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무심경한 나머지 …… 그냥 앉아서 상자를 채우시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 회장님은 목이 메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무심했던 점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sup>3</sup>

제가 완벽한 분이라고 느꼈던 파우스트 회장님이 어린 시절 실수를 털어놓으셨다면, 저 역시 오늘 비슷한 고백을 하며 오래



전부터 미뤄 온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 받은 오래 전, 아주 먼 옛날에는 선교사 비용이 균등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부름 받은 선교부에서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교부는 그 비용이 아주 비쌌는데, 제가 봉사할 선교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장려하는 것처럼 저도 저축을 하고 소지품을 팔아서 최대한 제 힘으로 비용을 충당하려 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선교 사업 마지막 몇 달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모두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기쁘게 가족을 떠났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선교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환할 즈음, 부모님께서 부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대학 학비는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무슨 수로 식비와 방세를 내지? 그리고 가슴속 원대한 꿈인, 숨 막히도록 완벽한 패트리샤 테리와 결혼하는 일을 어떻게 실현하지? 제가 당시에 용기를 잃고 겁을 먹었다는 것을 굳이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8 리아호나

저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지역 은행에 가서 우리 가족과 친분이 있는 지점장님께 제 계좌 잔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니, 제프, 네 계좌에 그대로 다 있단다. 부모님께서 말씀 안 하셨니? 네가 집에 오면 새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셨지. 네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한 푼도 인출하지 않으셨어. 네가 아는 줄 알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독학으로 공부하신, 정말 평범한 회계원이셨던 제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우리 마을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 도서관에서 “부기계월”으로 일하시면서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2년 동안 한 번도 새 양복이나 새 셔츠를 입거나 새 구두를 신지 않으셨을 것이란 점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아들이 그것들을 누리도록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몰랐다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은 결혼하고 밖에서 일해 본 적이 없는 어머니께서 제 선교사 비용을 대기 위해 지역 백화점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선교 사업 동안 그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지금같은 불경기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3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처럼 저도 휘장 저편에서 아버지께 충분히 감사드리려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95세가 되시는 다정한 어머니께서는 지금 세인트 조지에 있는 집에서 이 대회를 기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감사드리기에 너무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곳곳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 여러분과 충실한 분들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

치르신 희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 보지 못한 혜택을 자녀가 누리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애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sup>1</sup>라는 점을 매일 삶에서 증명해 주시는 모든 훌륭한 회원 여러분과, 다른 종파에 속한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베푸신 선행과 삶을 작은 마을과 거대한 도시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생생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스러운 대업에서 여러분과 한 무리에 속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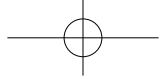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시니 ……”<sup>5</sup>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범을 보면서 저는 제 결심을 새롭게 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듯,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충실하고, 더 친절하고 헌신하며, 더 자애롭고 진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모든 것에서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히브리서 12:12; 교리와 성약 81:5 참조.
2. 마태복음 25:40.
3. 제임스 이 파우스트, “율법의 더 중한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3.
4. 고린도전서 13:8; 또한 모로나이서 7:46~47 참조.
5. 제3니파이 17:20~21.





로즈메리 엠 위کم  
본부 초등학교 회장

# 계속 길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굳게 붙잡고 구주의 인도를 따를 때 모두 하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최** 근에 저는 케이트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와서 어머니 품에 안기자 케이트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그마한 케이트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묻는 듯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일곱 살에 장티푸스에 걸려 다리가 감염되었습니다. 네이든 스미스 박사는 감염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부문에서 선구자였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조셉의 다리에서 감염된 뼈 일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브랜드를 마시거나 몸을 묶으라는 제의를 조셉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저를 꼭 안아준다면 무엇이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을 꼭 잡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여러분, 친구들과 초등학교 지도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 서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타고난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길 위에 그들을 정박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구원의 계획을 아낌없이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아이도 그 길을 혼자 걷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계획을 이해한다면 진리를 고수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들은 전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며, 이 지상에 온다는 기쁨에 소리쳤고, 구주께서 도와주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계획과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앨마서 2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 구원의 계획을 장래 세대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리[셨습니다.]”<sup>2</sup>

최막대를 굳게 붙드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계획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막대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자녀의 손을 잡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은 아이들 눈에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확신을 느낄 때 자녀들은 우리의 모범을 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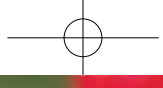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십시오. 자녀들은 우리와 하나라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부모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은 매일 함께 경전을 읽을 수 있어.” 하고 말할 때 아이들이 따를 것입니다!

네 자녀를 둔 한 가족이 이런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직 글을 읽지 못했지만 저희가 하는 말을 따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몰몬경을 세 절씩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각각 한 절씩 읽고 나면 아이가 한 절을 따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경전 구절을 따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네 구절, 그리고 다섯 구절로 늘려갔습니다. 따분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계속 해 나갔습니다. 속도보다는 일관성에 집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몰몬경 읽기를 마치기까지는 삼 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매일 가족 경전을 읽는 일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경전 용어에 친숙하며, 그 시간은 남편과 제가 진리에 대해 간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집에 영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한 경험에서 제가 배운 점을 여러분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자 한다면 한 번에 한 구절씩 경전 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기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가르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이 그들에게 가르칠 모든 것을 능히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5년



뒤에나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오늘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처지나 결과, 고난에 부딪힐 때에도 그때를 기회로 삼아 복음 진리를 고수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젊은 엄마인 쉐넌은 40분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에 탔을 때 아이들에게 기도의 힘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출발했을 때에는 괜찮았지만 협곡을 따라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가벼운 눈발은 세찬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두 자녀들은 사태가 심각함을 감지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쉐넌은 큰 아이들인 여덟 살과 여섯 살 난 하이디와 토머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겠구나. 집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길에 갇히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렴.” 하고 말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쉐넌은 손이 떨렸지만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도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10 리아호나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어린 아이들은 두려움에서 진정되었으며, 도로가 폐쇄되어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차를 돌려 그날 밤을 지낼 모텔을 찾았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진실한 기도에서 발휘되는 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을 겪겠습니까? 조셉 스미스처럼 우리 자녀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붙잡아 기도와 경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르칠 때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봄, 남편과 저는 네 살 된 손자의 축구 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공을 쫓아 이리 저리 달릴 때면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호각 소리가 났을 때 선수들은 누가 이겼고 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를 했을 뿐입니다. 코치는 선수들에게 상대 팀 선수들과 악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코치는 승리의 터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모, 조부모, 그리고 경기를 보러 온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서로 마주 본 채 두 줄로 나란히 서서 팔을 치켜 들고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곧 상대 팀 선수들도 즐겁게 합세해서 승자 패자 할 것 없이 모든 선수가 승리 터널 속을 달리면서 어른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눈으로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자녀를 위해 창조하신 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협착하고 좁은 길에 있는 기쁨을 느끼며 그들을 사랑하는 관중들의 팔을 통해서 그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sup>3</sup> 구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sup>4</sup>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굳게 붙잡고 구주의 인도를 따를 때 모두 하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p. by His Mother*, ed. Preston Nibley(1958), 56~57쪽 참조.
2. 앨마서 24:14.
3. 니파이후서 9:13.
4.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회장단

# 선지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교회 개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하셔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시고 굳건한 간증을 얻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 받았다는 결심을 하기에 앞서 저는 조셉 스미스의 역사 발췌문을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저는 각 단락을 꼼꼼히 읽은 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겠다면, 14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자 조셉 스미스가 그분의 선지자라는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응답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뒤이은 모든 계승자들 또한 선지자임을 저는 압니다.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회원들을 이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경전 안내서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고 또 그를 위해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는 명령, 예언,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경전 안내서, “선지자” 참조)

지금처럼 험난한 세상에 주님에게서 말씀과 계명과 인도를 받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선지자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영감을 받아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아모스 3:7)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성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0:26 참조) 신앙개조 제6조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믿는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과 확신으로 그분들을 따르며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0년 당시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신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메리어트 센터에서 열린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주제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는 열네 가지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전한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일생 동안 선지자들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일이 가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원리 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1980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1981], 26쪽)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자라나는 세대를 돌보고, 활동하지 않거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구조하며, 선지자의 우선순위라고 불리는 많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이며, 선지자가 곧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라]”(교리와 성약 21:4)는 권고를 받습니다. 또한 다음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1:5~6)

둘째 원리입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는 표준경전보다 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열네 가지 기본 원리”, 26쪽)

살아 있는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특정한



계시를 받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들이 어느 한 도시나 국가를 위해 특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적어도 세 분이 제 고국인 브라질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 한 분은 브라질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고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매달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한 말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수년 연속 인플레이션 비율이 5%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현재도 발전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셋째 원리입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가신 선지자보다 더 중요합니다.”(“열네 가지 기본 원리”, 27쪽)

이 원리에 대해 우리는 경전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차라리 죽은 선지자를 믿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며, 노아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 때문에 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알입니다.(창세기 6~7장 참조)

넷째 원리입니다. “선지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열네 가지 기본 원리”, 27쪽)

우리는 이 원리를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서 배웁니다. 윌포드 우드렘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나 또는 이 교회의 회장의 직을 맡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나의 지위에서 옮기실 것이며, 다른 어떠한 사람이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그들의 의무에서 떠나가게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람도 주님께서 그 같이 하실 것입니다.”(공식선언-1)

다섯째 원리입니다. “선지자는 어느 때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 특별한 세속적인 훈련이나 자격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열네 가지 기본 원리”, 27쪽)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시고자

어린 소년인 조셉 스미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조셉 스미스가 신학 또는 과학 박사였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조셉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겸손한 어린 소년이었던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께 선택되었으며, 회복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벤슨 회장은 계속해서 그 다음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섯째,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전이 될 말씀을 줄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째,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열네 가지 기본 원리”, 27, 28쪽)

그런 후 벤슨 회장은 니파이전서 16장 1절과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도다 하더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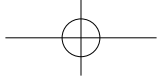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또 이제 나의 형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의롭고 기꺼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에 유의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려 하였더라면, 당신들은 진리로 인하여 불평하여 네가 우리에게 심한 것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덟째 원리입니다. “선지자는 인간의 논리에 제약 받지 않습니다. ……

어느 특정한 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하여 나병을 고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선지자 엘리사는 나병환자에게 그렇게 말했으며, 실제로 그 나병환자는 병에서 나왔습니다.(열왕기하 5장 참조)(“열네 가지 기본 원리”, 28쪽)

벤슨 회장은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데이비드 엠 맥콩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원리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여섯 가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번 가정의 밤 시간에 이번 연차 대회에서 받은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찾아보시도록 권유합니다.

“아홉째, 선지자는 현세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문제라도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열째, 선지자는 사회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열하나째, 선지자를 따르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두 부류는 학식이 높아 교만한 이들과 세상의 부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

열둘째, 선지자는 세상이나 세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는 않을 것입니다. ……

열셋째, 선지자와 그 보좌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정원회인 제일회장단을 구성합니다. ……

열넷째, 선지자와 회장단, 즉 살아 있는 선지자와 제일회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지만 거부하면 고통을 겪습니다.”(“열네 가지 기본 원리”, 29쪽)

이 훌륭한 연차 대회에서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를 전해줄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권고를 따르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축복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이시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태도 또는 마음 자세입니다.

**저**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오늘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가르치도록 부름 받은 모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든, 그리고 최근에 개종하신 분이든, 교사로서 오랜 경험을 하신 분이든 간에 구별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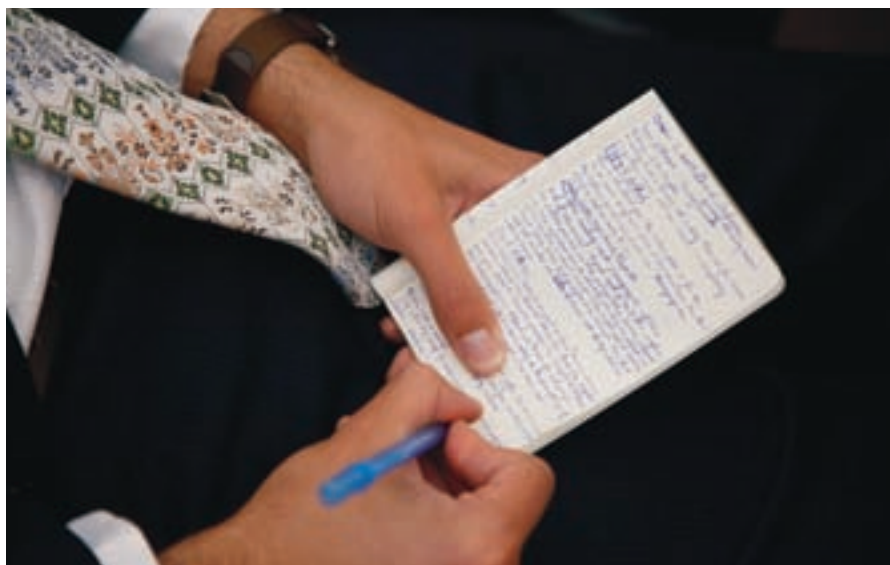
저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보다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말하는 것과 반원들이 실제로 듣거나 배우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교사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교사의 어떤 점 때문일까요? 어떤 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찾고, 선택의지를 행사하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즉, 다른 교사들과 구별되는 그 교사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훌륭한 교사이자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교사의 태도 말입니다.”

교사에게 있는 복음 지식이나 교수법, 혹은 교사가 교회 회원이 된 지 몇 년 되었는가, 또는 가르친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태도 또는 마음 자세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꽤 회장님은 윌리엄 이 베렛 형제님이 청남이던 시절에 그를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드센 소년들이 모인 청남반에 한 연세 지긋한 덴마크인 형제님이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

그분은 언어도 서툴렀고 덴마크어 억양이 심했으며, 투박한 농부의 손을 가진 연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 어리고 소란스러운 열다섯 살 소년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일은 그에게 그다지 어울려 보이지는 않았습니...

그러나 베렛 형제님은 늘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꽤 형제님이 종종 인용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소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뛰어넘어 이 산만한 열다섯 살짜리 소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렛 형제님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타오르는 신앙의 불꽃으로 손을 녹일 수 있었다.’<sup>2</sup>

훌륭한 복음 교사들은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대로 학생들이 느끼길 바라며, 자신이 경험한 대로 학생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교사의 태도는 배워 얻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입니다.<sup>3</sup>

그렇다면 성공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네 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먼저 경전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공과 준비와 별도로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기에 앞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님은 아직도 어릴 적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정말 유능하고 영감이 찬 교사의 영향 아래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루시 게르치입니다. 주일 학교 시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 아담의 타락, 예수님의 속죄 희생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도마, 바울, 물론 그리스도까지도 소중한

손님으로 교실로 모셔왔습니다. 그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본받는 법을 배웠습니다.”<sup>4</sup>

루시 게르치 자매님은 그 손님들에 대해 잘 아셨기에 그분들을 공과반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매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매님 반 반원들 또한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본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하이럼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sup>5</sup> 이 권고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sup>6</sup>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고<sup>7</sup> 나아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셨습니다.<sup>8</sup>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sup>9</sup>

제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스테이크 회장단은 지역 칠십인 한 분께 교육을 받았습니...

훈련 기간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교회 지침서*를 펴 봅시다.” 우리는 곧바로 지침서를 펼쳤고, 거기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침서를 펴 봅시다.” 저는 감히 더는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서를 읽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가 질문이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 때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그와 유사한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 참 좋은





질문이구나. 엘마서 5장 또는 교리와 성약 76편을 살펴보면 그 문제에 관해 내가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되풀이하시는 것은 하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경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됩니다.

둘째,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십시오. 하이럼 스미스가 이 위대한 후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러하도다. 네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네 일이니라.”<sup>10</sup>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그분의 영을 간구하십시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sup>11</sup> 이는 우리가 적절한 교수법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참되다 해도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배움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사가 하는 역할은 “각 사람이 복음을 배울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즉 복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복음대로 생활하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sup>12</sup> 이것은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느냐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sup>13</sup>

공과에 관한 도움뿐만 아니라 각 반원의 필요 사항을 알고 충족시키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반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각 학생에게 어떻게 손길을 뻗어야 할지 알기 위해 영감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나 그분의 영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성숙도 혹은 지적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sup>14</sup>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경전을 연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 둔다면, 아울러 온 정성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고 각 반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성신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sup>15</sup>

넷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우리가 받는 영적 속삭임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소리가 말할 때 현명한 남성과 여성은 순종합니다. 영의 속삭임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sup>16</sup>

#### 브라질 상파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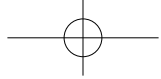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여러분은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 주는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신에게서 받는 속삭임을 따를 때 교사로서 가장 달콤하고 뿌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신앙이 강해지고 앞으로 더욱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일어난 위대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심부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름과 책임을 맡은 우리를 키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David McCullough, “Teach Them What You Love,”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에서 전한 말씀, 2009년 5월 9일).
2. 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 72쪽.
3. David McCullough, “Teach Them What You Love” 참조.
4. 토마스 에스 몬슨,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76쪽.
5. 교리와 성약 11:21.
6. 요한복음 5:39 참조.
7. 니파이후서 32:3 참조.
8. 조셉 스미스-마태복음 1:37 참조.
9. 교리와 성약 18:36; 84:52 참조.
10. 교리와 성약 11:20.
11. 교리와 성약 42:14.
12.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61쪽.
13.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0~62쪽 참조.
14.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교회 교육의 진로(유타 주 아스펜 그로브에서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 1938년 8월 8일), 6쪽.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2007년), 132쪽 참조.
16.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도의 빛*, 1997년 6월호, 4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이생에서 얻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납할 때 옵니다.

어릴 때 저는 뉴욕 시에서 열린 1964년 세계박람회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볼거리 중에서도 제가 좋아했던 것은 솔트레이크 성전 침탑 모형이 전시된 후기 성도 교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Man's Search for Happiness*[행복의 추구]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관람했습니다.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의 해설로 구원의 계획을 묘사한 그 영화는 저를 포함한 많은 관람객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에반스 장로님이 하신 해설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두 가지 귀중한 선물을 얻습니다. 하나는 시간이며,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여러분이 얻은 시간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짜릿한 것과 교환하거나 지속적인 욕망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탐욕스러운 것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필멸의 삶에서 흘러 보낸 매일, 매시간, 매 순간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걷고, 악보다는 선을, 그릇된 것보다는 옳은 것을, 단순한 재미보다는 지속되는 행복을 택하여 스스로를 입증하는 시기가 바로

이생입니다.

하나님의 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그 기쁨에는 충만한 삶, 봉사로 헌신하는 삶,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정과 정직한 노동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에 따른 요건과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에서만 참된 행복, 즉 조명이 꺼지고 연주가 끝난 후 관객들이 사라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란 창조주께서 주신 시간과 선택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청지기 직분이란 용어는 헌납의 법(예: 교리와 성약 42:32, 53 참조)을 상기시킵니다. 헌납의 법에는 재정적 임무와 아울러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현세에서 적용되는 해의 왕국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5:5 참조) 헌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별하거나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성스럽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생에서 얻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납할 때 옵니다.(요한복음 17:1, 4; 교리와 성약 19:19 참조)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도록 들어 올려 주십니다.

헌납된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인 청결, 일, 육신을 존중함, 봉사, 고결함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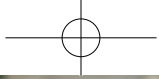
고찰해 보겠습니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헌납된 삶이란 청결한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지만,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명에를 메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깊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 땅의 모든 끝이며,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제3니파이 27:20)

그러므로 헌납이란 회개를 의미합니다. 고집이나 반항, 자기합리화 같은 것은 버려야 마땅하며, 그 자리를 순종과, 고침을 받으려는 소망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냐민 왕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모시아야서 3:19) 되라고 말할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영혼이 주님의 성찬을 취함으로써 기억되고 새로워지는 약속, 즉 성령이 항상 함께한다는 약속을 얻습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님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빛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지닌 빛과 지혜와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즉, 그 밝은 빛살들을 엮어 만든 성스러운 고리로 자신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자신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메시야께서 신비롭게 표현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함축합니다.”<sup>2</sup>





헌납된 삶이란 일하는 삶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8~49 참조)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모세서 1:39 참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훌륭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참된 노동은 신성하다. 모든 참된 노동 중에서도 참된 손으로 하는 노동에는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존재한다. 이 지상 곳곳에서 행해지는 참된 노동은 하늘로 이어져 하늘의 보상을 받는다.”<sup>3</sup>

하나님께서서는 필멸의 존재가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짙은 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일함으로써 [우리는] 편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55) 일을 해야만 삶이 유지되고 풍요로워집니다. 일을 하면 필멸의 생에서 겪는 낙담과 비극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노력하여 일을 성취할 때 자긍심을 얻습니다. 일은 성품을 키우고 강화하며, 아름다움을 만들고, 타인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수단이 됩니다. 헌납된 삶이란 때로는 되풀이되고, 때로는 하찮으며, 때로는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늘 무언가를 향상시키고, 정돈하고, 지탱하며, 들어올리고, 보살피며, 영원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을 찬미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가의 이점 역시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수고가 달콤한 휴식을 안겨주는 것처럼 건전한 여가 생활은 일과 친구이자 변함없는 동반자입니다. 음악이나 문학, 예술, 무용, 연극, 운동 등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움을 선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을 성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흥으로 통하는 많은 것이 저속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폭력적이고, 정신을 마비시키며,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로는 건전한 여가를 찾는 것이 오히려 힘든 노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가가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바뀐다면 여가는 헌납된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 너희는 삼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모로나이사서 7:14)

헌납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비할 수 없이 고귀하고 신성한 육신을 존중합니다.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주요 목적은 각 영이 그러한 몸을 얻어 육신이라는 장막 안에서 도덕적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육신은 또한 영과 육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우리의 사랑하는, 부활하신 구주를 보게 될 때만 얻을 수 있는 승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분은 고통스럽고 짧은 삶을 영위하고, 또 어떤 분은 신체가 기형이 되거나

손상되고, 또 목숨만을 간신히 부지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각 영에게 인생은 충분히 긴 기간이며, 그 모든 육신은 부활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신이 다만 진화가 낳은 산물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육신과 관련된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와 현세,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진 우리는 육신의 창조라는 최고의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이 진리들을 이해한다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지난 4월 연차 대회 때 주신 지침대로 몸에 문신을 새긴다거나, 마약으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간음, 간통, 음란한 행위 등으로 육신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sup>4</sup> 우리 몸은 우리 영의 도구가 되므로 육신을 최대한 잘 보살피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육신의 힘을 성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로마서 12:1)



예수께서는 헌납된 삶이 봉사하는 삶을 보여 주셨습니다. 속죄를 위한 고통을 몇 시간 앞두고서 주님은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요한복음 13:14~16)

소리 없이 사려 깊게 헌납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시대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만큼 매일의 삶에서 이런 성품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 없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길러오셨기에 그분의 손길이 미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영의 희미한 속삭임까지도 분별해내십니다. 때로는 단순한 행동에 불과할지라도 토마스 몬슨 회장님은 성스러운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일이라면 응하지 않으시는 때가 없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이신 알렉산더 드위트 크리스토퍼슨과 할머니 루이스 비커리 크리스토퍼슨의 생애에서도 그런 헌납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힘이 장사 같으셨던 할아버지는 양털 깎는 일에서도 명수셨습니다. 그때는 전통 가위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287마리나 되는 양의 털을 깎았단다. 300마리도 넘게 깎을 수 있었지만 양이 없어서 더 못 깎았지.” 1919년 한 해 동안 할아버지는 만이천 마리가 넘는 양의 털을 깎아 약 이천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 시절에는 농장을 크게 확장하고 집을

개조할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남부 주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으셨고, 루이스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는(당시 만이들인 제 아버지를 임신하고 계셨던) 할머니와 세 딸과 양털을 깎아 모은 돈을 남겨 두고 임지로 떠나셨습니다. 2년이 지나 기쁜 마음으로 귀환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2년이 지나도록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29달러나 남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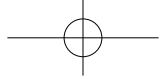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헌납된 삶은 고결한 삶입니다. 우리는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sup>5</sup>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런 고결함을 발견합니다.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자녀의 신체적 영적 복지를 돌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그런 고결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에게서 그런 고결함을 발견합니다.

몇 해 전 저는 공동소유인 기업체를 분리하는 과정에 있던 두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독교 종파 회원인데다가 친구 사이인 두 소유주는 오래 전에 그 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동업자로서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나이가 들어 아들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자산을 나눠 갖고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분리 과정에서 다른 동업자 부자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책략을 꾸밈습니다. 당사자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들 중 한 사람이 이 불공평한 처사를 불평하며, 상대방 동업자의 명예와 기독교적 믿음에 호소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 그것도 같은 교회 회원을 이용하여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른 동업자의 변호사가 응수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한참 멀었군. 이렇게 순진해서야.”

고결함은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혼자서 추측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제3니파이 27:14) 헌납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 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겹옷까지도 주는  
사람입니다.(마태복음 5:39~40) 구주께서는  
위선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위선은 위선자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거나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특히 자녀들에게 매우  
파괴적입니다. 위선은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반면에 명예는 그 안에서 신앙의 씨앗이  
자라 번성하는 기쁜 토양입니다.

헌납된 삶은 아름답습니다. 헌납된  
삶은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교리와 성약 97:9) 강하고  
평온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헌납된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헌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기초를 놓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세대는 자신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께 빚짐을 느끼며,  
여러분의 헌납된 삶에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모로나이서 7:48, 또한 요한1서 3:2  
참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자신을 헌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Man's Search for Happiness*(소책자, 1969), 4~5쪽.
2. B. H. Roberts, “Brigham Young: A Character Sketch,” *Improvement Era*, June 1903, 574쪽.
3. Thomas Carlyle, *Past and Present*(1843), 251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4~67쪽 참조.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Ensign*, 1995년 11월호, 102 쪽.

#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인생과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출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을 연구할 때 인생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지식에  
기초하여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 기후와  
성장 환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성장을 연구하면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환경조건이 이상적인 절기 동안에는 나무가  
정상 속도로 자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장 환경이 이상적이지 못한 절기에는  
나무가 더디게 성장하며, 그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에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갑작스런 기류 변화로 항공기가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여러분이 보통 비행 중에 겪는  
흔들림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흔들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만, 보통 강도로  
흔들리더라도 승객 입장에서는 아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난기류를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종사 공부를 하는  
학생은 속도를 높이면 난기류를 빨리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 조종사들은  
난기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난기류를 관통하는 최적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 그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처할 때는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훌륭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 현대 생활의 속도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나무나  
난기류에 빗대어 보면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교훈을 얼마나  
쉽게 묵살하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비극에 부닥치면 평소처럼 광란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해야 더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하여 가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현대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난기류나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늘 속도를 높이면서 나아가간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을 압도할 만큼 해야 할 일을 많이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부심이 해야 할 일의 목록 길이에 달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는 중에도 자유 시간을 모임과 사소한 일들로 가득 채웁니다. 쓸데없이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종 심하게 좌절감을 느끼고, 기쁨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를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미덕도 지나치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일정 계획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취가 걸림돌이 되고, 대망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테와 난기류 교훈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매일 미친 듯이 인생을 질주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인생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조언을 따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몇 년 전 연차 대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내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sup>2</sup>

가장 좋은 것을 찾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 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늘 보살피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

주신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 본질적인 교리와 원리는 어린 아이도 이해할 만큼 단순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에 종종 단순함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움과 명료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궤도를 선회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에서는 볼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명석한 사람 몇몇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천 시간과 수백만 달러를 들인 끝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어느 기온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거의 모든 표면에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최고의 정교함이다.”<sup>3</sup> 행복의 계획, 즉 구원의 계획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볼 때 우리는 그 평이함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지혜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그분의 방법으로 전향하는 것에서 우리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 기본에서 발휘되는 힘

전설적인 미식축구 코치 빈스 롬바디는 훈련 첫날에 일종의 의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미식축구를 해 온 선수들에게 공을 들어 올려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식축구공입니다.” 그는 공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차고, 들고, 패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롬바디는 팀을 빈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이곳은 미식축구 경기장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경기장 주위를 걸어 다니며 규모와 모양, 규칙, 경기 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sup>4</sup>

롬바디 코치는 그 경험 많은 선수들과 팀이 기본을 숙달해야만 위대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경기 기본을 숙달할 때까지는 결코 우승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대부분이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아주 많은 것에 때때로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인쇄물, 다양한 매체 자료, 전자 기기과 장치, 이 모든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것으로 바뀌거나 인간을 고립시키는 비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목소리와 선택 가운데서도 겸손한 갈릴리 사람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sup>5</sup> 그분은 성능이 좋은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sup>6</sup>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는 쉽게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거룩한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복음 원리와 교리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원리로,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심오한 의미를 지닌 진리로 들어서는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하고 중요한 경험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이 단순한 기본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들과 조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본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과 이해력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정 속도로 나아가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눈을 들고,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기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훌륭하고 풍성한 필멸의 삶에 기초를 확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우리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러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sup>7</sup>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부지런히 행하면 세상의 구주께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유입니다.<sup>8</sup>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질주하는 현대 생활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 그렇다면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주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으로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는 눈이 뜨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가장 성스럽고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성령의 영향력에 우리 마음을 열 때 삶은 더욱 안정되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배우고, 그분과 교감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므로]”<sup>10</sup>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를 때,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그분과 단 둘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용히 개인 기도와 경전 연구에 집중하고, 늘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매우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음 권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sup>11</sup>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가족과 맺는 관계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기]”<sup>12</sup>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단순한 일들을 함께하면서 강하고 애정 깊은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에 대해서도 감사해 합니다. 가족 기도, 복음 공부, 일요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함께 다가갈 때 신성한 유대를 확립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관계는 이웃과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사항에 민감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나눌 때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고령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결심하신 어느 자매님께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그 자매님은 근심에 잠기거나 낙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참으로 큰 축복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관계는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쁜 일정을 줄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조금 내시도록 제안합니다. 자연 속을 걷고, 해돋이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고, 회복된 복음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듯이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신성한 잠재력이 있는 소중한 딸과 아들로 보십니다.

#### 순전한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현명해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순전한 교리의 물로 향합시다. 단순함과 평이함 안에서 그것을 기뻐해 취합시다. 하늘은 다시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한 번 지상에 있으며, 그 단순한 진리는 풍성한 기쁨을 주는 원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뻐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과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출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힘은 중형무진하는 활동이 아니라 진리와 빛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자리잡을 때 옵니다. 힘은 우리의 주의와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기초에 둘 때 옵니다.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옵니다.

삶을 조금 단순화합시다. 삶의 초점을 단순하고 겸허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숭고한 아름다움에 다시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일으킵시다. 그 길은 늘 의미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저의 축복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Mahatma Gandhi, Larry Chang, *Wisdom for the Soul*(2006), 356쪽.
2. 델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7쪽.
3. Leonardo da Vinci, John Cook, comp., *The Book of Positive Quotations*, 2nd ed.(1993), 262쪽.
4. Vince Lombardi, Donald T. Phillips, *Run to Win: Vince Lombardi on Coaching and Leadership*(2001), 92쪽.
5. 누가복음 18:22.
6. 열왕기상 19:12 참조.
7. 모사이야서 4:27.
8. 니파이후서 25:26.
9. 고린도전서 12:31; 이터서 12:11.
10. 요한복음 14:6.
11. 시편 46:10.
12. 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1924), 42쪽; 또한 Conference Report, 1935년 4월, 116쪽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호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톱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스펜서 제이 콘디, 브루스 시 하펜, 케네스 존슨, 글렌 엘 페이스, 랜스 비 위크먼 장로를 해임하고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칠십인 제이 정원에서 스펜서 브이 존스,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를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형제님들에게 함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칠십인 페르난도 말루엔다, 호세 엘 토레스 장로를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칠십인으로 웨슬슬라오 에이치 스펜 장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있으십니까?

그 외 현재 구성된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한 모든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헌신과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선택의지: 구원의 계획의 본질

언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종들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최** 근에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닌 50년 지기 친구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읽을거리를 보냈는데, 그에 관해 받은 답장은 이랬습니다. “선택의지와 같은 전형적인 몰론 용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가 어려웠다네. 짤막한 용어집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되겠네.”

저는 선택의지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친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전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선택의지(agency)라는 영어 단어에는 10가지 정의와 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 어느 것도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한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지를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sup>1</su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에 관한 능력이자 특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택의지란 소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택의지가 있어야만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sup>2</sup>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원리가 매우 분명하게 나옵니다.

인간이 자유 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sup>3</sup>

제 오랜 친구와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한 분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고자 선택의지라는 말에 담긴 뜻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와서 육신을 얻고,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며, 그분처럼 되기 위해 진보해 나가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선택의지는 이 계획에서 필수 요소였습니다. 선택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진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선택의지로 그릇된 선택을 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고통을 받고 대속해 주실 구주를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 축복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구주께서는 무한한 속죄로 말미암아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sup>4</sup>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을 제시하시자 루시퍼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sup>5</sup>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택의지도 박탈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것은 모반의 계획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택의지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sup>6</sup>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 구주, 곧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루시퍼는 반란을 일으켰고, 영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제시하신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삼분의 일은 구주를 따를 신앙이 없었으며, 그 대신 사탄이 된 루시퍼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sup>7</sup>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한] …… 까닭에 나는 …… 그가 쫓겨 나게 하였느니라.”<sup>8</sup> 사탄을 따른 자들은 필멸의 육신을 받고 지상에 살면서 진보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선택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선택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남은 유일한 힘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능력뿐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느끼는 기쁨은 우리를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행복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세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순간, 지상에 있는 동안 구주를 따르겠다는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토록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주를 따르기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으며,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행동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년시절,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의식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기로”<sup>10</sup> 택하셨습니다. 성역을 베풀 때 그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로”<sup>11</sup> 택하셨습니다. 겻새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모든 일을 경기로 선택하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sup>12</sup>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그분은 이같이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sup>13</sup> 그런 후에 그분은 홀로 남겨져,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물으셨습니다.<sup>14</sup> 마침내 그분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다 이루었다”<sup>15</sup>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sup>16</sup>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이란 사슬을 깨뜨리시기 위해 선택의지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한다면 선택의지를 잃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진보하게 된다는 점을 온전한 삶으로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을 경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으나 끝까지 충실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치라는 천사의 경고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구주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가 지시한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리하여 예언된 대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종들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필멸의 여행을 하는 우리는 반대되는 것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로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으면 기회가 줄어들고, 행동하고 진보할 우리의 능력도 위축됩니다.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여 동생 목숨을 해친 가인은 더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나무 마루에 니스를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입구부터 시작하여 방 안쪽으로 칠해 갔습니다. 일이 거의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저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쪽에는 창문도 문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스스로 곤경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움푹달짝 못하게 감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불순종한다면 스스로를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의 선택에 구속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갇혔다 하더라도 언제나 되돌아오는 길은 있습니다. 물론 새로 니스 칠을 한 마루를 가로질러 되돌아오면 칠을 벗겨내고 또 다시 니스 칠을 해야 하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개처럼 말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 가면서 우리는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성신과 계명을 주시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의지를 지켜



주는지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그대로 지킨다면 중독에 사로잡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건강을 해치고 우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빼앗습니다.

빛을 지지 말고 지금 바로 빛에서 벗어나라는 권고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의지를 사용하고 수입에서 남은 여유분을 다른 사람을 돕고 축복하는 일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를 하라는 선지자의 권고에 따른다면 우리 가정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며,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빛 안에서 걸어갈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로운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선택의지에 대해 많은 그릇된 신념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26 리아호나

마시고 즐거워 하라 ……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sup>17</sup>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sup>18</sup>이 없기에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sup>19</sup>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러한 헛된 망상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립시다.”<sup>20</sup>

세상의 세속적인 가르침과는 반대로,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선택의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회와 그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으며 영원히 진보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 하셨나이다”<sup>21</sup>

하지만 사울은 주님께서 주신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른 바 “선택하는 순종”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여 아각 왕을 살려주고 양과 소와 여러 동물들 중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돌아 왔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셨으며,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고자 그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sup>22</sup>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아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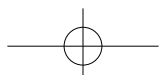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 가축들을 남겼다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sup>24</sup>

마침내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sup>25</sup> 사울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주어진 그대로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선택하여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의지와 더불어 왕이 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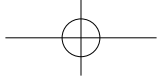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혹은 사울처럼 선택하여 순종하며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실수를 범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같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sup>26</sup> 여러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과거에 사로 잡혀 어두운 구석에 움썅달썅 못하고 갇힌 채,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했다더라면 누렸을 모든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 분들께 외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어두운 구석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새로 막 니스 칠한 마루 바닥을 건너와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sup>27</sup> 굳건히 믿으십시오.

속죄를 이뤄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구주는 우리 모두를 위해 위대한 중보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sup>28</sup>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sup>29</sup>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선택의지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처럼 되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sup>30</sup> 그 날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태초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26.
2. 니파이후서 2:27.
3. “인간이 자유 의지로”, 찬송가, 175장.
4. 엘마서 42:15.
5. 모세서 4:1.
6. 모세서 4:2.
7. 교리와 성약 29:36 참조.
8. 모세서 4:3.
9. 니파이후서 2:27; 또한 니파이후서 9:9 참조.
10. 누가복음 2:49.
11. 제3니파이 27:13.
12. 누가복음 22:42~43.
13. 누가복음 23:34.
14. 마태복음 27:46; 마가복음 15:34.
15. 요한복음 19:30.
16. 히브리서 4:15.
17. 니파이후서 28:8.
18. 니파이후서 2:11.
19. 엘마서 30:17.
20. 니파이후서 2:12.
21. 사무엘상 15:1, 3.
22. 사무엘상 15:13.
23. 사무엘상 15:14.
24. 사무엘상 15:22.
25. 사무엘상 15:24.
26. 로마서 3:23.
27. 신앙개조 제3조.
28. 요한복음 17:24.
29. 요한복음 17:3.
30. 모사이야서 27:31.

# 빛이 있으라!

갈수록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종교 신념에 기초한 가치관에 대해 대중이 서로 이야기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 난달에 있었던 제 생일에 아내 메리는 희망과 신앙을 노래한 베라 린이라는 유명한 영국 가수의 CD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치르던 암울한 시기에 사람들은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이 선물을 준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40년 9월에 일어난 런던 폭격은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시작되었습니다.<sup>1</sup> 어머니는 병실에서 라디오로 런던 대공습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때 라디오 진행을 하던 쿠엔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을 짓기로 정하셨습니다.

가수 베라 린은 현재 93세입니다. 그녀가 부른 전쟁 시절 노래 몇 곡은 작년에 재발매 되자마자 영국 음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The White Cliffs of Dover[도버해협이 백색 절벽]” 같은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When the Lights Go on Again(All over the World)[(온 세상에) 빛이 다시 발할 때]”라는 노래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영국 정치가가 한 예언과 같은 다음 말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등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sup>2</sup> 또 한편으로는 런던과 비슷한 영국 도시에 일어난 폭격이 생각났습니다. 그 도시는

돌진해 오는 폭격기가 목표물을 찾지 못하도록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끄고 창문을 가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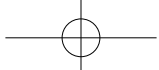
이 곡에는 자유와 빛을 되찾으리라는 낙관적인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립하는 선과 악 사이에서 구주와 그리스도의 빛<sup>3</sup>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분들은 세계 대전과 오늘날 일어나는 도덕적 갈등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온 인류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sup>4</sup> 그리스도의 빛 덕분입니다.

자유와 빛을 얻거나 이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하늘 전쟁 때부터 악한 세력은 선택의지를 파괴하고 빛을 소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도덕 원칙과 종교의 자유가 지금처럼 맹렬한 공격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빛을 보존하고 도덕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서 가족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가족은 악한 세력이 사방에서 퍼붓는 맹공격의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진리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영적 발전과 성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폭탄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음란물은 도덕성에 큰 파멸을 초래하는 무기입니다. 음란물은 도덕 가치관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은 세상에서 빛과 희망을 소멸시킵니다.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sup>5</sup> 우리 가정과 삶에서 악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의로운 생활에서 오는 평화가 강력한 도덕적 폭발로 산산조각 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에 거하는 것이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더욱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매일 가족 기도과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sup>6</sup> 것들을 가정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정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만든다면 경전에

예언된 불행한 결과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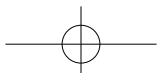
### 지역 사회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서 빛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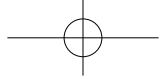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우리 시대는 “풍족하고 의심이 많은 시대”<sup>8</sup>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경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 주어 반향을 일으키고, 폭력과 악으로 급속히 빠져드는 일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지자 몰몬에 대해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느꼈을 비통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던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었더냐!”<sup>9</sup> 몰몬은 그런 비통함을 느낄 만했습니다. 그의 아들 모로나이는 “[그]의 백성의 슬픈 멸망의 이야기”<sup>10</sup>를 기술하기 위해 남겨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생활하고 어울리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빛과 진리가 보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논쟁가들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신앙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믿습니다.<sup>11</sup>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교리적 차이를 초월하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염원으로 화합하게 하는 공통적인 도덕적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여전히 존중한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는 신앙을 파괴하고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적 영향력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들은 약물과 음란물, 성 매매, 인신 매매, 강도질, 부정직한 상업 관행을 통해 사회를 착취하고 조종하며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숫자로는 얼마 안 되나 그에 비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공공 생활에서 종교와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사람들과 신앙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은 끊임없었습니다.<sup>12</sup> 오늘날 많은 여론 주도층은 유대교와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도덕적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도덕적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sup>13</sup> 또한 도덕적 목표에 우선권을 두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sup>14</sup>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선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신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 양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영]”<sup>15</sup>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빛은 “온 세상을 위[해]”<sup>16</sup> 주어졌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 빛이 “우리 모두가 인간 가족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과 공통으로 지닌 영감의 근원”<sup>17</sup>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관도 받아들입니다. 물몬경에 있는 모사이야서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가 무엇이라도 올바른 것에 반하는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지 아니하되, 백성 중 적은 부분이 바르지 못한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니” 이어서 모사이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백성의 소리가

정녕 죄악을 택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sup>18</sup>

갈수록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종교 신념에 기초한 가치관에 대해 대중이 서로 이야기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광장에서도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도덕적 태도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으로 종교적 양심에 우선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sup>19</sup>

종교적 신념은 빛과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끼며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놀라운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합니다.<sup>20</sup>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교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느끼는 데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행동

신앙개조 제13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직[을] …… 믿는다.” 정직은 종교 신념에서 나온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율법 중 하나입니다.

수년 전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비회원인 친구이자 고객이 저를 찾아와서 매우 감격해 하며 근처 와드의 후기 성도 감독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감독은 예전에 제 고객 밑에서 일하던 교회 회원 한 사람이 작업장에서 자재를 가져갔지만 그것을 잉여물이라며 합리화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충실한 후기 성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부정직했음을 인식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넣어 둔 자재에 해당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제 고객은 교회와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이 남성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이 정직이란 가치관에 깃든 빛과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어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결혼 서약에 충실하다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정직이라는 개념은 구주의 삶과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정직은 다른 많은 종교와, 역사상 뛰어난 문학 작품에서 중시해 온 성품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sup>21</sup> 대부분 신앙인들은 정직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에 살던 그 남성이 예전에 저지른 부정직한 행위를 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졸업식 연설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교회 지도자인 클레이트 크리스텐슨은 민주주의를 연구한 외국인 동료 교수의 실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동료 교수는 종교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민들에게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도록 가르치는 사회에서는 강제하지 않아도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법과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는 경찰력으로도 정직한 행동을 강요하지 못했습니다.<sup>22</sup>

정직을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관은 빛과 진리를 확립하고 사회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직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중시해야 할 가치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태도

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두 번째 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종교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많은 종교 단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sup>23</sup> 대영제국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영국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좋은 예입니다.<sup>24</sup> “Amazing Grace[놀라운 은총]”이라는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와, 이와 제목이 같은 감동스러운 영화는 1800년대 초반 정서를 재현하며 윌버포스가 일궈낸 영웅적인 업적을 그려냈습니다. 그가 설새 없이 쏟은 노력은 이 끔찍하고 탄압적이고 잔인하고 부패한 행위를 없앤 첫 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윌버포스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공중도덕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버포스는 교육과 정부가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sup>25</sup> “그는 결혼 제도를 수호하는 것이든 노예무역 행위를 철폐하는 것이든, 특히 안식일을 수호하는 것이든 간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필요로움을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sup>26</sup> 윌버포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도덕성을 끌어 모으고 전국에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 악덕에 맞서 싸우도록 도왔습니다.<sup>27</sup>

초기 교회 역사에서도 회원들 대다수가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sup>28</sup> 이는 그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과 더불어 보그스 미주리 주지사가 근절령을 발효해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과 폭도들의 폭력이 절정에 달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sup>29</sup> 1833년에 조셉 스미스는 이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sup>30</sup> 종교의 자유를 향한 결의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하는 태도는 우리 교리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것들은 신앙에 기초한 가치관이 사회를 크게 축복한다는 원리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더 많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를 축복할 도덕적 가치관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며, 품격 있고 성실한 사람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광장에서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목소리든 세속적인 목소리든 그 무엇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견해 중 일부가 종교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나 우선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와 가치관의 진가가 검토될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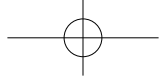
우리 교리의 도덕적 기초는 세상에 등대가 될 수 있으며, 도덕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면에서 단합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며, 지역 사회에 빛과 희망과 도덕성을 보존하기 위해 선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원리대로 생활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의로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빛이 다시 발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 노래”<sup>31</sup>하는 아름다운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Richard Hough and Denis Richards, *The Battle of Britain: The Greatest Air Battle of World War II* (1989), 264쪽 참조.
2. Sir Edward Grey에게 헌정됨. “When the Lights Go On Again(All over the World)”, wikipedia.org 참조.
3. 교리서 성약 88:11~13 참조. 그리스도의 빛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 되는 빛]”(13절)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보이드 케이 페커, “그리스도의 빛”,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8~14쪽을 참조한다.
4. 모로나에서 7:19.
5. Jacques Barzun, *From Dawn to Decadence: 500*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 Years of Western Cultural Life*(2000), 798쪽 참조.
6. 신앙개조 제13조.
  7. 마태복음 5:16.
  8. Roger B. Porter,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2009년 9월 13일, 메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스테이크 케임브리지 대학교 와드에서 전한 말씀).
  9. 물몬서 6:17.
  10. 물몬서 8:3.
  11. John Micklethwait 및 Adrian Wooldridge, *God Is Back: How the Global Revival of Faith Is Changing the World*(2009) 참조.
  12. Diana Butler Bass, "Peace, Love and Understanding"(John Micklethwait 및 Adrian Wooldridge가 쓴 *God Is Back*에 대한 논평), *Washington Post National Weekly Edition*, Jul. 27~Aug. 2, 2009, 39쪽 참조.
  13. David D. Kirkpatrick, "The Right Hand of the Fathers", *New York Times Magazine*, Dec. 20, 2009, 27쪽 참조.
  14. Kirkpatrick, "The Right Hand of the Fathers", 27쪽 참조. Robert P. George는 우리에게 도덕적 판단력과 선택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도덕 관념이 없고 결정론만 있다고 가르친다.
  15. 교리와 성약 84:46.
  16. 교리와 성약 84:48.
  17. 보이드 케이 패커,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8쪽.
  18. 모사이야서 29:26~27.
  19. Margaret Somerville, "Should Religion Influence Policy?" [www.themarknews.com/articles/1535-should-religion-influence-policy](http://www.themarknews.com/articles/1535-should-religion-influence-policy) 참조.
  20. Zhao Xiao, "Market Economies with Churches and Market Economies without Churches", 2002, [www.danwei.org/business/churches\\_and\\_the\\_market\\_econom.php](http://www.danwei.org/business/churches_and_the_market_econom.php) 참조. 이 중국 정부 경제 학자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막는 데 도덕적 기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21. "The Cotter's Saturday Night", *Poems by Robert Burns*(1811), 191쪽.
  22. Clayton M. Christensen, "The Importance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졸업 연설,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nchester, N.H., May 16, 2009) 참조.
  23. 창세기 1:26 참조.
  24. William Hague, *William Wilberforce: The Life of the Great Anti-Slave Trade Campaigner*(2007), 352~356쪽 참조.
  25. Hague, *William Wilberforce*, 104~105쪽 참조.
  26. Hague, *William Wilberforce*, 513쪽.
  27. Hague, *William Wilberforce*, 107~108쪽 참조.
  28. James B. Allen 및 Glen M. Leonard, *The 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2nd ed.(1992), 93, 120, 202쪽 참조.
  29. Leonard J. Arrington and Davis Bitton, *The Mormon Experience: A Hi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2nd ed.(1992), 48~51쪽 참조; 또한 Clyde A. Milner and others, *The Oxford History of the American West*(1994), 362쪽 참조. "노예 제도를 정착시킨 사람들과 정치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다."
  30. 교리와 성약 101:7.
  31. "When the Lights Go On Again(All Over the World)" 노래의 마지막 부분 가사.

# 신앙-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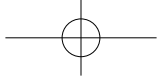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의심 대신에 신앙을 선택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는 것 대신 신앙을 택하고, 비판론 대신 신앙을 택하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 중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예언한 그 시대이며, 그들도 지금 이 시대를 동경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그 모든 축복을 받았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천사 모로나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이름이 세상 곳곳에 좋게도 전해지고 나쁘게도 전해질 것이라 말했는데(조셉 스미스-역사 1:33 참조), 정말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자신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오늘날은 교회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주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주의 실재성과 그분의 속죄 희생,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도전 받고, 때로는 약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는 부질없는 희망이나 신화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후기에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끊임없는 공격은 혼란과 의심과

비판론을 야기하며,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처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교리와 믿음이 도전 받을 때, 이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대립과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선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평안과 보호를 얻는 선택이며 모두에게 해당되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생각이나 바람이나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내게로 오라"(마태복음 11:28)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마태복음 7: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오라, 두드리라 등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즉,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신앙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심 대신 신앙을 선택해 보십시오. 두려움 대신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 대신 신앙을 택하고, 비판론 대신 신앙을 택하십시오.

신앙에 관한 엘마의 훌륭한 말씀이 물문경 엘마서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신앙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선택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선택하라고 힘차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여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엘마는 *일깨우다, 환기하다, 시험하다, 행사하다, 바라다, 역사하게 하다, 심다*라는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또 불신앙으로 그 씨앗을 내던져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엘마서 32:28)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물질이 어떻게 조직되어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모했는지 세세하게는 모릅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복잡한 과정이나 구주의 희생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구주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의 고통을”(교리와 성약 18:11) 겪으실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문경에 언급된 제이라헤물라 성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제 믿음이 왜 과학 지식이나 세상 지식과 충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훗날 계시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교리와 성약 107:19)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두를 모르더라도 저는 중요한 것을 압니다. 제가 아는 것은 바로 구원과 승영으로 인도하는 평범하고 단순한 복음 진리입니다. 구주께서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으셨으며, 회개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알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저는 신앙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복음에 실린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엘마가 가르쳤듯이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신앙으로 완전해집니다.(엘마서 32:34 참조) 소망으로 무장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신앙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엘마가 말한 방법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 혼란과 절망이 마음을 짓누르더라도 “[여러분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키[기]”(엘마서 32:27) 선택하십시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가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빛과 진리와 평화가 있는 주님의 길입니다.
- 여러분의 간증이 미성숙하고, 시험을 받지 않았으며, 불안정하다면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시험”(엘마서 32:27)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개인적인 지성이 성스러운 가르침과 교리와 충돌하거나, 사도 바울이 묘사했듯이, 상충하는 메시지가 마치 불화살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할 때(에베소서 6:16 참조), 불신앙으로 씨앗을 마음 밖으로 내던져 버리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이디서 12:6 참조)
-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고 성숙해지면 “많은 보살핌으로”(엘마서 32:37) 양육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강하더라도 상충되는 온갖 메시지가 그 신앙을 공격한다면 신앙이 아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마태복음 17:20) 저는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저는 의심과 절망이라 부르는 산이 옮겨지고, 그것들이 희망과 낙관론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죄라는 산이 회개와 용서로 바뀌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신앙으로 고통의 산이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과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제가 받은 신권 권능을 행사했고, 복음의 감미로움을 맛보고 또한 구원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평안과 확신을 얻고 인생에서 밀려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의문과 의심을 떨쳐내고 확신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얻어, 보이지 않고 설명이 없는 미지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듯한 이 시대에 저는 신앙으로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지금이 최고의 시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키워, 주님의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저는 간증드립니다.” 또는 “저는 압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그 씨앗을 제 마음속에 직접 심어 봤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씨앗을 완전한 지식으로 키우려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연단에 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참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살아 있는 도구였음을 간증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시대를 위해 부름 받은 주님의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신앙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과 세계 달려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케빈 알 던컨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우리의 생존

우리가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8** 48년 겨울은 솔트레이크 밸리에 정착한 초기 개척자들에게 어렵고도 힘든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1847년 여름, 브리검 영은 성도들이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sup>1</sup> 하고 말씀하신 브리검 영 회장은 이미 시현으로 성도들이 정착할 그곳을 보셨습니다. 초기 교회 회원들은 복음이 회복됨에 따라 엄청난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으며 핍박 받고 추격 당했습니다. 또한 평야를 가로지르며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마침내 “바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848년 겨울은 몹시도 혹독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발이 심한 동상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계곡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더 나은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각자 마차에 남아 있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씨앗과 과실수 묘목을 가져왔지만 척박한 황무지에 심어 그것을 낭비하는 일은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명한 탐험가인 짐 브릿저는 브리검 영에게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처음 재배한 옥수수 1부셀(8갤런=25킬로그램)에

천 달러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sup>2</sup>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교회 회원 중 일부는 부와 더 나은 기후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 삶이 더 순탄하고 풍족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던 시기에 브리검 영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곡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지정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내던져졌고 가장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게 될 곳은 이곳이며 우리는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지정하신 장소이며 여기가 그 백성들이 번성할 곳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흑한과 토양이 불모가 되는 것을 막으시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가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 외에도 영 회장은 솔트레이크 밸리가 열방으로 통하는 대로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황제들이 이 땅을 방문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sup>3</sup>

그것은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은 브리검 영의 예언을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브리검 영이 선언한 대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솔트레이크 밸리는 번영하고 번성했습니다. 성도들은 번창했습니다. 1848년 겨울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신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권고를 믿고 순종할 때 온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 회원으로서 누리는 더







없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sup>4</sup> 오늘날 교회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께서는 교회 전체 회원들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구성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동상에 걸린 발로 척박한 황무지 위에 선 초기 성도들이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삶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인 순종에 보상하셨으며 그분의 대변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과 자칭 전문가와 어떤 분야이든 모든 문제에 대해 조언과 권고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이론가, 교육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발달한 기술 덕분에 컴퓨터 자판을 한 번만 쳐 봐도 무수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부터 행복을 찾는 길까지 모든 분야에서 “육신의 팔”<sup>5</sup>에 의지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정보 중 일부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 회원인 우리는 순수한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기술 덕분에 우리는 컴퓨터 자판을 치면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한 선지자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스웨덴 스톡홀름

통해 우리에게 결혼과 가족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교육과 검소한 생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성취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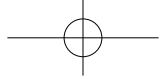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어떤 이들에게는 진부하거나 인기가 없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 뜻을 알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sup>6</sup>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서막이 열린 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단언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리라.”<sup>7</sup>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축복과 특권을 뛰어 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선지자를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벤슨 회장은 “선지자를 따르는 열네 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신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님은 이 열네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지자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2. 살아 있는 선지자는 표준경전보다 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3. 살아 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가신 선지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4. 선지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5. 선지자는 어느 때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 특별한 세속적인 훈련이나 자격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전이 될 말씀을 줄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8. 선지자는 인간의 논리에 제약 받지 않습니다.
9. 선지자는 현세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문제라도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선지자는 사회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11. 선지자를 따르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게릿 더블류 공 장로  
칠십인 정원회

겪는 두 부류는 학식이 높아 교만한 이들과  
세상의 부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12. 선지자는 세상이나 세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는 않을 것입니다.

13. 선지자와 그 보좌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정원회인 제일회장단을 구성합니다.

14. 선지자와 회장단, 즉 살아 있는  
선지자와 제일회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지만 거부하면 고통을 겪습니다.”<sup>8</sup>

형제 자매 여러분, 1848년 당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지자를  
따르기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팔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량함을 증거하며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이  
세상에서 평화와 행복을 얻으며,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Brigham Young, as quoted by Wilford Woodruff, in *The Utah Pioneers*(1880), 23.
2. Bryant S. Hinckley, *The Faith of Our Pioneer Fathers*(1956), 9~15쪽 참조; 또한 Gordon B. Hinckley, "Remarks at Pioneer Day Commemoration Concert", *Ensign*, 2001년 10월호, 70~72쪽 참조.
3. Hinckley, *The Faith of Our Pioneer Fathers*, 11~12쪽 참조; 또한 *Ensign*, 2001년 10월호, 71쪽 참조.
4. 교리와 성약 132:7.
5. 교리와 성약 1:19.
6. 아모스 3:7.
7. 교리와 성약 1:38.
8. Ezra Taft Benson, "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in *1980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1981), 29~30쪽.

#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가족에 대한 증거

복음으로 개종하는 일과 성전 성약을 영원한 관점을 통해 바라보면 우리의  
영원한 가족에 속하는 각 세대가 어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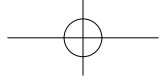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아들이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제  
아내는 아들과 동료 선교사들에게  
갓 구워낸 빵을 보내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아내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공 자매님, 보내  
주신 빵은 집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공 자매님,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어머니가 해 주신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이후로 제가 맛본 최고의 음식이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공 자매님, 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공 형제님과  
사이가 나빠지시면 저에게 오세요."

저희는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장로, 자매 선교사, 연로한 부부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처음 소개해  
준 그 특별한 선교사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개종하는 일과 성전  
성약을 영원한 관점을 통해 바라보면 우리의  
영원한 가족에 속하는 각 세대가 어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저희 공씨 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맨 처음 개종한 분은 제

어머니인 진 공이셨습니다. 십대 시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참됨을 아신 어머니는 침례와 확인을  
받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십니다. 어머니는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복음  
안에서 친구를 얻고 교회 부름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계속 양육  
되었습니다. 요즘 용어로 새로운 개종자,  
청년 독신 성인이라 불리는 분들과, 교회로  
다시 돌아온 회원들, 그밖에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동일한 성도가  
됨으로써<sup>1</sup>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게릿 드 중 이세 가족은 어머니를 인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마음과 영의 언어를 즐겨  
쓰시던 드 중 할아버지는 언어에 능통한  
분이셨는데, 어린 소년 시절에 할아버지께  
들은 이 말은 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붉은 색 블랙베리는 사실 열린 지 얼마  
안 된 새파란 거란다." 요즘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소형 전자기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블랙베리(스마트폰 상표 이름 중  
하나-울긴이) 휴대 전화만 쳐다볼 때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님은 마음이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제 부모님이신 윌터 공과 진 공은 세 번이나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을 모아 놓고 중국식 혼례를 올리셨고, 다음에는 친구들 앞에서 미국식 결혼을 하셨으며, 그리고 현재와 영원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노래책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 거야.”<sup>2</sup> 청소년들은 “성전 의식을 받[겠다고]”<sup>3</sup> 서약합니다.

최근에 저는 주님의 집에서 성약을 맺는 축복을 받기 위해 온 합당한 두 남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50년을 첫 번째 신혼 여행으로 삼고 50년이 지난 후에는 두 번째 신혼 여행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성전 거울 속에 비친 이 아름다운 부부를 보았습니다. 양쪽 편에 있는 거울을 모두 보았는데, 앞뒤로 반사된 모습을 통해 그 성전 거울에는 영원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을 들여다 보면 모든 사람이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sup>4</sup> 주며, 함께 사랑과 충실함을 키워 나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를 심어 주고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을 바라보며 저는 주후 837년(당나라 후기)에 남중국에서 태어난 시조 용 공과 그로부터 기록상 32대손이신 제 아버지께 이르는 공 일가 후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저희 가문에서 33대손입니다. 제 아들들과 그들의 사촌들은 34대손입니다. 제 손자는 기록상 35대손입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속에서 세대들의 시작과 끝은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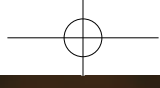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이어지는 세대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조 용 공까지 이르는 한쪽 방향으로는 아들이자 손자이며 증손자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 다른 방향으로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며 증조 할아버지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한쪽으로는 딸이자 손녀이며 증손녀인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이며 증조 할머니인 제 아내 수잔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속에서 저는 아내와 제가 부모님께는 자녀이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부모이며, 조부모님께는 손자손녀이고, 저희 손자손녀들에게는 조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필멸의 삶에 관한 위대한 교훈은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영원한 역할을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 영혼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경전에서 구주께서는 “아버지야 아들”<sup>5</sup>로 묘사됩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셨고 육체를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신 구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질병, 심지어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아십니다.<sup>6</sup> “만물 아래로 …… 내[려가셨]던”<sup>7</sup> 구주께서는 우리가 겪는 비탄과 슬픔을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sup>8</sup>

천국회의 이래로 우리 구주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 주신 이와 같은 모범에서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이 설명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sup>9</sup> 세상은 계몽된 이기주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sup>10</sup> 구주의 속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망, 분노, 슬픔, 불공평, 외로움, 비탄을 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양이신 구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면<sup>11</sup> 그분께서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sup>12</sup>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함[은]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합니다.]”<sup>13</sup>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다 주십니다. 지상에는 불완전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구속 계획[을] 완전[하게] 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시는]”<sup>14</sup>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속에 나타나는 모습의 경이로운 점은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신 진 공과 월터 공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었을 때(시조이신 용 공을 비롯한) 조상들이 인봉을 받고 후손들이 성약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뻗는 일은 결국 여러 세대를 축복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동요하고 있지만<sup>15</sup> 주님의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sup>16</sup>에는 신앙이 있을 뿐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저 또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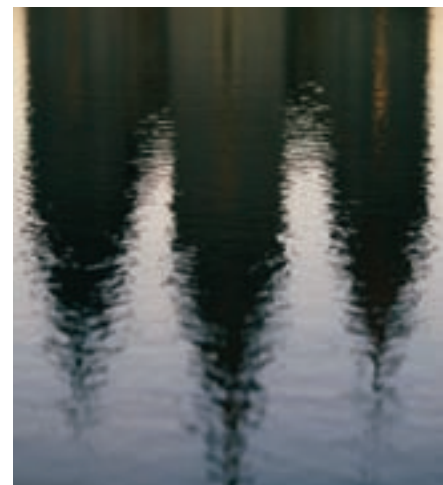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sup>17</sup>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겸손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 주[실]”<sup>18</sup> 것입니다. 물론 영원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을 보며,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본향에 도달한 우리 자신과, 신권 권세를 통해 사랑으로 인봉되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우리 가족 일가를 발견하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베소서 2:19 참조.
2.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3. “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하나님의 증인이 됩(소책자, 2009년), 3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5. 모사이아서 15:2 참조.
6. 엘마서 7:11~12 참조.
7. 교리와 성약 88:6; 또한 교리와 성약 122:5~8 참조.
8. 이사야 53:5.
9. 마태복음 10:39.
10. 엘마서 34:14 참조.
11.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12. 모사이아서 18:9.
13. 교리와 성약 121:44.
14.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15. 교리와 성약 45:26; 88:91 참조.
16. 교리와 성약 1:30.
17. 로마서 8:38~39.
18. 요한계시록 21:4.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결단코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분을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 주시는 신앙과 용기에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경이롭습니다만 또한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 주님께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돌아가려 노력하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시는 다음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sup>2</sup> “살피고 조심하라”<sup>3</sup>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sup>4</sup>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고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겪으신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구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sup>5</sup>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sup>6</sup>

##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갈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을 들으면 우리의 약점이 떠오릅니다. 삶은 영적 소풍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이 한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조용히 와 닿습니다. “나는 아니지요”<sup>7</sup>

우리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침례의 물에 들어섭니다. 구주께서는 “내게로 오[라]”<sup>8</sup>라고 손짓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응답합니다. 이 여정이 일시적인 영적 호기심에 불과하거나, 뛰어나지만 유한한 끝을 향한 것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sup>9</sup>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sup>10</sup>

우리가 구주를 따르는 동안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시련은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으로 다가가면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러한 경험들은 오히려 구주의 실재하심에 대한 더 깊은 깨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면 이 똑같은 경험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 결의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몇몇 사람들은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 어떻게 우리는 충실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주와 그분의 복음과 신권 의식에 충실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단코 그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신앙과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sup>11</sup>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 권능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게]”<sup>12</sup>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크나큰 변화입니다.<sup>13</sup>

우리는 마음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금세 깨닫게 됩니다. 두 단어로 된 위험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단어는 ‘상처와 부끄러움’입니다.

## 상처받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구주의 신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sup>14</sup>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sup>15</sup>

우리는 여러 형태로 상처를 받으며 상처는 끊임 없이 우리 마음에 머물 방법을 찾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은 늘 예상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며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교리적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150년 전 교회 연단에서 전해진 어떤 말씀에 대해 알고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자녀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 받지 못합니다. 백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상처는 저마다 매우 혹독합니다.<sup>16</sup>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에 대적은 우리가 맺은 영적 약속을 파괴하려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상처 입은 영은 따스하고 치유력이 있는 구주의 빛을 떠나서 과거에 지녔던 차갑고 어두운, 거만한 자아라는 껍질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835년에 팔리 피 프랫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그와 가족들이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팔리 …… 신경 쓰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하실 거예요.”<sup>17</sup>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30년에 유명한 의사인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곧바로 재능과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며 커틀랜드 성전을 짓기 위해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1837년,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계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받은 교회 지도자 자리를 박탈당했노라.”<sup>18</sup>

우리가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서 배우는 아름다운 교훈은 “그에게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 있었든 간에 그는 비통함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 주님과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강인한 성품을 지녔다”<sup>19</sup>는 것입니다. 1840년 봄, 윌리엄스는 연차 대회에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겸손하게 용서를 구했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는 그 문제를 검토했으며 스스럼 없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브라질 헤시오 성전 회장인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를 만났습니다. 윌리엄스 회장은 고조부께서 내린 결단 덕분에 가족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자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상처에는 부끄러움이라는 파괴적인 감정이 수반됩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리하이가 본 생명나무 시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현에는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 …… 나무의 열매[에 도달해 그 열매]를 먹[은]”<sup>20</sup> 고귀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니파이는 그 나무를 “하나님의 사랑”<sup>21</sup>이라고 설명했으며, 그 나무의 열매는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sup>22</sup>

열매를 맛본 후, 리하이는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는데] ……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저들은 열매[를] ……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었습니다.]”<sup>23</sup> 천사는 조롱과 멸시와 멸시하는 손가락질이 세상의 교만과 지혜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sup>24</sup>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sup>25</sup>





안타깝게도, 용기가 흔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롯한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sup>26</sup>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다릅니다. 멸시하는 손가락질이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여 불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sup>27</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sup>28</sup> 니파이가 말했듯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sup>29</sup> 바울이 권고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니] …… 그러므로 ……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sup>30</sup> 우리는 결단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과 동유럽을 여행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지닌 신앙과 용기에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신권 지도자는 침례 받고 겨우 6개월 뒤인 1994년 봄에 지부 회장단으로 부름 받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야 했고 그와 함께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라는 도시에 교회를 등록하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불안정했기에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을 밝히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신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게는 간증이 있었고 저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sup>31</sup> 그와 아내는 용기 있게 신앙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주어진 곳에는 많이 요구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많이 달라야 합니까?” “제 행동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순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일요일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sup>32</sup>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경뿐만 아니라 몰몬경을 통해 그분이 실재하신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알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권능을 받았고, 그분이 지상에 영화롭게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아직 이러한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기]”<sup>33</sup>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sup>34</sup>

저는 상처를 받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분을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sup>35</sup>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훗날 이해하게 될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주위 사람에게서 소외감을 느낄까요? 물론입니다.

몇몇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 화를 내고<sup>36</sup> 약한 자의 흔들리는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까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나 운명을 가로막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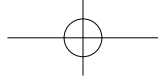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sup>37</sup>

이생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성약을 지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계속해서 자양분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sup>38</sup> 우리는 매일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여 영적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길을 알려 주는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는 성신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sup>39</sup>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sup>40</sup>

저 역시 그렇게 간증드립니다.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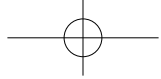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13:33.
2. 교리와 성약 46:8.
3. 교리와 성약 42:76.
4. 베드로후서 3:17.
5. 요한복음 6:66.
6. 요한복음 6:67.
7. 마태복음 26:22.
8. 제3니파이 9:14.
9. 마태복음 22:37.
10. 마가복음 8:34.
11. 마태복음 18:3; 또한 마가복음 10:15; 누가복음 18:17; 제3니파이 9:22; 11:37~38 참조.
12. 모사이야서 3:19.
13. 엘마서 5:14 참조.
14. 요한복음 6:61.
15. 마태복음 13:21.
1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9~92쪽 참조.
17. Joseph Smith,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118쪽.
18. In *History of the Church*, 3:46, 주석.
19. Frederick G. Williams, “Frederick Granger William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BYU Studies*, vol. 12, no. 3(1972): 261.
20. 니파이전서 8:24.
21. 니파이전서 11:25.

22. 니파이전서 8:12.
23. 니파이전서 8:26~27; 또한 33절 참조.
24. 니파이전서 11:35~36; 12:18~19 참조.
25. 니파이전서 8:33.
26. 니파이전서 8:28.
27.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실상 우리는 그 넓은 건물을 바라보기보다 그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로 텔레비전[과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리하이의 꿈에 우리 모습이 나옵니다”, *리아호나*, 2010년 8월호, 29쪽)
28. 이 말씀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리하이의 시현에서 크고 넓은 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사랑하며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을 나타냅니다.”(“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6쪽)
29. 니파이전서 8:33.
30. 디모테후서 1:7~8.
31. Alexander Davydov와 나는 개인적인 대화와 그가 2010년 7월 16일에 구두로 기록한 역사에서 발췌.
32. 요한복음 14:15.
33. 교리와 성약 82:3.
34. 모세서 3:17.
35. 니파이전서 19:9 참조.
36. 니파이후서 28:20 참조.
37.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38.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6쪽.
39. 요한복음 6:67.
40. 요한복음 6:68~69.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신앙과 성품

한결같은 의로운 삶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죄와 범법의 영향력을 영구히 막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낳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신앙에는 자신의 일상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낮추거나 늘어 놓는 한 사람의 삶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환희의 교향곡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구원에 대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와 가르침을 믿는 신앙,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 성품과 특성을 발굴해낼 수 있다고 믿는 신앙도 모두 그렇습니다. 진실로 구주를 믿는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창조의 토대가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저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믿는 신앙으로 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창조를 이룬 거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을 행사하여 우주 저 먼 곳에 여러 은하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원소로 알고 있는

퀴크 또한 조직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창조의 경이 속에 퀴크보다도 더 작은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앙이 발휘되는 모습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는 부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여 생활하면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부는 성장할 기회가 되도록 계획된 시험대에 오를 때 성신의 속삭임에 따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결실을 맺으며 굳건한 성품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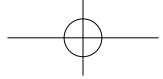
신앙과 성품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나오는 힘을 믿는 신앙은 견고한 성품을 담금질할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낼 강인한 정신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같은 성품은 큰 어려움이나 유혹이 닥치는 순간에 비로소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혹의 순간은 그런 성품을 발휘하게 되는 때입니다. 참된 원리에 따라 신앙을 행사한다면 성품이 자라나며, 성품이 굳건해지면 더 큰 신앙을 행사할 역량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인생의 시련을 극복할

능력과 자신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성품이 더욱 굳건해질수록 신앙의 힘을 행사하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성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강화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품이란 여러 가닥의 실로 천을 짜듯이 원리와 교리, 순종을 생활 속에서 끈기 있게 적용할 때 형성됩니다.

휴 비 브라운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영적 보화들이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그러한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앙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삶이라는 모험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가 바로 성품 형성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논리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추구할 이상을 마음에 품고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낳는 산물이기 때문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9년 10월, 105쪽) 조셉 스미스가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Lectures on Faith[1985], 72)라고 말했듯이, 행할 때 신앙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매일 한결같이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귀중한 징표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어떠한 물질보다도, 공부하여 얻은 어떠한 지식보다도 의로운 성품은 더 소중하며, 이뤄낸 업적이 훌륭하여 사람들에게서 큰 칭송을 받는다 해도 역시 의로운 성품이 더 소중합니다. 다음 삶에서는 여러분이 필멸의 삶이란 특권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가능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로운 성품이 평가될 것입니다.

사탄이나 다른 어떠한 세력도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성품을 파괴하거나 나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불순종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일지라도 기만이나 범법으로 서서히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에는 쓸모 없는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굳건한 도덕적 품성은 인생의 온갖 시련과 시험을 거치면서도 한결같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형성됩니다. 믿는 바를 신뢰할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며,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야 그 선택이 옳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신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자라나는 터전이 되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확신.
-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실제로 입증하는 삶.
- 성령의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감각.
- 그러한 속삭임을 용감하게 실행하는 것.
-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힘겹게 나아가도록 그냥 두시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응답이 조금씩 밖에 오지 않을 때 인내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이디서 12:6) 따라서 신앙을 시도할 때마다, 다시 말해 영이 주는 느낌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할 때마다 영으로부터 더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의 경계선을 넘어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설 때 신앙을 행사한다면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결코 얻지 못할 해결책들을 찾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굳건한 신앙을 발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 즉시 보상에 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분의 계획에 비취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이로우며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힘겹게 나아가도록 그냥 두시더라도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성품이 성장할 것입니다.

성품의 기반은 고결성입니다. 합당한 성품은 영의 지시를 인식하고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역량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은 신앙을 행사한다면 굳건한 성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성품이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놓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는 행복은 물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도 수많은 올바른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쌓이면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죄와 범법의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는 성품이 형성됩니다. 고결한 성품은 매우 귀한 청자처럼 원료를 엄선하여, 신앙으로 모양을 다듬고 한결같은 의로운 행위로 세밀하게 상감 문양을 새기고 유약을 발라, 마음을 고양하는 경험이란 가마에 넣어 불로 구워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고결한 성품은 몹시 아름답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법으로 한 순간에 훼손될 수 있으며, 새롭게 재건하려면 더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의로운 성품은 자기 절제를 통해 지켜질 때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자체로는 행복과 만족, 지상에서 성취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승영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삶에 방향을 제시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의로운 결정이란 낱실과 씨실로 짠 내면의 힘과 강한 신념으로 이뤄진 성품의 고귀함입니다. 한결같은 의로운 삶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죄와 범법의 영향력을 영구히 막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순종할 때 성품은 강화됩니다. 성품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살며 시험의 날 동안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바로 성품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얻는다는 원리는 모두가 이해하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영적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배운 진리를 부지런히 적용하여 값을 치르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닦이고, 역량이 성장함으로써, 여러분은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을 성취하여 자신을 입증하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삶 속에서, 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헐뜯고 깎아 내릴 때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성품이 결여된 사람은 압박을 받으면 욕구를 채우려 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걸치레라는 망토를 걸친다고 해서 나약한 성품이 순식간에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상황에 떠밀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실제로 심각한 범법을 저지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지켜 줄 진리의 쇠막대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알아채기 힘든 미묘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무수하게 받고 결국 계명에서 이탈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다는 또는 사회에서 더 보편적으로 통용된다는 또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그러한 선택들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때때로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일시적이지만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취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품을 시험하는 순간이 오면 무너져 버리며, 그와 함께 이미 이뤄 놓은 다른 것들도 사라져 버립니다. 범법자가 계명을 어긴 것을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언제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맙니다. 사탄이 앞장서서 그 일을 폭로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 앞잡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개개인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피해를 입히고자 굳게 작정했습니다. 불순종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행위 하나는 언제나 그러한 일이 또 없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약해집니다.

이 필멸의 삶은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살면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굳건한 성품이 형성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성품은 강화됩니다.

저는 신앙이나 기도, 사랑, 겸손 같은 개념을 감미롭게 속삭이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험하고, 그것들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성도 없을 것이며, 그 결과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경험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인생 초반에 저는 복음 가르침을 논리와 분석하는 힘을 통해 이지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지적 능력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르침에서 발휘되는 거대한 힘과

능력은 제 상상력과 역량의 한계 너머로 저를 이끌어 도약하게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은 제가 복음 가르침을 참을성 있게 쉬지 않고 실천함에 따라 성령이 그 의미를 제 가슴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여 펼쳐 주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심을 다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성품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지시를 인식하는 제 능력을 키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일을 행할 때, 인생에서 평화와 풍성한 성취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해와 모든 역량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복음 계획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면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간증은 가르침이나 의로운 행위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영적 느낌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흔히 그러한 인도를 받을 때에는 강렬한 감정이 수반되어 눈물이 흐르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증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간증이란 수없이 많은 올바른 결정에서 생겨난 날실과 씨실로 짜인 성품의 진수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적어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신앙을 통해 하게 됩니다. 간증이 굳건하면 평화와 위안과 확신이 깃듭니다. 간증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삶이 아름답고, 미래가 확고하며, 우리 길 앞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극복할 역량이 생길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간증은 기도와 경전 교리를 깊이 생각할 때 가슴에 서서히 스며드는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자라납니다. 약속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굳건한 확신에 닿을 내린 신앙을 발휘하며 그러한 진리대로 살아갈 때, 간증은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여러분의 간증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고 기꺼이 금식 헌금을 냄으로써 강해질 것이며, 주님은 그 때문에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강화되면 사탄은 더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의 온갖 유혹에 결코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사탄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이 끼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도록 허락된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탄의 최종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부활을 거치시면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악마는 결단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얻은 그 어떠한 축복도 앗아 가지 못합니다. 사탄은 의로운 결정들로 촘촘히 짜인 훌륭한 성품을 어찌지 못합니다. 사탄은 거룩한 성전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유대의 끈을 파괴할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사탄은 참된 신앙의 불길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간증을 빼앗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러한 것을 파괴할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십니다.
- 성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징표입니다.

- 굳건한 성품은 한결같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거두게 되는 결실입니다.
- 성품의 기반은 고결성입니다.
- 성품이 더욱 굳건해질수록 신앙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을 통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을 받거나 경전이나 선지자의 말씀 등과 같이 영감으로 주님께에서 받은 자료로부터 배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자질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의로운 성품에서 찾을 수 있는 귀중하고 비옥한 토양입니다. 겸손이란 토양 속에서 성장이라는 씨앗들이 발아합니다. 신앙을 행사하여 씨앗을 가꾸고, 회개로 가지치기를 하며, 순종과 선행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면 영적 인도라는 소중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영적 인도를 받게 되면 주님 뜻을 알게 하는 신성한 영감과,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뜻을 성취할 능력을 제공하는 권능이 따라올 것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심오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이러한 초석들을 놓으셨으며, 각 초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함께 작용하여 서로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적용한다면 성품에 힘이 더해져서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삶의 어려움을 행복이라는 디딤돌로 바꿀 능력이 자라날 것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취하는 힘을 습득할 수 있는 그분의 계획을 믿는 신앙.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범법을 저질러서 생긴 죄의 결과를 바로잡는 회개.
- 우리 삶에 힘과 방향을 제시하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이기적인 봉사.

의롭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삶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리의 쇠막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분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간다면 그로부터 성품과 절제력,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확신이 더욱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항상 성품을 강화하고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전임 선교사이든 회원이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곳에 모여 있습니다. 훌륭한 전임 선교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장로들과 선교부 회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앉아 주십시오.

가끔 우리는 왜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sup>1</sup>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재개된 여러 계명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은 신약 시대에 했던 대로 봉사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신 이후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선교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 개종하고 침례 받은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sup>2</sup> 사울은 이전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sup>3</sup> 사람이었으며 회원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후에 사울은 개종하여 바울, 즉 주님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열다섯 장에는 바울과 그 동반자들이 수행한 선교 사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 중 하나인 젊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sup>4</sup> 이 권고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전임 선교사들에게 적용되며, 동시에 모든 교회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임 선교사이든

### 뉴질랜드 오클랜드



회원이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 전임 선교사

전 세계에 약 5만 2천 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이 340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이며 주님의 헌신적인 종입니다. 선교사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뎌를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sup>5</sup> 것입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임 선교사들은 젊은 남성입니다. 일부는 자매 선교사와 연로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sup>6</sup>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디서든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에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을 받으며, 성전 의식을 받고,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 즉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sup>7</sup>은 각 선교사에게도 성스러운 일이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sup>8</sup>

오늘 아침에 열린 연차 대회 첫 번째 모임에서 사랑하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모든 청남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교회의 모든 가정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몬슨 회장님이 주신 현명한 권고에 저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저는 제 가족들을 통해 선교사가 누리는 축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은 자녀들과 손자손녀와 그 배우자들은 모두 49명이며, 이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들 각자가 지혜가 자라고, 판단력이 성숙해지며, 신앙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서 “[그들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sup>9</sup> 그분을 섬겼습니다. 선교 사업은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원 선교사

“믿는 자에게 분이 되[라]”라는 바울의 권고는 회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다수 회원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없거나 앞으로도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회원은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떠오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넓은 운동장에 “선교사만 출입 가능!”이란 팻말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회원 개개인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얼굴에 새[길]” 수 있습니다.<sup>10</sup>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sup>11</sup> 여러분의 눈에서 주님의 빛이 발할 수 있습니다.<sup>12</sup>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sup>13</sup>

온정 어린 마음으로 기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사람과 관련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여 언젠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sup>14</sup>

대답을 한 후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시오. 그 친구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환영한다는 사실을 많은 우리 친구들이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에 대해 더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권하셨습니다.<sup>15</sup> 함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자고 초대하거나 교회 사교 모임, 혹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면, 방문자들은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을 바로잡고 우리와 함께하며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매주 일요일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에게 우정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매일 생활하면서 친구의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십시오.

친구에게 몰몬경을 읽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은 소설이나 역사책이 아니라고 설명하십시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그 목적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sup>16</sup>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을 고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어 보라고 권유하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sup>17</sup>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치며, 이 후기에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고대에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sup>18</sup>

오래 전, 제 동료 중에 부인은 간호사이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남편은 의사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제 몰몬경을 빌려 주면서 읽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부부는 “정말 고맙네요.” 하고 말하며 몰몬경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니요, 무슨 뜻이죠? 이 책을 읽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책을 안 읽으셨죠? 다시 가져가서 읽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들은 책장만 들춰 보았다고 인정하면서 저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책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참되다는 걸 알아요! 더 알고 싶군요.” 그들은 더 공부했고, 저는 기쁘게도 그 두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집에서 전임 선교사들을 만나도록 친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서 계속 확신을 얻으며 구원과 승영을 향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무릇 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sup>19</sup>

경전에는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많음이니라”<sup>20</su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아닙니까? 그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인터넷 시대인 지금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mormon.org 웹사이트에 친구와 이웃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여러분의 사이트를 mormon.org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개인 프로필, 즉 소개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에는 믿음에 대한 표현, 경험, 간증이 포함됩니다. 이 기능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대부분의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개인 소개글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개글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잭이라는 대학 신입생은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에서 텔레비전으로 mormon.org 광고를 보았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와 본 책은 교회 회원들의 개인 글들을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어디로 가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책은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교회에 갔으며, 와드 회원들을 만나고 세 시간 동안 모든 모임에 즐겁게 참석했습니다. 이후에는 교회 회원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고, 첫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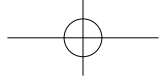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두 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잭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sup>21</sup>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효과적인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과 전임 선교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소중한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는 약속에 나오는, 집합을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부분입니다.<sup>22</sup> 주님은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몰몬경은 참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했으며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8:19~20.
2. 사도행전 9:1~18 참조.
3. 사도행전 9:1.
4. 디모데전서 4:12.
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사 지도서(2004년), 1쪽.
6. 교리와 성약 14:7 참조.
7. 모세서 1:39 참조.
8. 누가복음 10:2.
9. 교리와 성약 4:2.
10. 엘마서 5:19.
11. 마태복음 5:16; 엘마서 7:24 참조.
12. 교리와 성약 88:11 참조.
13. 베드로전서 3:15.
14. 니파이후서 31:2, 21 참조.
15. 요한복음 1:39 참조. 이 형태는 요한계시록 6:1, 3, 5, 7에도 나옴.
16. 몰몬경, 표제지.
17. 몰몬경, 소개.
18. 제3니파이 21:1~7. 이 일곱 개 구절이 한 문장을 구성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19. 교리와 성약 29:7.
20. 교리와 성약 123:12.
21.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 선교부의 윌리엄 지 우즈 회장에게서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
22. 말라기 4:5; 제3니파이 25:5; 교리와 성약 2:1; 110:14~16; 128:17; 138:46; 조셉 스미스 역사 1:38 참조.



패트릭 키아론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낮게 하리라”

구주께서는 평강의 왕이며, 위대한 치유자, 그리고 죄가 쓰는 침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저는 홀로 되었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마음에 평화를 잃었거나,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들과 함께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발 아래에서 완전한 치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일곱 살 소년 시절에 저는 부모님께서 항상 신발을 신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사막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 그 중에서도 뱀, 전갈, 가시와 같은 위험에서 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막에서 야영을 한 다음날 아침, 저는 탐험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찮게 신발을 신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야영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잠시 산책을 나가는 것뿐이라고 합리화하며 신발 대신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도 신발 중 하나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샌들을 신고 차가운 모래 위를 걸던 저는 가시 같은 것이 발바닥 안쪽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려다보니 그것은 가시가 아니고 전갈이었습니다. 전갈임을 알아차렸을 때 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침에 쓰인 아픔이 발에서 다리 위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리 윗부분을 움켜쥐고 타는 듯한 고통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도와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야영장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삼으로 전갈을 내려치시는 동안 저희와 함께 야영하던 친구분이 용감하게 나서서 제 발에서 독을 빨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두 시간 이상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리 전체에 퍼진 고통은 끔찍했으며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병원내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전갈은 유아나 심각하게 영양이 결핍된 사람이 아니면 침에 쏘여도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취를 하여 다리를 무감각하게 만든 뒤에 모든 고통을 없애 주셨습니다. 스물네 시간이 채 안 되어 저는 전갈의 침이 미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께서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실 때 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샌들이 신발만큼 발을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 만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사막에서 저는 제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거듭 가르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게으르고 다소 반항적으로 행동하여,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용감한 청년, 아버지, 교사, 지도자, 친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고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옳다고 아는 내용을 게으름이나 반항심으로 무시하면 항상 바람직하지 못하고 영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소년 시절에, 그리고 성인이 되어 얻은 경험들에서 배웠습니다. 전갈은 제 생명을 끝까지 위협하지는 못했지만 저와 부모님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게으르거나 거역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자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자신이 지키기로 성약을 맺은 계명과 표준이 무엇인지 압니다.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에게서 배우고 성신으로 마음속에 확신을 얻은 길,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그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일은 신발 대신 샌들을 신고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게으르고 반항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다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별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쇠막대에서 잠시 벗어났다 해서 그렇게 해로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 한 일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규칙에서 예외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어긴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때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에 나오는 “정확하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마음 한편을 돌이켜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침에 쏘이고 맙니다.

경전에서는 “주는 진심[을] …… 요구하[신다]”<sup>2</sup>라고 가르치며, 우리는 “온 마음”<sup>3</sup>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고]”<sup>4</sup>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은 형제를 대적하여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기로 서약하며 전쟁무기를 버리고 땅 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sup>5</sup> 왜냐하면 “그들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려 …… 싸우지 아니하였[기]”<sup>5</sup>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깊이 개심해서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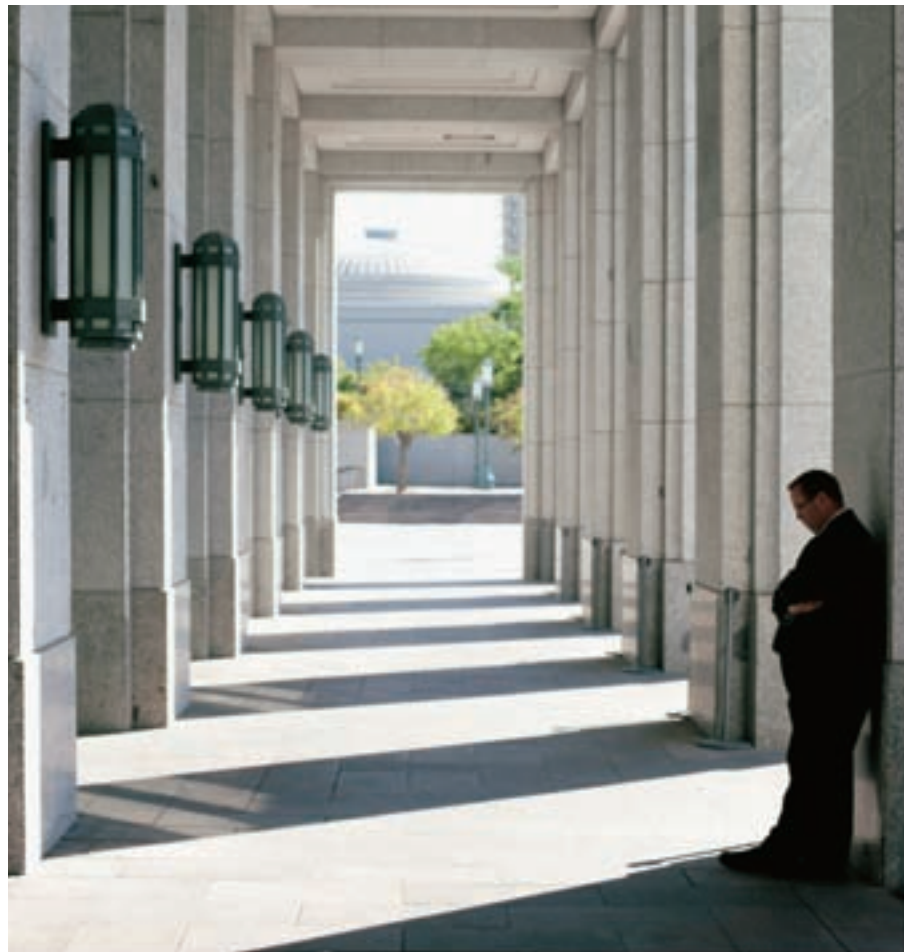
하지만 그들이 개심하기 전 상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경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드러내어 거역하는”<sup>7</sup>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게 나아가[서]”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sup>8</sup>로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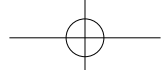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들은 주님께 치유와 평화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해졌으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목을 뻗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돌이키게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낮게 하리라.”<sup>9</sup>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낮게 하[리라]”<sup>10</sup>

기적과 같은 이런 치유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면] ……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며]” 우리는 홀로 남겨져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게”<sup>11</sup>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의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아갈 때에만 치유와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우리 각자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압니다.) 죄와 자만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얻으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를 멈추고, 온 마음을 그분께 바치며, 뒤에 아무것도 남겨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쓰는 독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sup>12</sup>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더 이상 순종을 성가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건축에 쓰이는 돌이 됩니다. ……

“…… 순종은 참된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계시된 진리에 순종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집니다.”<sup>13</sup>

지난 주에 저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여러 주요 전투에 참여한 92세 퇴신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 차례 부상을 입고도 살아 남았는데, 그 중 한번은 지프차를 타고 가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입은 부상이었습니다. 그 폭발로 지프차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분은 *지뢰밭에서 살아남으려면 앞서 가는 차량이 가는 길을 정확히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치명적일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사도, 지도자와 부모님들은 영혼에 파괴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계속 알려 줍니다. 그분들은 지뢰가(또는 전갈이) 안전하게 제거된 길을 아시며,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끊임없이 권고하십니다. 그 길에서 유인해내는 파괴적인 뜻이 매우 많습니다. 마약이나 술, 외설물 또는 인터넷이나 비디오 게임에서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빠져 들면 곧장 폭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태함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반항심 때문이든, 일단 우리가 앞에 놓인 안전한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탈하게 되면, 이는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길에서 벗어났다 해도 변화하고, 되돌아가서 기쁨과 내적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뢰가 제거된 길로 돌아갈 때 크나큰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뢰밭에서는 아무도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평강의 왕이며,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쓰는 침과 교만에서 퍼지는 독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반항하는 마음을 개심하고 성약을 지키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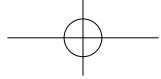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속죄는 무한하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풀며 권고하신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됩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sup>14</sup>

여러분 중에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하고, 돌아오며,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와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뒤표지 안쪽.
2. 교리와 성약 64:34.
3. 교리와 성약 4:2; 59:5.
4. 교리와 성약 4:2.
5. 앨머서 23:7.
6. 앨머서 23:6.
7. 모사이야서 2:37; 앨머서 3:18; 또한 물몬서 2:15 참조.
8. 앨머서 41:11.
9. 교리와 성약 112:13.
10. 제3니파이 18:32.
11. 교리와 성약 121:37, 38.
12. 요한복음 3:17.
13. 제임스 이 파우스트, “순종: 자유에 이르는 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55, 53쪽.
14. 제3니파이 17:7.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칠십인

# 주님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가 실재하며, 그 속죄 권능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이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가족이 평소와 같이 경전을 읽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자, 아버지는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족 중 몇몇이 마치 못해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기도를 하고 경전 읽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한 아이가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방에 가서 경전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주저하는 듯이 방으로 가더니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와 자리에 앉은 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모든 의의 원수가 경전 읽기를 못하게 문제를 야기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서 지금 이 경전 읽기를 해야 한단다.” 그러나 딸이 “저는 정말 지금 경전을 읽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꾸하자 아버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서는 늘 경전을 읽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치자 딸은 상처를 받아 경전을 들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렇게 가족 경전 공부는 끝이 났으며 집안의 조화와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자녀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딸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알았기에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집안에서 사랑과 조화를 다시 느끼고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계속해서 가정에 주님의 영이 다시 함께하도록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다시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는 진실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여러 차례 부드럽게 노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딸은 침대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곁에 무릎을 꿇고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단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렴.”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안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네 마음이 상하는 걸 원치 않는단다.” 하고 재차 말하자 딸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은 경전을 손에 들더니 몇몇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여리고 섬세한 손이 경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찾고 있던 구절에 이르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하지 아니하는 한,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딸의 침대 곁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이 구절은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거야. .... 딸이 나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하고 생각하자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런 후 딸은 눈을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 정말 죄송해요, 아빠.”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딸이 그 구절을 아버지에게 적용하라는 뜻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읽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팔을 벌려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부터 온 화해가 감미롭게 이루어진 그 순간, 사랑과 조화가 회복되었습니다. 딸이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며 기억해 둔 그 경전 구절이 성신의 불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성스러운 면에서 성전에 비견될 수 있는 곳은 가정 밖에 없습니다.”<sup>2</sup> 우리 가정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그의] 교만, [그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가 이렇게 할 때]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sup>3</sup>입니다.

아론 신권 혹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다음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sup>4</sup>

이런 그리스도 같은 성품으로 생활하고자 한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는 다툼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너희도 너희의 범법을 서로 용서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 이웃이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그 이웃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였음이니라.”<sup>5</sup> “죄송해요 …… 정말 죄송해요, 아빠.”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순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주님 뜻과 권능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기질이 온화하며, 부드럽고, 순하며, 쉽사리 화나 짜증을 내지 않고, 복종하며, 부상 중에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삼가며, 온순하고, 유순하며,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sup>7</sup>라고 가르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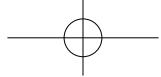
“미안하구나. 내 잘못을 용서해 주렴.”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불평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악을 이기는 품성을 가질 것”과 “다치거나 상처를 입어 고통스러울 때도 침착해야 한다”<sup>8</sup>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이 상하는 걸 원치 않는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도움을 청한 그 아버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의 팔로 딸을 감싸 안은 것처럼 우리가 참되게 회개한다면 주님 또한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가 실재하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쓸 때



그 속죄 권능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이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sup>9</sup>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이시며,<sup>10</sup>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sup>11</sup>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야서 3:19.
2. 경전 안내서, “성전”.
3. 교리와 성약 121:37.
4. 교리와 성약 121:41~42.
5. 모사야서 26:31.
6. 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9th ed.(1996), “meek.”
7. Noah Webster's First Edition, “humble.”
8. Noah Webster's First Edition, “patient.”
9. 요한복음 1:29.
10. 사도행전 3:14 참조.
11. 이사야서 9: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교만과 신권

교만은 신권 권능을 꺼 버리는 스위치입니다. 겸손은 이를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을 위해 전 세계에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모인 모습을 통해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89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만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시대를 초월한 권고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교만이라는 주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심했다는 점을 말씀 서두에서 언급하셨습니다.<sup>1</sup>

지난 몇 달 동안 저도 이와 비슷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속삭임은 벤슨 회장님이 21년 전에 전하신 이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라고 제게 촉구했습니다.

모든 필멸의 존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교만이란 죄와 관련된 경험을 합니다. 아무도 이를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교만에 대해 말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주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네요.”

### 교만의 다른 의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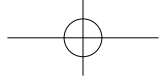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벤슨 회장님께 영향력 있는 말씀을 들은 직후에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후유증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동안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나 자기 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하거나 자기 직장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었습니다. 자랑, 자부심, 교만을 의미하는 “pride”라는 말은 우리 어휘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경전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의 안에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한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소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sup>2</sup>

엘마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다는]”<sup>3</sup> 생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회원들의 충실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sup>4</sup> 위대한 선교사 암몬은 자신과 형제들이 선교사로서 거둔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sup>5</sup>

저는 어떤 일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과 교만해지는 것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이들과 손자손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교회 청소년들이 자랑스러우며 그들의 선함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실한 형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죄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과 벤슨 회장님이 “보편적인 죄”라고 부르신 교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벤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에서 증오와 적대심이 생겨나며,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등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보통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멋진지 보라.”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에, 기본적으로 교만은 비교에서 오는 죄입니다. 교만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큰 계명 두 가지를 어기기 때문입니다.<sup>7</sup>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우리가 실제로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속에 비치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중죄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레미움프툼, 즉 시기심, 탐욕, 허영을 정당화시키는 거룩한 단입니다.<sup>8</sup> 어떤 면에서 교만은 원죄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권세를 지닌”<sup>9</sup>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루시퍼와 같이 능력 있고 유망한 자가 타락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 영혼을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치명적인 암과 같습니다. 교만 죄는 인간의 다른 약점들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사실 다른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성취, 재능, 부, 또는 지위에 열중합니다. 그들은 이런 축복을 자신이 “선택된”, “더 뛰어난”, 또는 “더 의로운” 증거로 삼습니다. 교만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나서 다행이야.” 라는 죄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부러움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능이나 재물을 가진 이들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릇되고 비열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 부러운 대상이 넘어지고 고통을 받으면 그들은 은밀하게 이를 기뻐합니다.

### 운동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예

아마도 이 교만의 예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운동 경기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운동 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에 있어야 할 예의와 정신이 사라진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상대 팀과 팬들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편협해지고 증오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저는 운동 경기 팬들이 경쟁 팀을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결점이라도 찾으면 이를 부풀렸습니다. 이런

증오심을 스스로는 일반화하고 정당화하며, 상대 팀과 관련된 이들이면 누구든 증오했습니다. 상대 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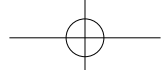
형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와 행위가 정치, 인종, 종교에 관한 공적 대화에서도 너무 자주 목격됩니다.

친애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친절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하는 동료 제자 여러분, 우리의 표준을 더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같은 팀으로서 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팀은 인류에 대한 형제에 팀입니다. 이 필멸의 삶이 바로 경기장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동료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바로 세우고, 고양시키며, 올바르게 대하고, 격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고 나서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의 여러 선임 사도들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을 한 스테이크 대회로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는 차 안에서 제 부름에 관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총관리 역원을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는지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원들은 자네에게 정말 친절할걸세. 자네가 얼마나 훌륭한지도 이야기하고 말아야.” 그리고 그분은 조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이터, 그런 말들에 감사하게.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약이 되어야지, 독이 되게





하지는 말게.”

형제 여러분, 이 말은 부름이나 상황에 관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 부, 재물, 지위 등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지위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지위나 권위, 평판에 집중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의식하는 허황된 삶을 살며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교만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경전에는 교만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sup>10</sup>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sup>11</sup> 볼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sup>12</sup>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sup>13</sup>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sup>14</sup> 않도록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곧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신권을 받은 것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매를 걷어 붙이고 일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대비해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작지만 의로움으로 신권 권능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노력을 통해 크고 기이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sup>15</sup>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일”<sup>16</sup> 알아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에 대해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모든 텍목에서 그러하듯이 교만을 피하는 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루시퍼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변경하여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 했지만 구주께서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sup>17</sup>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sup>18</sup>이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능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9</sup>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는 의미입니다.<sup>20</sup>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신권 권능을 꺼 버리는 스위치입니다.<sup>21</sup> 겸손은 이를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 겸손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렇다면 널리 행해지며 큰 피해를 입히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교만으로 자고해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한] ……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습니다.]”<sup>22</sup>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렌즈로 주위 세상을 본다면 겸손이 무엇인지 이해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이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겸손은 자신을 쓸모 없고, 무의미하며,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부정하거나 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함으로써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행할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갖습니다. 교만은 그 반대로 작용합니다. 교만은 이기심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봉사하며 자신을 잊는 순간, 교만은 줄어들고 결국은 소멸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염려해야 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방법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비행사 기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펜이 하나 있었습니다. 펜 자루를 살짝 돌리면 네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는 펜이었습니다. 그 펜은 제가 파란색 대신에 빨간색을 사용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다. 펜은 제게 “저는 밤 열 시가 지나거나 안개가 짙게 깔리거나 고도가 너무 높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은 “일상 업무 말고 중요한 서류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다. 그 펜은 아주 든직해서 저는 일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항상 그 펜을 썼습다. 그 펜은 항상 쓰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우리 마음이 올바르다면 주어진 일이 우리 능력에 맞지 않는 하찮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무가 주어질 때 어디서든 기쁘게 일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21년 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전하신 영감에 찬 메시지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만은 시운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그릇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sup>23</sup>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해야 합니다. ……<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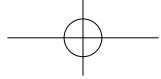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을 취하실 것입니다. ……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다.’ ……<sup>25</sup>

겸손해지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sup>26</sup>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인간의 칭찬과 영예를 구하기보다 봉사하는 손길을 내밅시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불의한 교만을 인식하고, 이를 몰아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sup>27</sup>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에즈라 태프트 벤슨,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쪽 참조.
2. 제3니파이 11:7.
3. 앨마서 29:9.
4. 데살로니가후서 1:4 참조.
5. 앨마서 26장 참조.
6.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6쪽.
7. 마태복음 22:36~40 참조.
8. 앨마서 31:21 참조.
9. 교리와 성약 76:25.
10. 잠언 13:10.
11. 베드로전서 5:5.
12. 모로나이서 7:44.
13. 고린도전서 1:27.
14. 교리와 성약 1:19.
15. 모세서 1:10.
16. 마태복음 19:26.
17. 모세서 4:1~2 참조.
18. 교리와 성약 107:3.
19. 요한복음 8:28~29 참조.
20. 요한복음 17:4 참조.
21. 교리와 성약 121:34~37 참조.
22. 교리와 성약 12:8.
23. 앨마서 6:2~4; 마태복음 23:25~26 참조.
24. 모사이야서 3:19; 또한 앨마서 13:28 참조.
25. 앨마서 32:16.
26.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6~7쪽.
27. 디모테전서 6:1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영을 동반하여 봉사하십시오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합시다.

**하** 나님의 신권을 소유하는 영광을 받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성한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과, 우리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부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했던 신권 소유자 두 분을 성스럽게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미국에서 회복된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 조상 두 분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던 저희 조상 중 한 분은 어린 소녀로, 스위스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어린 소년이자 고아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살았습니다.

두 분은 모두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하는 어느 신권 소유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녀는 스위스에 있는 작은 집 벽난로 가에서 들었고, 소년은 미국에서 임대 집회장 난간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영을 통해 알았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후, 미국 서부 산맥을 향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다가 먼지 자욱한 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기적과 같은 축복, 즉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을 찾아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은 그 종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됨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성신의 영향력 아래 말씀할 때 영이 증거해 준 덕택에 그들은 신권 권능으로 영원히 인봉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 소녀의 후손 수만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희 후손들은 스위스 언덕에 올라서,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여 말씀한 그 두 신권 소유자의 이름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행복한 이야기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수백만 가지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거듭 일어나고 있으며 수 세대에 걸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심어 준 한 어린 가정 복음 교사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비극을 겪고 헤어지기 힘들어 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축복사에게서 받은 위안과 축복으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는 신권 소유자가 봉사하고 축복하는 능력은 성신의 권능으로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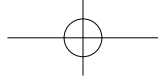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따라서 오늘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부르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봉사하는 능력은 서서히, 또는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조금씩 증대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밤, 저는 신권 봉사를 할 때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 봉사하는 능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줄 신권 봉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으면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신을 동반하려면, 즉 성신의 은사가 우리 생활과 봉사에 임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영적인 은사를 키웁니다. 여기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회복된 교회 회원들이 성찬식 때마다 맺는 다음 약속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으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하도록 하시옵소서.”<sup>1</sup>

영과 함께하려면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부활하신 구주의 제자들은 그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구주께서 떠나시려는 찰나에 그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저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sup>2</sup> 그들은 여러분처럼 침례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런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성신과 불로 충만해졌습니다.

구주께서는 친히 택한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신앙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신을 받았기에 그에 대해 소리 내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축복이 내려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sup>3</sup>

구주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는 봉사하는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신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우리가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연구하며, 깊이 생각함으로써 영적 은사를 불러오는 겸손함과 신앙을 키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경전 몇 줄 또는 몇 쪽만 읽고서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유형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경전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한 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교리와 성약 138편에 나옵니다. 회장님은 구주의 메시지를 들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여러 경전 구절을 읽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시가 온 경위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sup>4</sup>

회개하고 기도하고 경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신권 봉사에서 영의 은사를 받기에 합당해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신에게서 도움을 받아 부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신앙으로 응한다면 봉사하는 능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부름에 대한 존엄성을 …… 키우고 …… 부름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하늘 빛이 부름을 통해 다른 사람 눈에 비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 부름에 관한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sup>5</sup>

저는 우리 모두가 행하도록 부름 받은 두 가지 봉사를 제안하겠습니다. 영의 영향력을 받아 그 두 가지 봉사를 수행할 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봉사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증대되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봉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어리고 경험이 적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까지 이 부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아론 신권 제자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 설명하신 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할 권세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sup>6</sup>

이번 주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한 집사가 소속 정원회 회장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원회 회원 한 명을 모임에 초대하라는 부탁을 받을 것입니다. 열세 살 짜리



회장이 초대하라는 임무를 준 그 소년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조하러 가라는 임무를 받은 집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 부름을 받는 집사에게 저는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영이 두려움을 잠재워 줄 것입니다. 둘째, 그 회원 집에 도착할 때, 그리고 교회로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두서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꼭 필요한 순간에 주어졌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셋째, 정원회 회장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결과에 관계 없이 여러분을 흡족히 여기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응답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대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집사는 여러분이 왔다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한 소년, 이제는 장성한 한 남성을 압니다. 그는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방문을 받은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20년 전 일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방문한 집사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초대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은 그 집사를 찾아 고마움을 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손자 인생에 단 하루에 불과했지만 할아버지와 더불어 주님께서, 그 집사가 영감 받아 한 말과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모임에서 주님 이름으로 말씀하도록 요청 받은 젊은 분들과 나이 든 모든 분에게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부적당하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유창한 표현을

쓰거나 심오한 통찰력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간증이면 충분합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내용을 전해 줄 것이며, 하나님께 진리를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들 마음에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을 대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영으로부터 우리 힘을 훨씬 뛰어넘는 도움을 받아 자신이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부름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신권 봉사에 임할 때 우리는 영의 영향력을 통해 봉사하는 능력이 증대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얼굴에서 고통과 근심을 읽어내는 능력이 증대되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 이름이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감독은 밤 동안, 그리고 단상에 앉아 와드 회원들을 바라보거나 그곳에 없는 사람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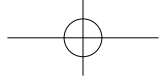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생각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병원이나 양로원 근처에 있음을 깨달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형제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모를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에서 병원 침상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내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시에 스펀서 더블류 김블 회장님이 병실로 들어오셔서 침대를 두고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데 능숙하신 분에게서 보고 들을 기회가 왔구나.’

김블 회장은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신 뒤 아버지께 신권 축복을 받았느냐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을 통역하고 있다.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선지자께서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위안을 주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보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로에게 조용히 웃어 보이기만 하시는 두 분을 오분 십분 정도 바라보는데, 김볼 회장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이제 그만 쉴 수 있게 가보겠네.”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배움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셔도 좋을 만큼 회복하신 뒤에 함께 이야기하다가 김볼 회장님 방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문하러 온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도 김볼 회장님께서 오셨을 때 영이 가장 고취되었단다.”

김볼 회장님은 위안을 주기 위해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김볼 회장님은 위안을 주기 위해 주님의 영을 동반하셨습니다. 지금에서야 저는 몬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다음 교훈을 김볼 회장님께서 실천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 부름에 관한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으로 복음을 가르치라고 부름 받았든, 성신과 함께 연합한 무릎과 처진 손에게 가라고 부름 받았든,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권 봉사는 강화되고,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 빛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 빛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영향력을 받아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아 주는 축복이 임합니다.

조지 큐 캐논 회장은 여러 해 동안 신권 봉사를 하시면서 엄청난 슬픔과 반대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에 열심히 봉사하는 동안 성신을 동반자로 삼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제가 인용할 말씀은 그분께서 신권 봉사를 하는 우리와 교회와 가족들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저는 영을 느끼면서 신권 봉사를 했을 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암흑으로 가득 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쁨과 화평과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영은 행복과 기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신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성신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빛과 계시를 누리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sup>7</sup>

충실하게 신권 봉사에 임하는 중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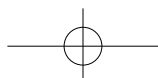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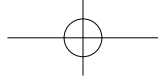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우리가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는 동안 받게 될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20:77.
2. 제3니파이 19:9.
3. 제3니파이 19:21.
4. 교리와 성약 138:11.
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58쪽.
6. 교리와 성약 20:58~59.
7. George Q. Cannon, in Brian H. Stuy, comp., *Collected Discourses Delivered by President Wilford Woodruff, His Two Counselors, the Twelve Apostles, and Others*, 5 vols. (1987~1992), 4:137.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2010년 10월

##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웬튼 페리



러셀 웬 넬슨



달린 에이치 옉스



엠 러셀 뱀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암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퀸틴 험 쿝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널 험 앤더슨

## 철심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레스먼드



클라크 G. 앨 험  
코스타



스티븐 이 스노우



왈터 에프 뮌첸레스



엠 험트니 클레이튼



제이 이 쟈슨



에드워드 험 홀름스톤





### 최신판인 제이 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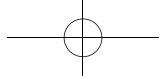


### 최신판인 제일 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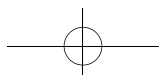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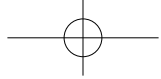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 감리 감독단





후기 성도들이 교회 제180차 반연차 대회를 위해 모였다. 사진에 나오는 이들은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라질 상파울루,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르헨티나 포르모사,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스웨덴 스톡홀름, 아일랜드 더블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우리 모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지상에 왔습니다.

**사** 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오늘밤 여러분과 나누어야 한다고 느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저는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중에도 이런저런 선택을 하지 않고 한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하고 어떤 선택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선택은 영원한 측면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떤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선택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것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선택할 권리, 둘째, 선택에 대한 책임, 셋째, 선택에 따른 결과. 이것을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라 부르겠습니다.

먼저 선택할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의지, 즉 선택할 권리라는 은사를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교회 제9대 회장인 데이비드 오 벡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를 부여하신 것 다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그

생명을 인도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에게 선택의지가 있었고, 루시퍼가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선택의지라는 원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않았고, 또한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따를 경우, 어느 누구도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큰 동정심이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구주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선택한 우리는 험난하고 힘든 여행을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단절되어 세상의 길을 걷고 죄를 지으며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의 자녀들 가운데 장자께서는 모든 사람이 짓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겠다고 자청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위대한 구속주,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되셨으며, 우리가 아버지께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sup>2</sup>

형제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상황 내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할 권리에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중립에 설 수 없으며 중간 입장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아시며, 또한 루시퍼도 이 점을 압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한,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은 우리 영혼을 취하겠다는 욕망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인도 받을 방법을 마련하신 후에 우리를 영원한 여행에 보내셨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속삭이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바다를 이미 성공적으로 항해한 선원들이 기록한 성스러운 경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지상에 왔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sup>3</sup>

우리는 대적이 전하는 온갖 감언이설에 둘러싸여 있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말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딱 이번 한 번이니까 괜찮아”,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담배든, 술이든, 마약이든,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다들 하는 건데 뭘. 나쁠 거 없잖아.”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길이 갈라지고





굽어지는 곳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에서 우회로를 선택하는 여유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교활한 피리 부는 사나이인 루시퍼는 경쾌한 선율을 연주하여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선택한 안전한 길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즉, 사랑하는 부모의 조언과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는 소위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노립니다. 다윗 왕은 루시퍼의 유혹에 귀 기울였고 흔들렸으며 그를 따라가 타락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가인도 그랬고 훗날 가룻 유다도 그랬습니다. 루시퍼가 사용하는 방법은 교활하며 그 피해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니파이후서에는 루시퍼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sup>4</sup> “다른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 그의 끈적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니”<sup>5</sup> “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sup>6</sup>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순간적인 쾌락에 약속하는 말에 넘어갑니까? 충동과 열망을 좇습니까? 또래 압력에 굴복합니까?

루이스 캐롤이 쓴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앨리스처럼 우유부단하지 맙시다. 앨리스가 엇갈림 길에 도착해서 두 갈래 길을 맞닥뜨린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길 모두 앞으로 뻗어 있었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였습니다. 앨리스는 체셔 고양이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고양이는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느냐에 달렸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면 어느 길을 고르든 상관 없어.”

앨리스와는 달리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압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길을 선택하면 목적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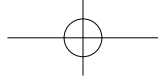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우리는 계속 결정해야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와 “예”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우리 목표,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것을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 곧고 옳은 길에는 다른 목표들도 있습니다. 선교 사업, 성전 결혼, 교회 활동, 경전 공부, 기도, 성전 사업 같은 일들 말입니다. 인생 여정을 걸으며 성취해야 할 가치 있는 목표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결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어떤 결과는 영원한 구원과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떤 결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녹색 셔츠를 입든 파란색 셔츠를 입든, 그것은 지나간 여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외설물로 들어가는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곧고 안전한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라고 부추길 때 그에 굴복한다면 여러분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열두 살짜리 집사든 성숙한 대제사든,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과 마음과 결심을 영원한 목표에 고정합시다. 그 목표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한 어떠한 유혹과 압력과 핍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 이외에는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러한 진리를 자신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검 형제가 그릇된 길을 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브리검 형제 이외에 책망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지상과 지옥에 책망 받을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후기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sup>7</sup>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sup>8</sup>

우리는 모두 그릇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아직 바로잡지 않았다면, 바로잡을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을 회개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십시오. 구주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된 은사를 받게 하시고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은 참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sup>9</sup>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sup>10</sup> 영생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빨리 돌이킬수록 용서받는 기적과 달콤한 평안과 기쁨을 더 빨리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생득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는 영예로운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의롭게 생활하고, 현명한 선택을 거듭하며,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목적에 전념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모든 목표와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보상을 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전은 이 점을 명확히 밝혀 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sup>11</sup>

말씀을 마치며, 인생 초반에 목표를 정한 어느 한 사람이 보인 모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교회 회원이자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인 클레이튼 엠 크리스텐슨 형제님입니다.

열여섯 살 때 크리스텐슨 형제님은 다른 것과 더불어 일요일에는 운동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년 후, 형제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농구 팀에서 센터(중앙에서 뛰는 선수-윙기)로 활약했습니다. 형제님이 소속된 농구팀은 그 해 시즌에서 무패행진을 했고, 미국대학농구 선수권대회와 비슷한 영국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들은 대회 내내 승승장구했고 준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때 마침 크리스텐슨 형제님은 경기일정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결승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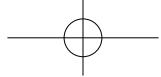
일요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형제님과 팀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형제님은 선발 선수였습니다. 크리스텐슨 형제님은 코치에게 가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냉정했고 형제님에게 결승전에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결승전에 앞서 준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형제님을 대신할 후보 선수의 어깨가 탈골되는 바람에 크리스텐슨 형제님은 결승전에 대해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호텔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번 한 번만 일요일에 운동 경기를 해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 형제님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물어볼 필요도 없잖나?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형제님은 코치에게 가서 결승전에서 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님은 자신의 팀이 경기를 펼치는 동안 그 지역 와드에서 열리는 일요일 모임에 갔습니다. 형제님은 우승을 위해 기도했고, 형제님의 농구팀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형제님은 그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삼십 년도 더 전에 내렸습니다. 크리스텐슨 형제님은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니 그 일이 자신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무척 쉬웠을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한 계명이야. 하지만 나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번 한 번만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나 형제님은 지나고 나서 보니 평생 예외인 경우는 끝없이 계속되었으며, 그때 딱 한 번 선을 넘었더라면 이후에는 아주 절실하고 중대한 일이 일어나서 훨씬 쉽게 그 선을 넘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계명을 100퍼센트 지키는 일이 98퍼센트 지키는 일보다 쉽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sup>12</sup>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선택할 권리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선택에 따른 결과를 늘 인식합시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로 단합하여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 받기에 합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부름에 응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룩한 부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sup>13</sup>

그렇게 되기를 엄숙하고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Gospel Ideals*, 1953, 299쪽.
2. 니파이후서 2:27.
3. 모로나이서 7:16.
4. 니파이후서 28:21.
5. 니파이후서 28:22.
6. 니파이후서 28:21.
7. *Discourses of Brigham Young*, 390쪽.
8. 고린도전서 10:13.
9. 이사야 1:18.
10. 교리와 성약 58:42.
11. 신명기 5:32-33.
12. Clayton M. Christensen, Brigham Young University Idaho Devotional, June 8, 2004.
13. 이사야 52:11.

#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행하십시오

배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대회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계신 수백만 후기 성도 및 친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이 성스러운 기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숙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크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적절하고 여러분의 필요 사항에 맞는 격려와 질책과 지시를 보내 주십니다.

제가 이 대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알기 위해 저는 경전과 과거 연차 대회에서 그분의 종들이 전한 말씀 기록을 읽어 보았습니다. 물몬경에 나오는 주님의 위대한 종 엘마가 남긴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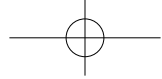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참으로 내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각 영혼에게 회개와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고,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sup>1</sup>

저는 엘마의 숙고에서 제가 기도해온 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써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의롭고 참된 바를 좇아, 지혜로써 권고하심을 아느니라.”<sup>2</sup>

주님의 종이 전한 그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 주제가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메시지와 성임된 종을 보내십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권고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종을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떻게 슬픔이 오는지도 아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우리는 전세에서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장자 여호와께서 제안하신 계획,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그 계획을 거절했다는 것을 압니다.<sup>3</sup>

그 모반을 선동하는 일에서 루시퍼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비참함에 처한 자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슬픈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서 그러한 예를 들 때면 조금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신앙이 없었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위태로운 순간을 맞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연구를 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지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아만은 주님의 선지자에게서 강물에 몸을 씻으면 주님께서 나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믿지 못하였으며, 그런 단순한 일은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안전한 배를 떠나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드는 한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sup>4</sup>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후 베드로는 순교 당할 때까지 한결같이 충실하게 봉사할 만큼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물론명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에 순종하는 어린 니파이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신뢰하려는 소망을 키우게 됩니다. 니파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sup>5</sup>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앞으로써 옵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sup>6</sup> 하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허가하신 평안을 지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 나타내 보이신 것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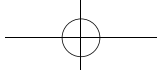
저에게 그 시작은 1820년 뉴욕 주, 한 농장 숲 속에 있던 어린 소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소년인 조셉 스미스 이세는 숲 속으로 들어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셉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sup>7</sup>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였다.”<sup>8</sup>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살아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우지 못한 소년을 사도이자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간증이 있기에, 저는 오늘날 그분의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른 분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은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삶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래 전, 이와 같은 대회에서 저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빛을 지지 않고 이를 멀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언급하시면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담보 대출을 모두 갚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다고 하셨습니다.<sup>9</sup>

모임 직후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방법이 있겠소?” 처음에는 안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른 주에 있는 저희 소유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째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종이 전한 몇 마디 말씀을 믿었기에, 월요일 아침에 집을 팔아 달라고 부탁해 놓았던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 몇 주 전에도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었고 “몇 년 동안 집에



관심을 보인 사람조차 없네요.”라는 말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바로 그 월요일, 제가 그 중개인에게서 들은 대답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종을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합니다.

그 중개인은 전화 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막히게 전화를 주셨네요. 오늘 한 사람이 그 집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갔거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를 이야기하던가요?” 중개인이 말한 액수는 저희가 갚아야 하는 담보 대출금에 몇 달러를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보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안전과 평안을 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저희 가족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축복이 됩니다. 저는 뉴저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지부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이 스무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연세가 많으시고 무척 겸손한 개종자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민자였는데, 말투에서 노르웨이 악센트가 강했습니다. 자매님은 가족 중에 유일한 교회 회원이셨고, 또 살고 있던 도시에서 유일한 회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지부 회장이셨던 제 아버지를 통해 주님께서 자매님을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침서 한 권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자매님은 회원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셨습니다. 자매님이 아는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 주제가 전부였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매님은 이웃들에게 안 입을 옷을 얻어 와서 잘 빨고 다린 후에 상자에 담아 뒷마당에 내놓았습니다. 돈과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구할 때면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 있는 집에 가보세요. 거기 물론 아주머니가 사는데 필요한 걸 줄 거예요.”

주님께서는 도시 전체를 돌보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부분을 훌륭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여성 한 명을 부르셨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하기 바라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할 만큼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에, 그 자매님은 그 도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수백 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나라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가 한 다음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써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sup>10</sup>

하나님은 국가를 통치하지는 않으시지만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국가 요직에 앉힐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sup>11</sup>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저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한번은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한 도시에서 대회가 열렸고 광대한 경기장에 모인 후기 성도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한 잘생긴 청년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더 잘 차려 입었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총관리 역원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은 그들이 그 도시 시장과 그의 수행원들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려는데 놀랍게도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그 시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와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시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교회 회원들에게 전해 주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있으니 우리가 국민들에게 바라는 조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큰 도시와 나라의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극소수였습니다. 그 시장은 우리의 교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교회 회원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성임된 종을 믿는 성약에 따르는 후기 성도들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시장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회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종들을 압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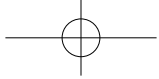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sup>12</sup>

배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대회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대회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 찬송,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면, 그 메시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을 가서 행한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힘이 더 커질 것이며, 머지않아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는 그분의 선택된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엘마서 29:1~3.
2. 엘마서 29:8.
3. 교리와 성약 29:36~37; 아브라함서 3:27~28.
4. 마태복음 14:25~31.
5. 니파이전서 3:7.
6. 시편 46:10.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8쪽 참조.
8.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9. 예를 들어, 에즈라 테프트 벤슨, “Prepare for the Days of Tribulation,” *Ensign*, 1980년 11월호, 33쪽 참조.
10. 엘마서 29:8.
11. 고린도후서 36:22~23; 에스라 1:1~3; 이사야 45:1, 13 참조.
12. 교리와 성약 1:38.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관대함과 친절과 자비가 회개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이** 연차 대회가 소집된 지금 이 시대는 혼란과 위험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임을 계시를 통해 경고 받아온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늘 배워왔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라”<sup>1</sup>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열쇠가 회복되면서 이 열쇠를 통해 신권 권세가 모든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이 혼란스럽던 그 시기에 제일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다섯 번째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교회 회원들이 잘 읽고 따라야 할 지침입니다.

그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sup>2</sup>

“하나님들께서 내려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고 …… 우리가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sup>3</sup>

이 계명은 한번도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sup>4</sup>

그 시험의 목적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고]”<sup>5</sup>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리하이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으며 또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야]”<sup>6</sup>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래된 격언 중에 “주님은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실 것이고, 루시퍼는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선택의지가 사탄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선택의지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맹목적으로 뺨개쳐버릴 수는 있어도 남이 강제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부터 자주 쓰는 변명이 있는데 “사탄이 시킨 거야.”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고 호도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든 그 누구든 강제로 범법하게 하거나 그 범법을 지속하게 할 힘은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면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위험한 유혹이 함께 옵니다. 필멸의 생이라는 은사와 다른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능력을 의롭게 행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행복의 계획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쇠, 즉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영원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신성한 목적을 거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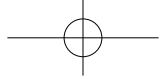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아버지, 곧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로 그분께 그 의지를 표현할 때는 뭔가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결혼 성약 안에서 이러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에서 우리의 자녀들, 곧 가족이 탄생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지속되고 평생토록 풍요와 만족감을 누릴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 세상에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정결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합법적인 결혼식을 한 뒤에, 더 이상적으로는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고 난 뒤에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봉인을 푸는 것,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능력은 오로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인 사람과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복음은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일도 각자 자유입니다만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 하고 제시된 말씀이 매우 직설적으로 전달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자신은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sup>8</sup>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도록 유혹하여 생명을 낳는 능력을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 장사와 같으니”<sup>9</sup>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sup>10</sup>

요즘은 외설물의 끔찍한 영향력이 마치 세계를 휩쓰는 역병처럼 여기 저기를 감염시키고, 대부분 남편과 아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모든 가정에 침투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역병이 영에 남기는 상처는 대개는 불행하게도, 치명적입니다. 루시퍼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sup>11</sup>, 곧 “위대한 행복의 계획”<sup>12</sup>을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외설물은 그리스도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정한 관계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에게는 최고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통해 외설물의 역병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외설물은 정말 역병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향력에 무릎을 꿇는다면 말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나아가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며 그들은 악한 영향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고하는 음성을 높여서 교회 회원들에게 깨어나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인식하라고 주문합니다. 부모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악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십시오.

우리는 사탄이 결혼을 대체하려고 내놓은 것들이나 속임수에서 우리를 보호할 도덕적 표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복음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를 맺도록 유혹하는 어떤 말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sup>13</sup> 사실을 물론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생 전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음란함과 비정상적인 것에 끌리는 유혹이 선천적이라 생각하며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sup>14</sup> 여러분은 의지만 있으면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고 중독을 이겨낼 수 있으며 교회 회원에게 맞지 않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엘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sup>15</sup>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sup>16</sup>

오래 전, 앨버커키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온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 교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고양이 때문에 모든 일이 방해받았습니다. 그 여교사는 아이에게 교실 앞으로 나와 고양이를 안고 있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수컷이니 암컷이니?” 하고 묻기 전까지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이 끊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교사는 대화에 개입했습니다. “상관 없어. 그저 고양이일 뿐이야.”

그래도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교사는 체념한 채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투표해



보면 되죠.”

이 이야기에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깨어 있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는 부도덕을 합법화하기 위해 투표로 법률을 변경하는 행위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의 계획도 투표로 변경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연을 벗어난 법률은 제정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도덕 율법과 물리적 율법이 있습니다.<sup>17</sup> 이 율법들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도덕 표준은 전쟁으로도 바꿀 수 없고 투표로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거나 사악한 것을 합법화한다고 해도 그 뒤에 수반되는 고통과 형벌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밤이 가면 낮이 오듯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대가 있어도 우리는 정도를 걸을 것입니다. 복음 원리와 율법과 의식을 고수할 것입니다. 고의든 아니든 다른 이들이 우리를 오해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시다. 우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길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문명과 우리의 자유 또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sup>18</sup>

죄나 타락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들 누구에게나 열쇠는 있습니다. 그 열쇠는 “회개”라 불립니다. 열쇠 사용법을 알고 계시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쌍둥이와 같은 회개와 용서라는 원리는 시험하는 자인 사탄의 놀라운 힘을 넘어섭니다. 합당하지 않은 습관이나 중독에 빠진 분들은 그 해로운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천사들이 방법을 일러줄 것이며<sup>19</sup>, 신권 지도자들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과 친절과 자비가 회개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속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위대한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sup>20</sup> 사랑에서 비롯된 속죄를 통해 구주께서는 우리 죄에 따르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세제와 같습니다. 옷감 깊숙이 스며들어 죄가 만들어놓은 얼룩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외설물의 흉측한 형상들을 지우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해독제를 갖고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에게는 습관이 미치는 영향력을 풀어내고 중독이라는 시슬조차 끊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단단해도 말입니다. 그 권능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남긴 흉터까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계시 중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계시를 알지 못합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sup>21</sup>

회개 절차에 따라 고백하고 대가를 치른 뒤라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서는 말 그대로 용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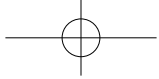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sup>22</sup>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매우 부도덕한 생활을 회개하고 벗어나려 애쓰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회장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그 여성에게 구약전서를 펴서 롯과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하셨습니다.<sup>23</sup> 그런 다음 “이 구절에서 자매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이 회개하는 여성과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sup>24</sup>



제이 이 젠슨 장로  
철십인 회장단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외설물이나 정결하지 못한 행위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을 무시하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일단 청결하게 생활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스미스  
회장님이 주신 권고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화평과 행복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회 모든 활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끔찍한 재앙으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신권을 통해  
치유받으시도록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 권능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0~21.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3. 아브라함서 4:27~28.
4. 아브라함서 3:25.
5. 니파이후서 2:25.
6. 니파이후서 2:26.
7. 고린도전서 3:16.
8. 니파이후서 2:27.
9. 마태복음 13:45.
10. 마태복음 13:44.
11. 야곱서 6:8, 엘마서 34:31.
12. 엘마서 42:8.
13. 엘마서 41:10.
14. 고린도전서 10:13.
15. 엘마서 13:28.
16. 이사야 5:20.
17. 교리와 성약 130:20.
18. 교리와 성약 82:10.
19. 니파이후서 32:3 참조.
20. 교리와 성약 19:16.
21. 교리와 성약 58:42.
22. 모사이야서 26:30.
23. 창세기 19:26 참조.
24. 보이드 케이 팩커, *The Things of the Soul* (1996), 116쪽 참조.

# 성신과 계시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점** 은 장로로 선교 임지에서 봉사한 지 일 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저는 계시와 성신에 관한 성구와 후기 사도들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간증,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간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부모님의 빛에 의지한 채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스스로 영적 증거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1962년 2월 어느 날 밤,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저는 제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 숙소인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소리 내어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고 나서 저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정말 계시니까? 제 스스로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이다!”

그날 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실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각에 평강을 말하고(교리와 성약 6:23 참조) 마음에 확신을 주는(엘마서 58:11 참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교리와 성약 121:26)와 계시의 영(교리와 성약 8:1~3 참조)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엘마서 32:27)라는 엘마의 권고에 따른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또는 씨앗은 나무로, 실로 거대한 간증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시험하자 그 과정은 계속되어 더 많은 간증 나무가 자라났고 이제는 성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신께서 주시는 계시 위에 우거진 진정한 숲이 되었습니다.

## 성신은 훌륭한 은사입니다

미 대륙을 방문하신 구주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구주께서 제자와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 하나는 성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신 후, 구주께서는 떠나시면서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구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열두 무리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성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제3니파이 11~18장 참조) 그런 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성신을 받고 싶어했습니다.(제3니파이 19:8~9 참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성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택한 이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

아버지여,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제3니파이 19:20~21)

몰몬경에 나오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신의 은사는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

[그것은] 어떤 사람, 사도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 모든 어린이에게 주어집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년), 49쪽)

### 계시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응답으로 옵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교리와 성약 35:19; 42:17 참조) 성신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제3니파이 28:11 참조) 그 밖에도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하고(모로나이서 10:5 참조)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교리와 성약 11:12 참조) 역할을 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성신께 인도를 받아 선을 행하는 이 중요한 역할에서 모범이 되십니다. 회장님은 구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사도행전 10:38) 모범을 따르십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방문하고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을 구조하라는 성신의 영적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줄 몬슨 회장님과 같은 분도, 가정 복음 교사도, 온정 어린 자매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성신의 또 다른 역할인 보혜사로 위안과 인도를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36:2 참조)

제 손자 퀴튼은 복합적인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났으며 돌이 되기 3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퀴튼은 병원을 자주 오갔습니다. 당시에 켄슨 자매와 저는 퀴튼과 멀리 떨어져 아르헨티나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자녀들 곁에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 받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저희가 그토록 사랑했고 곁에 있기를 바랐던 손자입니다. 기도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저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켄슨 자매와 저는 한 선교부를 방문하는 동안 퀴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는 집회소 복도에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신으로부터 확신을 받았음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평강(빌립보서 4:7 참조)으로부터 오는 확신 말입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들의 삶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신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오늘날까지도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큰 신앙과 화평과 위안을 느낍니다.

### 계시와 몰몬경

그와 같은 계시의 은사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몰몬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흡족히 취했습니다. 성신은 제게 몰몬경의 참됨과

도미니카 공화국 라스 카오바스에 있는 전임 선교사들과 한 자매는 연차 대회 모임 사이에 갖게 될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신성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물몬경이 교회의 네 가지 필수적인 모퉁잇돌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신권 회복, 그리고 그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베소서 2:19~21 참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큰 은사들은 개인적인 간증과 회원들의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탱해 주는 흔들리지 않는 모퉁잇돌들입니다.”(“신앙의 네 모퉁잇돌”,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7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은사들은 제 신앙과 간증의 닻이 되었으며, 저는 성신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 각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저는 이 모퉁잇돌이 되는 은사 중 두 가지, 즉 첫번째 시현과 물몬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자녀가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훌륭하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리하이와 조셉 스미스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서로 닮았습니다.(니파이전서 1장과 조셉 스미스-역사 1장 참조)

- 두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필요 사항이

있었습니다. 리하이는 예루살렘에 압박한 멸망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해야 했고, 조셉 스미스는 어떤 교회가 참된지 알고자 했습니다.

- 두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 두 사람은 시현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책을 받았습다.
- 두 사람 모두 가르쳤습니다.
- 두 사람은 성신을 통해, 시현과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습다.
-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협박을 받았습다. 리하이와 그 일행은 도망쳐서 살아남았고, 조셉은 순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물몬경에 있는 니파이전서를 공부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책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 앞 부분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도 계시와 성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와 성신에 관한 가르침은 물몬경 전반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물몬경과 계시를 없애 버린다면, 우리 종교에서 남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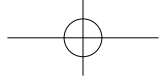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무엇이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96쪽)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종교와 그 교리가 참됨을 확신하게 됩니다.(물몬경, 소개 참조)

영과 관련된 것들은 성스러우며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암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느끼는 바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엘마서 26:16)

그러나 저는 성신이 실재하며, 증거하는 자요 계시자이며, 보혜사, 인도자, 천상의 교사임을 증거합니다.

참되고 살아 있는 이 교회, 이 종교가 이 네 가지 모퉁잇돌 위에 놓여 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모퉁잇돌이심을 간증드립니다.(에베소서 2:19~21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이시며, 제 뒤에 앉아 계시신 열다섯 분은 선지자이자 선견자, 사도이며, 계시자이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거룩한 신권과 왕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는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귀여운 루비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루비가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루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sup>1</sup>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루비는 지상에 와서 필멸의 삶을 경험하고 영생을 향해 진보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루비는 배움의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에 루비는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택하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해지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루비는 깨끗한 상태로 지상에 왔지만 행복의 계획에 따라 시련과 유혹을 겪고 실수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해 용서 받고 충만한 기쁨을 받으며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루비가 태어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루비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에게 자기 이름처럼 깨끗하고 고귀한, 유덕한 여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겠구나.”<sup>2</sup>

그러자 루비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루비 엄마는 “오늘부터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부모, 조부모, 지도자로서 어떻게 청소년 자녀들이 영생을 향한 길을 시작하고 그 길에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sup>3</sup> 합니다.

선지자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sup>4</sup> 우리 각자는 좋은 모범이 됨으로써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원리인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sup>5</sup>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신앙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간증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자녀들에게 말과 모범으로 간증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산 어느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는 경전을 연구하여 응답을 구했고,<sup>6</sup> 조셉도 어머니를 따라서 인도를 구하기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sup>7</sup>

루시 맥 스미스는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종교 문제로 가족 간에 불화를 겪던 어느 날, 루시 맥 스미스는 “근방에 있는 멋진 산벚나무 숲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sup>8</sup>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또한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도 큰 신앙으로 기도했으며, 조셉이 골수염으로 다리를 앓을 뻔했을 때나 조셉의 누이 소프로니아가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소프로니아가 앓은 병에 관해 루시 맥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 남편과 나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슬픔을 토로하며 주님께 간절히 애원했다.”<sup>9</sup> 소프로니아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머니 루시가 신앙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확신합니다.

루시 맥 스미스는 인도를 받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했으며, 조셉도 숲으로 가서 신앙으로 기도드리며 어머니처럼 주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족과 함께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루시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우릴 안전하게 인도하여”<sup>10</sup> 줄 후기의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그 길에 서서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sup>11</sup> 사람들에 관해 배웁니다. 그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sup>12</sup>입니다. 유혹으로 가득 찬 오늘날 세상에서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에 “굳게 잡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손은 쇠막대에 두고 다른 한 손은 세상에 둔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 길에서 방향을 잃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모범을 보인다면 야곱이 한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인] 나쁜 본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신뢰를”<sup>13</sup> 잃을 것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와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가르침은 명확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쇠막대를 잡고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대로 생활할 때만 그 가르침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루시 맥 스미스처럼 선지자를 키우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루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자녀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함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구주의 속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각자가 깨끗해지는 과정은 신앙과 회개와 우리가 맺는 첫 번째 성약인 침례로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침례 성약대로 살도록 돕기 위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침례의 물가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에 세상에서 걸어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동의합니다.”<sup>14</sup>

“성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활동이나 관심사들을 포기해야 합니다.”<sup>15</sup>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청소년들이 성약을 맺는 일에 수반되는 성스러운 책임과, 성약을 지킬 때 받는 깨끗해지는 축복을 이해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책자에는 청소년들의 발전을 지연시키고자 사탄이 놓아둔 올가미에 걸려 들지 않고, 험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쇠막대, 즉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여러분은 또한 순종과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sup>16</sup> 것을 추구할 때 받는 많은 축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이 소책자를 하나 구해서 자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청소년들이 표준대로 생활하고 표준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알아내고 싶은 소망을 품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복음에 관한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락과 대중 매체” 편과 “복장과 외모” 편에 나오는 표준은 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표준은 세상적인 표준과 점점 동떨어진 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중 매체를 선택할 때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 오는 대중 매체가 영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거나 가족과 친구 관계를 해치거나 복음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자녀가 장시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블로그, 위키, UCC 등과 같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톨과 플랫폼-옮김)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 시청을 하면 생산적인 활동과 유익한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장과 외모 면에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몸을 돌보고, 보호하며, 적절한 옷차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존중한다는 점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sup>17</sup> 너무 달라붙거나 얇아서 비치거나 그 외 형태로 살갓을 노출시키는 단정치 못한 옷을 구입하지 않거나 입지 않음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기 때문에 “어느 때에나 …… 어느 곳에서나”<sup>18</sup> 순종하려 노력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걷다가 야외 결혼 피로연이 한창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유덕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즉시 받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음악과 복장은 사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입은 아름다운 드레스는 매우 정숙했으며, 하객들의 복장도 마찬가지로



단정했습니다. 이 가족은 그날의 신성함을 세상의 방법과 섞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있는 훌륭한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교사와 지도자와 가족에게 보여준 의로운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 많은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임을 압니다. 혼자서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과 의로운 모범에 찬사를 보냅니다. 인내하고 계속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적인 가족일지라도 진정으로 돌보고자 하는 선한 남성[과 여성들]이 전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sup>19</sup>

여러분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와 친구를 찾아보고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청년 시절에 저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부모님 외에도 칼마 커틀러 고모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열여섯 살 때 스테이크 표준의 밤에서 고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고모님은 순결을 유지하고 성전 결혼에 합당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고모님 간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우 어린 소녀일 때부터 고모님의 유덕한 삶을 지켜보았으며 그 삶은 고모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청남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과 깨끗한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됨으로써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여 매일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십시오. 침례 성약을 지키십시오. 그 성약은 여러분을 합당하고 정결하게 하여 성신이 함께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도록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귀여운 루비에게 언젠가 필요하게 될 본보기는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루비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루비 부모는 매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하여 가정에서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비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그 모범을 따르겠다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의 계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계획은 루비와 우리 각자가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아브라함서 3:22~26 참조.
2. 잠언 31:10 참조.(옮긴이: 영문 성경에 나오는 Ruby, 즉 루비는 한글 성경에 진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3. 디모테전서 4:12.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173쪽.
5. 디모테전서 4:12.
6. 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by His Mother*, ed. Scot Facer Proctor and Maurine Jensen Proctor, *The Revised and Enhanced History of Joseph Smith by His Mother*(1996), 50쪽 참조.
7. 조셉 스미스-역사 1:11~12.
8.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58쪽.
9.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69쪽.
10. “최막대”, 찬송가, 170장.
11. 니파이전서 8:30.
12. 니파이전서 11:25.
13. 야곱서 2:35.
14. Robert D. Hales, *Return: Four Phases of Our Mortal Journey Home*(2010), 60쪽.
1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63쪽.
16. 신앙개조 제13조.
17. 고린도전서 3:16 참조.
18. 모사이야서 18:9 참조.
19.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6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교통하는 채널

이 필멸의 삶이 목적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개인 채널과 신권 채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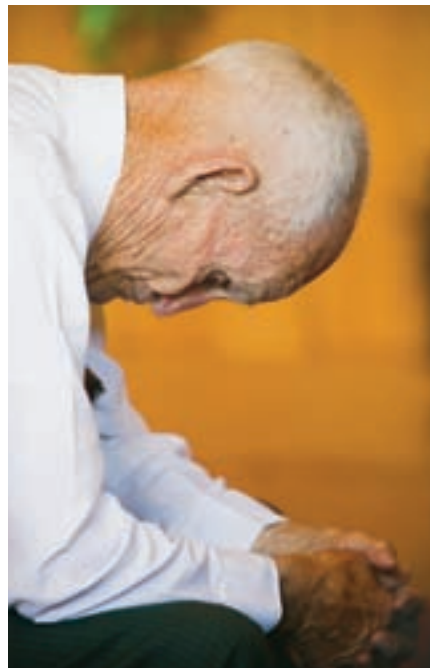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그분과 교통하도록 두 가지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개인 채널과  
신권 채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통하는 이 두 가지 필수 채널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 받아야  
합니다.

## 1. 개인 채널

개인 채널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며 그분께서는 어떤 필멸의 증개인을 거치지 않고 그분이 정하신 채널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성신이 하는 역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요한복음 15:26; 니파이후서 31:18; 제3니파이 28:11 참조), 진리로 인도하며(요한복음 14:26; 16:13 참조),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것(니파이후서 32:5 참조)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이 개인 채널은 진리에 대한 간증과 지식을 얻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인 인도를 받는 근원이 됩니다. 이 채널은 그분의 놀라운 복음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채널을 통해 계획이 참되다는 간증을 개인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성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통하는 이 개인 채널은 합당성에 기초합니다. 이 채널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약속을 받기에 합당해집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이 개인 채널에 관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마틴 루터가 신봉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신권”으로 알려진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일에서 이 개인 채널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교회 회원 중 일부는 이 직접적인 개인 채널의 필요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 제반사에 관해 하늘과 교통하는 신권 채널, 즉 선지자적인 지도력의 중요성을 의식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해야 할 결정을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그런 결정은 개인 채널로 영감을 받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가족을 이끌고,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우선 개인 채널을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이 소중하고도 직접적인 개인 채널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 채널은 신권 채널과 완전히 동떨어져서는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방법이자 수단인 성신의 은사는 그에 부합하는 신권 열쇠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신권 권세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믿거나 바란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을 계속해서 동반할 수 있는 권리는 매주 안식일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여 순종하고 봉사하겠다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갱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권 채널에 불순종하거나 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인 채널에서도 온전하게 교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1:36)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거나 신권 지도자가 전한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시나 영감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온 것입니다. 악마는 거짓의 아버지이며 항상 교활한 모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려 합니다.

## II. 신권 채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해 우리와 직접 교통하시는 개인 채널과 달리 신권 채널에는 반드시 필요한 매개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분의 성임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희생을 하시어 자신이 맡은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는 속죄를 통한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조건을 정하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과 의식들을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약을 맺습니다. 성약을 맺는 일은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얻기에 합당해지는

방법입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니파이후서 25:23)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의 이름을 지닌 신권 권세를 부여하셨고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하늘에서 온 존재들을 통해 그분의 신권 권세가 회복되고 그분의 교회가 다시 조직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신권과 다시 세워진 교회는 신권 채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신권 채널은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경전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채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채널을 사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영감받은 지도자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권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채널이 있기에 우리는 필요한 의식들을 받으며, 이 채널이 있기에 그분의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조직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는 길은

그분의 교회에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신권입니다. 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복음 전파, 성전 및 집회소 건축,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신권 채널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예배도 일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즉, 권능으로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와 권능을 받은 사람이 의식을 집행해야 합니다.(요한복음 15:16 참조) 우리도 그렇게 믿지만, 그 권세를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기독교와 다릅니다.

일부 회원들, 또는 한때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들은 이 신권 채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지도자들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합니다. 전적으로 개인 채널에만 의존한 채 각자 자신의 길로 가서 교리를 규정하며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교회를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경멸하듯이 말하는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조직화된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와 함께 주님의 사업도 거부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절정의 시기에



그분의 교회와 역원들을 조직하셨으며 현대에도 이를 다시 조직하셨습니다.

하늘 권세로 세워진, 조직화된 종교는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에베소서 4:12~13)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현대에 주신 계시에서 선언하신 말씀, 즉 주님의 종이 전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38; 21:5; 68:4 참조)

이 중요한 신권 채널을 의지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의 사항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신권 채널이 개인 채널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개인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신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부모, 교사, 또는 신권 지도자들과 같은 타인의 말과 신앙에 의지하기도 합니다.(교리와 성약 46:14 참조)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개인 채널에서 얻으려 하지 않고 특정 신권 지도자나 교사에게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의지해 온 바로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성숙한 지식과 간증을 얻는 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필멸의 매개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개인 채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권 채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합니다. 여러 경전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심각한 범법을 계속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질]”(앨마서 38:1)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그분의 종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데 큰 제한을 받으며, 우리 스스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영에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에는 번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셉이 번역을 계속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조셉은 화를 냈다. 아내 에머가 뭔가 잘못을 한 탓이었다. 올리버와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조셉도 곧 뒤따라 올라와서 번역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조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단 한 글자도 번역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밖으로 나가 과수원으로 향했고, 거기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조셉은 에머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런 다음 위층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번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셉은 겸손하고 충실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sup>1</sup>

### III. 두 채널이 모두 필요한 이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교통하기 위해 제정하신 이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한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채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알려 주는 고대 경전 기록이 있는데, 바로 모세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권 지도자 옆에서 “하나님께 물으려고”(출애굽기 18:15), 또한 “양쪽을 재판하[려고]”(16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드로가 모세에게 판사를 임명하여 개인적인 다툼에 대해 재판하는 일을 위임하라고 권고한 내용(21~22절 참조)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드로는 또한 모세에게 개인 채널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20절)

다시 말해서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신권 지도자에게 가져오지 않도록 가르침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계명을 이해하고 영감을 구함으로써 대부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 칠레에서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한 이유를 예증해 줍니다. 칠레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많은 회원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몇몇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담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재난에 준비되어 있기에, 즉시 음식과 거처, 기타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칠레 성도들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권 채널이 아무리 제 기능을 잘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각 회원은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했고, 구하고 귀 기울인 이에게 성령을 통해 오는 위안과 인도를 직접 받아야 했습니다.

선교 사업도 그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함을 보여 줍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은 남성과 여성은 신권 채널로 받은 가르침과 개인 채널을 통해 받은 간증 때문에 선교사로서 합당해지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얻습니다. 그들은 신권 채널을 통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주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권 채널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구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참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직접 기도하여 개인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참되진 알아보라고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원리들이 가족과 교회에서 신권 권세라는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sup>2</sup> 교회에서 모든 신권 권세는 해당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 주는 지시에 따라 작용합니다. 이것이 신권 채널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감리하는 사람은 아버지이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이든, 어떤 신권 열쇠를 지닌 누군가에게 승인 받을 필요 없이 가족 제반사를 맡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 채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밝혀진 운명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족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이 두 가지 채널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 필멸의 삶이 목적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개인 채널과 신권 채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전적으로 개인 채널에만 의존한다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늘 권세의

중요성을 잃고 맙니다. 종교 생활을 신권 채널에 너무 의존한다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저해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운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합니다. 회복된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며, 회복된 교회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합니다.

저는 신권 채널을 관리하는 열쇠를 지니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주님의 선지자임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소중한 개인 채널을 통해 회복된 복음이 참됨을 알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W. H. Kelley 장로가 보낸 편지", *The Saints' Herald*, 1882년 3월 1일, 68쪽, 이와 비슷한 내용이 B.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131에도 실림.
2. 델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4~27쪽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과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삶에 선사한 모든 것에 고마움을 표현할 때 생깁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태버나클 합창단 고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합창단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미, 네가 한 모든 일이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한 가지 할 말이 있단다. 너는 계속 피아노를 가까이 해야만 해.”

그래서 저는 피아노로 가서 한 곡을 연주해 드렸습니다. “가자, 가자, 생일 잔치로!” 그런 다음 어머니 이마에 입맞춤해 드리자 어머니는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제게 영향을 준 모든 총관리 역원과 제가 오븐에 구울 닭과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방문한 미망인 여든다섯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 한 분을 밤늦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요양원을 찾았을 때 접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무실 게 분명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분이 오실 것을 아니’ 꼭 깨워 달라고 말씀하셔요.”

자매님 손을 잡자 자매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깨어 계셨습니다. 자매님은 제 손에 입맞춤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안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은 그런 방법으로 제 마음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희망, 사랑에 관한 영감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며 봉사에 따르는 축복을 몸소 보여 주신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주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sup>2</sup>

성스러운 능력이 임하자 나병환자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끔찍한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감사를 드려 주님께 축복을 받았으나 고마움을 모르는 아홉 사람은 주님께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축복에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받은 축복을 인식할 뿐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오만과 자만심과 이기심 대신, 여러분이 받기에 합당하고 여러분 삶을 축복할 감사의 영과 함께하게 됩니다.”<sup>3</sup>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에는 구주께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셨는지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흘 동안 광야를 여행하시는 동안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주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흘 내내 먹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제자들은 부족한 것만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구주께서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sup>4</sup>

우리 모두는 받은 축복 대신 부족한  
것에만 연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뻐한다.”<sup>5</sup>

감사는 성스러운 원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sup>6</sup>

물론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자비와 축복을  
매일 감사드[리며] 생활하[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받은 축복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는 지상에 내려와 거하기에  
훌륭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잘못된  
것도 많지만 옳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 우리를  
염려하고 도와주는 친구들,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운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은 심각한 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가장 고귀한  
미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아버이다.”<sup>8</sup>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제6대 교회 회장이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선이 악을 이기며 사랑이  
시기심보다 강합니다. 빛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이기심으로 채워 넣습니다. 감사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 훨씬 더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sup>9</sup>

스미스 회장은 기도하는 생활이  
감사하는 마음을 얻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소유하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속하며 깊이 있는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족, 복음,  
좋은 친구, 건강, 재능, 주위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처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기 쉬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말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능력이다.”<sup>10</sup>

우리는 종종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움을 표하기에 너무  
늦어 버릴 때까지 미루지 마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성은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회상하며  
저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들었어야





했지만 거의 듣지 못한, 고맙다는 그 말을 그들 귀에 들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sup>11</sup>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찌할 수 없는 회한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가능한 한 자주 사랑과 감사를 포함으로써 그런 후회와 회한을 최소화합니다. 너무 늦어 버렸다고 말하게 될 그 순간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과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삶에 선사한 모든 것에 고마움을 표현할 때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하는 태도를 진심으로 깨우쳐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느껴 이를 표현하려 했지만 잊어버리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sup>12</sup> 하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받은 축복을 깨달은 어느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 전에 읽은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담긴 메시지 때문에 이를 간직해

두었습니다. 고든 그린 이 쓴 이 글은 오십여 년 전에 한 미국 잡지에 실린 바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농장에서 성장한 고든은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학교가 끝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수영을 하러 갈 때, 고든과 형제들은 부리나케 농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날이 오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어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소유한 모든 물자를 파악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이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데리고 지하 창고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사과 껍질, 사탕무 상자, 모래에 묻어 둔 당근, 산터미 같은 감자 자루, 선반을 가득 채운 완두콩, 옥수수, 줄콩, 쟈리, 딸기와 여러 저장 식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꼼꼼히 세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헛간으로 가서 건초와 창고 안 곡식 양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암소, 돼지, 닭, 칠면조, 거위 숫자를 세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소유한 물자를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잔칫날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셨으며 그들이 수고한 시간에 어떻게 화답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준비한

잔칫상에 둘러 앉으면서 그들은 축복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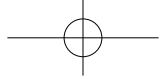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그렇지만 고든이 가장 감사하며 보냈다고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해였습니다.

그 해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남은 건초에 종자도 많았고, 돼지 네 마리가 새끼도 낳았습니다. 건초적재기를 구입하려고 아버지께서 모아 두신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부들 대부분이 갖고 싶어하는 멋진 농기구였습니다. 또한 그 해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형편이 안 되어 고든은 집에 전기를 설치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고든의 어머니가 산터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 빨래판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아내에게 쉬면서 뜨개질이나 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자는 시간보다 빨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소. 우리도 그냥 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소?”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떴지만 어머니는 건초적재기를 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해에 그들은 집에 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은 하루 종일 작동하는 자동세탁기를 구입했고, 천정마다 눈부신 전등을 매달았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할 등불도, 등불 심지를 자를 일도, 검게 그을린 천정을 닦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등은 슬그머니





다락으로 사라졌습니다.

농장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 그 해에 좋은 일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농작물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다 빠졌을 때 농작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농작물을 심었지만 더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감자는 진흙 속에서 썩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암소 두 마리와 모든 돼지들과 팔고 싶지 않았던 다른 가축들을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해 수확한 것이라고는 폭풍에서 겨우 살아남은 순무 몇 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후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겨우 한 마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 아침, 아버지는 산토끼 한 마리를 들고 나타나 아내에게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늙고 질긴 토끼 고기를 요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마지 못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토끼 고기와 겨우 건진 순무가 식탁에 올라왔을 때, 자녀들은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든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트리자 아버지는 조금 의아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락에 올라가 등불을 가져오더니 식탁 위에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전등을 끄라고 했습니다. 등잔만으로 불을 밝히자 예전에는 어떻게 지냈던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집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가족들은

밝은 전깃불 없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음식 축복을 한 후 모두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낮은 등불이 밝히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산토끼는 칠면조 맛이었고 순무는 이제껏 먹어 본 것 중에 가장 맛이 있었다. ……

모든 것이 부족했던 우리 집이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었다.”<sup>13</sup>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애롭고 고귀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 모임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을 늘 생각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죽은 후에 우리 영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진리의 빛을 가져다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사랑의 유산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억압 받는 사람을 돕고, 죄지는 이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홀로 서셨습니다. 몇몇 사도는 의심했고 한 사도는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분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그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지금도 연민에 찬 주님 음성이 울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sup>14</sup>

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sup>15</sup>는 누구입니까? “영광의 왕”<sup>16</sup>, 만왕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라오라”<sup>17</sup>며 손짓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sup>18</sup>라고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sup>19</sup>라고 간청하십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릅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 감사라는 위대한 미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감사가 우리 영혼에 퍼져 나가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John Thompson, “Birthday Party”, *Teaching Little Fingers to Play*(1936), 8쪽.
2. 누가복음 17:11~19.
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250쪽.
4. 마태복음 15:32~38 참조.
5. *The Discourses of Epictetus: with the Encheiridion and Fragments*, trans. George Long(1888), 429쪽.
6. 교리와 성약 59:7, 21.
7. 엘마서 34:38.
8. Cicero, in *A New Dictionary of Quotations on Historical Principles*, sel. H. L. Mencken(1942), 491쪽.
9.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1939), 263쪽.
10. Aldous Huxley, *Themes and Variations*(1954), 66쪽.
11. William H. Davies, *The Autobiography of a Super-Tramp*(1908), 4쪽.
12. William Arthur Ward, in Allen Klein, comp., *Change Your Life!*(2010), 15쪽.
13. H. Gordon Green, “The Thanksgiving I Don’t Forget”, *Reader’s Digest*, Nov. 1956, 69~71쪽에서 발췌.
14. 누가복음 23:34.
15. 이사야 53:3.
16. 시편 24:8.
17. 마태복음 4:19.
18. 누가복음 10:37.
19. 요한복음 14:15.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아론 신권

여러분이 지닌 신권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신권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권을 사용하고, 영화롭게 하며,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25년 전 연차 대회에서 말씀할 당시 저는 시각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 한 명을 옆에 세워 두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 맏손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로 성임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빌어 손자에게 아론 신권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손자에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나 다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길에 들어서서 맞이할 세상의 여진이 그리 달갑지가 않다. 나이 많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연령과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너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한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상황에 처할 거란다. 따라서 또래 압력은 훨씬 힘들고 강할 거야.

우리 집에는 라디오와 전축, 텔레비전이 있지. 그 모든 것은 건전한 오락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 동안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제작된 내용은 청소년들을 고무하고 북돋는 수준이 못 된다. 사실상 제작된

내용 중 대부분은 저속한 것들이지. 집에 있는 스위치에는 네 내면에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단다.”(“나는 너희에게 ……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52쪽)

더 많은 것들이 변할 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기술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 전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축이란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거실로 가서 틀었던 기계입니다. 어디든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야 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손자 테리에게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가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 (1) 몸을 건강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것,
- (2) 마음을 단련시켜 지혜로워질 것, (3) 강건해져서 세상에 만연한 유혹을 물리칠 것, (4) 주님을 신뢰하되, 특히 주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더욱 신뢰할 것.

저는 마지막으로 테리에게 이러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경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다. 네가 집사든 교사든 제사든, 선교사나 가정 복음 교사나

장로 정원회 회장이든, 또는 주님께서 너를 어떤 직분에 부르시든 너는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을 거란다. 이 이야기들은 네게 신앙, 용기,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칠 거란다.”(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54쪽)

테리가 25년 전에 제게 배운 가르침에 충실했다는 보고를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테리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고, 충실하게 선교 사업을 했으며, 지금은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아름다운 딸을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많은 손자손녀가 장성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 증손자 중 맏이가 아버지에게서 아론 신권을 받았는데, 저도 다른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둘러서서 증손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그 아이가 서 있지는 않지만 그 아이와 아론 신권을 소유한 훌륭한 청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축복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어 남자들이 성스러운 신권 의식을 집행할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행할 권리가 다시 주어진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에 있는 조셉 스미스 집에 도착한 날은 1829년 4월 5일입니다. 올리버는 선지자에게 고대 기록, 즉 몰몬경을 번역하는 일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한 올리버는 번역 작업을 하는 동안 서기로 일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올리버가 서기로 일하겠다고 나서면서 번역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1829년 5월 15일에 조셉과 올리버는 벌써 제3니파이까지 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반구를 방문하신 역사와 구주께서 가르치신 침례에 대한 내용에 전을했습니다. 제3니파일을 읽는 동안 두 사람은 침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침례 방식이 옳은지, 이 성스러운 구원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기초적인 교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응답을 간구하기로 한 두 사람은 근처 사스케하나 강둑으로 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자신을 침례 요한이라고 소개했고, 조셉과 올리버에게 자신은 더 높은 신권을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일한다고 말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72 참조)

그리고 두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1)

훗날 올리버는 그 일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 생각해 보라. 잠시 더 생각해 보라 ……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성신권을 받았을 때, 어떠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으며 또 어떠한 놀라움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지를!”(조셉 스미스-역사 1:71, 주석)

인류가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린 지 수세기 만에, 거룩한 아론 신권 권능과 영광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을 보면 왜 아론 신권을 소신권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권은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부여되었으므로 아론의 신권이라 일컫느니라

소신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더 큰 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지닌 까닭이니라. ……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7:13~14, 20)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받은 신권 책임을 수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을 뿐 아니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도 받습니다.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충실하면 거룩한 성약에 따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성신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지시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에서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영광까지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축복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어느 와드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론 신권 고문 한 명이 간증을 하고자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론 신권 소유자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문은 그날 아침 와드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 경험한 일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로 걸어가던 중에 그는 집사 두 명이 금식 헌금 봉투를 들고





회원들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복장을 하고 매우 품위 있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그 모습에 이 고문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문은 제사 두 명과 함께 한 요양원에 가서 몸과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찬을 집행했습니다. 이 날 두 청남은 처음으로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고문이 보기에 두 사람은 영예롭고 조심스럽게 신권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고문은 자신의 심금을 울린 경험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는 두 제사 중 한 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역자, 문자 그대로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전달하던 어린 제사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듯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 상태로는 성찬기에서 컵을 들어 마시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어린 제사는 즉시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환자 머리 뒤쪽을 받쳐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한 뒤 오른손으로 성찬기에서 컵 하나를 들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환자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환자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갖는 그런 표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어린 제사는 사람들에게 축복된 물을 전달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 고문은 간증을 전하며 그 아름다운 순간에 받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처럼 어리지만 사랑이 넘치고 순종심 깊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닫고 지키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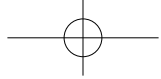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청남을 알려 주십시오. 자신이 소유한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고, 이글 스카우트(21개 이상의 공훈 배지를 받은 보이스카우트 단원-웁긴이)인 청남을 알려 주십시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물몬경에 대한 불타는 간증이 있는 청남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한 청남을 알려 주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 입지에서, 그리고 전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청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주님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0쪽)

이 뛰어난 청남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거룩한 신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성스러운 책임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는 주님의 영원한 신권을 지니는 축복이 무엇이며,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지기 위해 개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론 신권 청남들을 감리하고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참석하여 신권 의무를 가르칠 신권 열쇠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청남이 신권 소유자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축복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성역을 베풀도록 도와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지금 배우도록 도와 주십시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청남 여러분에게 진리와 의의 기초 위에서 생활하라는 과제를 드립니다. 이 기초야말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영원히 지속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신권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권을 사용하고, 영화롭게 하며,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제게는 신권 권능에 관한 특별하고 개인적인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 삶은 신권을 통해 아주 많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영화롭게 하고 아론 신권의 각 직분, 즉 집사, 교사, 제사로 승진할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하라는 과제도 드립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위대한 축복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특히 그분이 주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면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리란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성신을 받으라

두 단어로 된 “성신을 받으라”라는 선언은 수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지시가 담긴 권고이며 신권의 명령입니다.

**저**는 일상 생활에서 성신을 실제로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복돋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성신의 은사

1839년 12월, 조셉 스미스와 일라이어스 히그비는 미주리 주 성도들이 당한 부당한 처사를 보상받기 위해 워싱턴디시에 머무는 동안 하이럼 스미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답 동안 [미합중국] 대통령은 우리 종교가 그 시대 다른 종교와 어느 점에서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조셉 형제는 침례 양식과 안수례로 받는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상은 성신의 은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97쪽)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은 영으로 된 인격체이시며 모든 진리를 증거합니다. 경전에는 성신을 보혜사(요한복음 14:16~27; 모로나이사 8:26 참조)이자 교사(요한복음 14:26; 교리와 성약 50:14 참조), 계시자(니파이후서 32:5 참조)로 일컫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주시는 계시는 성신을 통해 전달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자이자 증인입니다.

성신은 권능과 성신의 은사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상에 거하는 남녀 모두에게 역사합니다. 성신의 권능은 침례 받기 전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진실한 구도자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구주께서 주신 복음과 물문경이 참되고, 회복이 실재하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합당하고 승인된 침례를 받은 후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안수례를 할 때에만 부여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나면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느니라 하라. ……

또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자를 너희는 안수함으로써 나의 교회 안에서 확인할지니,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리라.”(교리와 성약 33:11, 15)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사도행전 19:2~6)

침수로써 받는 침례는 “복음의 예비의식이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의 침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Bible Dictionary, “Baptism”)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례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침례는 성신이 역사하는 통로와 열쇠입니다. 안수례로 받는 성신의 은사는 의로움이라는 원리 이외에 다른 어떤 원리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95쪽)

새로운 교회 회원을 확인하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의식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의식을 받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 성신권의 권세와 구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선포합니다. “성신을 받으라.”

우리는 이 의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된 “성신을 받으라”라는 선언은 수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지시가 담긴 권고이며 신권의 명령입니다.(니파이후서 2:26 참조) 성신은 단지 머리 위에 손이 얹어져 두



단어로 된 그 중요한 말이 전해진다고 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실제로 “성신과 성신이 동반하는 영적 은사를 받는” 삶을 원하고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합당하게 살겠다는 성스럽고 지속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3)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과 함께하도록 노력하라는 이 권세 있는 권고를 계속해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성신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시오. (2) 성신을 합당하게 우리 삶으로 초대하십시오. (3)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히 순종하십시오.

#### 진심으로 원하십시오

우선 우리는 성신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몰몬경에 묘사된 주님의 충실한 사도들에게서 의로운 소망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열둘이 무리를 가르쳤으니, 보라, 저들이 무리로 하여금 지면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

또 저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제3니파이 19:6, 9)

우리가 가장 원해야 할 성신을 받기 위해 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일상에 젖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은사를 당연시하고 경시합니까? 성신을 받는 일은 성신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항상 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 합당하게 초대하십시오

성신을 합당하게 우리 삶으로 초대한다면 주님의 영을 받고 인식하도록 더 잘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신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 보다는 성신이 우리에게 하듯이 성신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 삶으로 초대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2:14 참조)

우리는 성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고,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열심히 하며,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가족과 친구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강화하며, 정결한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추구하고, 가정과 거룩한 성전과 교회에서 예배함으로써 성신을 초대합니다. 반대로,

성약과 다짐을 소홀히 하거나 어기고, 기도와 경전 공부를 빠뜨리며, 부적절한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면 영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거나 멀어집니다.

그것은 베냐민 왕이 백성들에게 준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또 가르침 받고 난 후에, 만일 너희가 범법하여 말씀하신 바에 상반되게 행하여, 너희가 참으로 주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그것으로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너희가 복 받으며, 변영하며, 보전되도록 너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진대”(모사이야서 2:36)

### 충실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은 성신을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 축복문을 듣고 합당하게 빵과 물을 취하면서 이 진리를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기꺼운 마음으로 약속하면 항상 그분의 영이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구주께서 주신 복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성신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표준경전을 공부함으로써 빛과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습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항상 기억하기 위한 방편이며, 성신과 계속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집과 안식일 모임에서 예배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돌아가신 친족들에게 봉사하며, 소속 와드와 지부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봉사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의로운 우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합하여 함께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성신께 축복과 지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공부, 모임, 예배, 봉사, 순종은 복음 생활 중 해야 할 일 목록을 늘어놓은, 각기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이 의로운 습관 하나 하나는 성신을 받으라는 강한 권고를 달성하려는 중대한 영적 열망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영감 받은 권고를 따릅니다.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영이 함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복음 가르침과 활동은 우리 삶에 성신이 임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몬경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 청년 용사들처럼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명령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 준행하였으며, 참으로 또한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

“매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와, 그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 준행하며”(앨마서 57:21; 58:40)

### 간증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는

참됩니다. 구주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십니다. 또한 이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성신께서 역사하시며 성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신권이 있고 성신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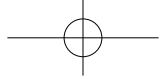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순교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브리검 영 회장에게 나타나 시대를 초월하는 권고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작고 고요한 음성에 주의하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고 확신하여, 성신이 올 때 받아들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광과 다른 모든 영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 영은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속삭일 것이며 원한, 미움, 시기, 다툼과 모든 악을 마음에서 없애 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소망은 선을 행하고,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영을 따르면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97~98쪽)

성신이 일상에 함께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기를, 합당하게 성신을 초대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히 순종하고 실제로 성신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브리검 영에게 묘사한 축복에 해당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성신이 계시자이자 보혜사이자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할 궁극적인 교사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영의 축복과 은사가 이 후기에 회복된 참되고 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담대한 자녀 훈육

이 후일에,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표준을 견지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담대한 자녀 훈육입니다.

저는 오늘 십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총명하고 생기 넘치는 청소년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때문에 대적은 그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많은 충실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차 대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제 첫 손자도 최근에 십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저와도 밀접한 주제입니다. 완벽한 부모도, 쉬운 해답도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2010년 청남 청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여호수아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여호수아 1:9) 경전에 나오는 이 구절은 부모에게도 알맞은 주제입니다. 이 후일에,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표준을 견지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담대한 자녀 훈육입니다.

딸이 기차 선로에 앉아 있는데 기적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로에서 나오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과잉 보호한다고 오해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망설이시겠습니까? 딸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재빨리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고려 사항보다 우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딸이 잠시 동안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딸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화물 열차의 속도와 힘으로 시험과 유혹이 십대들에게 달려듭니다. 가족 선언문에 나오듯이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sup>1</sup> 그 책임은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해당됩니다.

물론경에는 엘마 이세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코리엔톤은 조랜인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엘마는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기에 그 문제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엘마는 아들이 부도덕을 행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엘마가 한 이 담대한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또 이제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자녀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 그러므로 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 죄악을 삼가라.”(엘마서 39:12) 이처럼 아버지가 초기에 개입했기에 코리엔톤은 그때를 계기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코리엔톤은 회개하고 그

후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엘마서 42:31; 43:1~2 참조)

엘마가 보인 모범을 경전에 나오는 또 다른 아버지인 구약의 엘리와 대조해 보십시오. 엘리는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대제사로 봉사했습니다. 경전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사무엘상 3:13) 주님께서 그를 심하게 꾸짖으셨다고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엘리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수년 전 연차 대회에서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님은 “자녀 훈육은 인기 경쟁이 아[님]”<sup>2</sup>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사태를 발견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자녀에게 조언하기를 두려워합니다.”<sup>3</sup>

수년 전, 열일곱 살 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가고 싶어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여행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제 느낌을 말했더니 아내도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아들은 실망스러워하며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이유를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여행에 대한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마음속에 드는 이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단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청소년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도 성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영이 말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모범을 지켜봅니다. 우리를 통해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는 점을 배웁니다.

자녀 훈육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단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라도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게임, 파티, 드레스, 수영복, 인터넷 활동 등에 대해 거북한 마음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지하며 “안 돼!” 하고 말하십시오.

비통에 잠긴 한 어머니의 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십대 아들은 점차 영성을 잃고 교회 활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십대 시절을 보내는 내내 저는 아들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걱정하며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도 말했고 게임에 관해 경고하는 *엔사인(Ensign)*과 신문 기사들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임을 해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마약에 빠진 것이 아니니 걱정을 그만 두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조종기를 감추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들에게 조종기를 돌려 주었습니다. 점차 싸우기보다는 …… 저 주는 편이 쉬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전자오락이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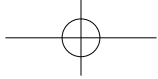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배우자가 뭔가에 관해 좋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을 존중하십시오.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간다면 자녀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낭만적인 관계를 미루도록 가르침으로써 많은 비통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나이에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와 짝지어 다니는 일은 위험합니다. “연인”이 되면 정서적인 친밀감이 생기는데 이것은 신체적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이 순서를 알며, 자기 유익을 위해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사탄이 성공하기 전에 부모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고 개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도덕성이 관련된 문제일 경우, 우리에게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sup>44</sup>

저는 밤 늦은 시간에는 그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늘 믿어 왔고,



청소년들은 밤에 몇 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귀가할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부모는 참으로 현명합니다. 부모가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잘 자라고 입맞춤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청남 청년들은 훨씬 나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문화에서 용인되는 한 관습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리 높여 경고하고자 합니다. 친구 집에서 밤샘 파티 또는 하룻밤을 보내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이 밤샘 파티에서 처음으로 지혜의 말씀이나 순결의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외설물을 접하고 심지어 처음으로 경찰과 대면하는 일도 집 밖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일어난 경우가 매우 잦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늦은 밤에 자녀들의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또래들이 퍼붓는 압력은 훨씬 강해집니다. 밤샘 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내면에서 울리는 그 경고의 음성에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담대한 자녀 훈육이 언제나 “안 돼.”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또한 현대 선지자들이 주는 권고에 “예!” 하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에서 의로운 습관을 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강화하는 힘을 키워줄 기본적인 실천 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연구, 가정의 밤, 가족 저녁 식사, 각 자녀와 하는 정기적인 일대일 접견이 있습니다.

각자 뭔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모아 가족으로서 함께 무릎을 꿇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끄고,

매일 가족들을 인도하여 경전을 공부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월요일 밤에 다른 초대를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일정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집에서 식사하려면 용기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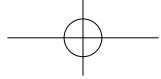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우리가 아들과 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과 개인적으로 접견하며 조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자녀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점을 알아내고, 의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도우며, 우리가 자녀에 관해 받은 영적인 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러한 의로운 습관 다섯 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힐라멘의 용사들처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엘마서 57:25~26 참조)

이 후기에 십대를 훈육하는 일은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임무입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이 세대를 파멸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용감한 부모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여호수아 1:9)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용감한 부모들을 지지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2. 조 제이 크리스틴슨,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움”,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1쪽.
3. 로버트 디 헤일즈,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가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90쪽.
4. 보이드 케이 페커, “우리의 도덕 환경”,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6쪽.



페르 지 맘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우리 영혼에 심을 얻는 것에는 마음과 정신의 평안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고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중심가에는 양편으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는 넓은 가로수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몸통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속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속은 비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 나무의 몸통 상부에 걸쳐진 널따란 철제 띠가 보였습니다. 그 띠에 달린 쇠줄 여러 가닥은 인근 건물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나무는 여느 나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을 들여다 봐야만 강하고 단단한 몸통은 없고 속이 텅 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무의 몸통을 약화시키는 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밤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목이 조금씩 자라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한 걸음씩 성장하여 안에서부터 채워나가야만 속이 빈 나무와 달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담긴

치유의 힘을 통해 크고 강해져서 빛과 이해력,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니파이후서 26:33)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8~29)

이런 심에 관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속이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견해와 생각과 변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56쪽)

우리 영혼에 심을 얻는 것에는 마음과 정신의 평안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고 따르며 또한 그리스도의 베푸는 손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굳건한 소망이 생기며, 이런 소망은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됩니다.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적 평안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빛과 진리에서 돌아선다면 속이 빈 나무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공허함이 자리할 것이며, 그 빈자리를 영속적이지 않은 무가치한 것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으로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 있었을 때와 이 다음에 갈 불멸의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이 지상 생활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시기는 비록 시험의 날이긴 하지만 우리의 시험의 날을 허비하지 말라는 권고를 따른다면 또한 우리에게 기회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니파이후서 9:27 참조) 머릿속에 머무는 생각, 마음속에 품는 감정, 하겠다고 선택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이생과 내세에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매일 우리의 비전이 높아져서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 영원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인 오늘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들을 미래인 내일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의 영향력을 통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과 이해력에 어긋나게





행하기로 한다면, 양심에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된다는 점에서 양심의 가책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옳은 일을 소망할 때에는 우리의 방식을 즉시 바꾸고 싶겠지만, 교만하고 또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를”(교리와 성약 88:35) 구하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 한 사탄에게 “아마 줄로 목을 매어 그들을 이끌기를 그의 강한 줄로 그들을 영원히 결박하기까지”(니파이후서 26:22) 허용하기 마련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따르면 절대로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엘마서 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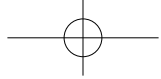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고 단순한 일이 영향을 오래도록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엘마서 37:6~7 참조)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어린 자녀에게 달걀 몇 알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셨습니다. 그 착한 자녀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착해서 보니 그만 달걀이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의 친구 한 사람이 아이가 잘못을 했으니 야단을 쳐야 한다고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야단친다고

해서 달걀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깨진 달걀로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상적인 일을 현명하고 영감에 찬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서로 화합하는 마음이 굳건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좋은 영향력을 낳게 됩니다. 이는 선을 행하도록 이끄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모로나이서 7:16)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속이 빈 나무는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폭죽을 그 안에 넣어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무는 뽑히고 말았습니다. 크든 작든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것들을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파괴력은 폭발적이어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평안의 은사를 받는 약속은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만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참으로 이는 하늘에서 온 천상의 은사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주님께는 영혼을 치유하고 복돋아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죄의 멍을 피합시다

계속 굳건하게 생활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훌륭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어느 화창하고 아름다운 아침에 저는 곧 여덟 살이 되는 손녀 비키에게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인근 호숫가에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 옆을 따라 수정처럼 맑은 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게 산책을 했습니다. 길가에는 아름다운 푸른 나무들과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꽃들이 즐지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파란 눈망울에 명랑하고 순진한 손녀 아이에게 침례 받을 준비를 잘 하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녀 아이는 “할아버지, 죄가 뭐예요?” 하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얻기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죄라는 것은 말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러 지키지 않는 거란다.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지. 죄를 지으면 결국은 고통 받고 슬퍼하게 된단다.”

손녀는 격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 질문은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빠지지 않고 피하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손녀 아이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주변에 있는 자연 요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계속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가시철망 울타리 옆에서 상당히 큰 돌 말뚝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거운 물체 주변에는 꽃과 관목,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식물들은 돌 말뚝보다 더 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더 내려가면 주변 식물들에 덮여서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되어 버린 다른 말뚝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그 말뚝은 그토록 견고한 자신이 연약한 식물에 둘러싸여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뚝은 아마도 ‘문제 없어. 나는 튼튼하고 크기 때문에 이 작은 식물들이 날 어찌지는 못할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무가 크게 자라나면 말뚝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나무가 만들어 주는 그늘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는 계속 자라나서 두 가지로 말뚝을 에워쌉니다.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던 가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말뚝과 뒤엎히고 말뚝을 둘러싸버립니다.

말뚝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속 길을 걷던 우리는 이내 그 말뚝을 찾아냈습니다. 말뚝은 나무의 힘에 밀려

땅에서 뽑혀져 있었습니다. 제 어린 손녀는 놀라워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그 죄라는 나무인가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파멸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 내지 본보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가 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많은 형태의 죄에 관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납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큰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일이 큰 결과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24절은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축복을 받아 휴식을 취하고 활력 있는 몸과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금식을 하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 그저 실수 같아 보이는 일들이라도 그렇게 할수록 감각이 조금씩 무뎠고 결국은 잘못된 일들을 하기에 이릅니다.

침대 시절에 저희 집 귀가 시간은 저녁 10시였습니다. 요즘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가서 즐겁게 노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몇몇 가장 나쁜 일들은 그런 밤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어두운 시간에 주위 환경이 부적절한 장소로 가서 성신을 동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노래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죄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교회 표준과는 동떨어진 친구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기를 얻거나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복음 원리와 율법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며 자신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다 줄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주변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온갖 형태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유용하고 유익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예를 들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게임이나 세속적인 기쁨에 젖게 만드는 프로그램들, 심지어 외설물과 같은 것을 탐닉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외설물은 성품을 파괴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더러운 모래 속으로 빠져 들게 됩니다. 그 모래 속에서 빠져 나오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끔찍한 괴물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친진난만한 자녀,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줍니다. 세속의 쾌락이 맺는 열매는 쓰라림과 슬픔입니다. 순종과 희생이 맺는 열매는 감미로움과 영속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표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결정은 유혹이 닦쳤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이것은 옳은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한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
- 이것은 진리와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훌륭한 사랑의 계획 안에 세상의 구주를 마련하여 회개하는 사람들과, 그분께 와서 도움과 위안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재빨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죄의 텃에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울타리 말뚝이 혼자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포위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님은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58편 42절과 4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호숫가를 함께 산책한 몇 달 후에 손녀 아이는 감독님과 침례 접견을 했는데, 그 감독님은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접견이 끝나자 저는 손녀에게 접견이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녀는 저를 거의 나무라듯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접견 내용은 비밀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감독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진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손녀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해력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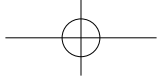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제가 앞서 설명한 나무가 돌 말뚝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함정에 빠뜨린 반면, 또 다른 나무는 그 반대의 것을 줍니다. 그 나무는 니파이전서 8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맞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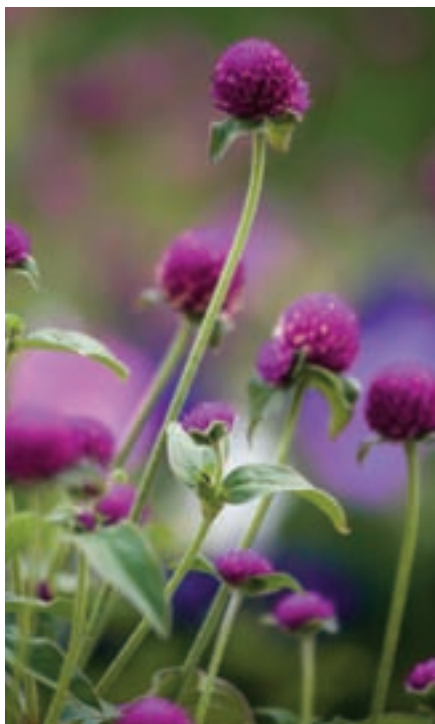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 굳건하게 생활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훌륭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어떤 이유론든 여러분이 실수를 범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리 오세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자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드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칠십인 정원희

## 너는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는 모두 언젠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꿈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할아버지 조지 에이 스미스를 만나 뵈었고, 그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그때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성함으로 할아버지께서 수치를 느끼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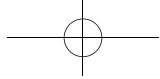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가장 훌륭한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sup>2</sup>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이 할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드려야 했듯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잠언에는 좋은 이름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sup>3</sup>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sup>4</sup>

제가 이 성구와 함께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숙고하는 동안 좋은 이름과 더불어 다섯 아들과 두 딸에게 남기신 저희 부모님의 유산에 관한 여러 기억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의 부, 은이나 금을 소유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저희 아홉 식구는 침실 두 개와 욕실 하나, 누이들이 침실로 쓰던 뒤쪽 배란다가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자 저희 남매들은 유산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분들의 소유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옷 몇 벌과 쓰던 가구,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을 남기셨고, 아버지는 목공용 연장 몇 개와 낡은 사냥총 몇 정, 그 외 몇 가지 물건을 남기셨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살던 조그마한 집과 얼마 안 되는 은행 잔고가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서 은이나 금보다 훨씬 귀한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셨음을 깨닫고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껏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사랑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수시로 하셨는데, 지금은 그 간증을 소중한 일지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심일조를 바치는 것을



말보다는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 성전에서 결혼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모님은 좋은 이름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가셨으며, 저희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힐라맨 부부가 두 아들을 갖는 축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리하이와 니파이로 지었습니다. 힐라맨은 거의 6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아들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볼지어다, 나의 아들들아, …… 내가 …… 우리 시조 [리하이와 니파이]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여, 너희에 대해 말하고 또한 기록함이 그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한 것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 이 일을 행하여, 참으로 저 귀한 영생의 은사를 너희가 얻는 것이라”<sup>5</sup>

**아들드 자매(여기서는 딸이 재현)는 열다섯 살 때 가축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계명을 지킬 때 오는 보호의 힘을 깨달았다.**



106 리아호나

형제 자매 여러분, 600년 후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좋은 이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내가 거듭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sup>6</sup>

영감 어린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선택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영원한 원리이다. …… 선택은 [우리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오게 됩니다.”<sup>7</sup>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사랑하는 아내 디보나는 선택은 자유롭지만 행동에 따른 결과는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교리를 깨닫게 된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제 딸 셀리의 도움을 받아 아놀드 자매의 경험을 여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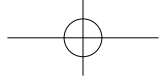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나누고자 합니다.

“열다섯 살 때 저는 가끔 규율과 계명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재미있는 것만 따르기 십상인 평범한 10대 소녀가 그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과연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버지 목장 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기에 친구들과 놀 시간조차 별로 없던 터였습니다.

그 특별한 여름 날에 제게 맡겨진 일은 산속 목장에서 풀을 뜯는 암소들이 울타리를 부수고 밀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소가 한창 자라나는 밀을 뜯어 먹으면 배가 부풀어 올라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 울타리에 머리를 박으려고 늘 애를 쓰던 별난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제가 말을 타고 울타리를 따라 가축들을 살펴보니 그 말썽쟁이 암소가 울타리를 부수고 밀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암소의 배를 보면서 저는 그 소가 상당 시간 동안 밀을 먹어 치웠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소! 울타리는 널 보호하려고 있는 건데 그걸 부수고 들어가 그 많은 밀을 먹어 치우다니. 네 목숨이 위태로워졌잖아.’

저는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농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소는 땅에 쓰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를 잃게 되어 슬펐습니다. 풀을 뜯을 수 있는 멋진 산속 목장과 위험천만한 밀에서 지켜 줄 울타리까지 마련해 주었지만, 어리석게도 그 소는 울타리를 부수고 나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해 버렸습니다.

그 울타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명이나 부모님이 주신 규율과도 같았습니다. 계명과



규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신체적 및 영적 죽음에서 저를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뜻 깊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놀드 자매는 친절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대적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바라겠지만, 계명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리하이와 니파이에게 그랬듯이 우리 삶을 축복하고, 우리의 좋은 이름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상당한 결과를 얻은 그 암소처럼 울타리 밖에 있는 풀이 더 맛있지는 않다는 것을, 또 앞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sup>8</sup> 라는 말씀대로입니다. 이생을 마친 후 우리는 각자가 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계명은 분명합니다. 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며, 순종에 따른 놀라운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두 잘못을 범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속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구주와 하나가 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용서라는 달콤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우리 이름을 깨끗이 하여 그분 면전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격려는 사랑과 온유로 가득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구주께서 여러분을 껴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sup>9</sup>

저는 오늘 좋은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권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구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신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곁에 계신데 이런 생각, 이런 말, 또는 이런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몬슨 회장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런 경전 구절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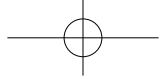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사랑하는 구주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드릴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과연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sup>11</sup>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 학생 교재 2003, 134쪽.
2. 교리와 성약 20:77.
3. 잠언 22:1.
4. 잠언 10:7.
5. 힐라맨서 5:6~8.
6. 모로나이서 10:30, 32.
7.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01, 4쪽.
8. 엘마서 41:10.
9. 제3니파이 9:13.
10. 교리와 성약 84:88.
11. 디모데후서 4:7.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으며, 이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곳 로키 산맥에 가을이 다가와 푸른 잎들이 빨강, 주황, 노랑 등 화려한 색들로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가을 동안 모든 자연은 겨울에 닥칠 한랭하고 혹독한 시련을 견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을은 송어들이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 몸을 만들고자 지칠 줄 모르는 식욕으로 덤벼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플라이 낚시꾼에게는 특히 즐거운 시기입니다.

플라이 낚시꾼의 목표는 교묘한 눈속임으로 송어를 잡는 것입니다. 뛰어난 낚시꾼은 송어의 습성, 날씨, 물의 흐름, 송어가 먹는 벌레 종류, 그 벌레들이 부화하는 시기 등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용할 미끼를 손수 만들기도 합니다. 낚시꾼은 작은 낚시 바늘을 끼울 가짜 벌레 미끼를 만들 때 완벽해야 한다는 점을 압니다. 송어들은 아주 사소한 결점도 눈치채고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어가 수면을 박차고 나와 미끼를 물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저항하다가 끌어 올려지는 모습은 매우 박진감 넘칩니다. 낚시는 낚시꾼의 지식과 기술이 고귀한 송어와 겨루는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속여 낚을 때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며,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루시퍼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송어가 굶주렸다는 사실을 아는 낚시꾼처럼 루시퍼도 우리의 “굶주림”과 약점을 알고 가짜 미끼로 유혹합니다. 그 미끼를 물면 우리는 평화로이 흐르는 삶에서 무자비한 사탄의 영향력 안으로 낚이게 됩니다. 그러나 낚은 고기를 해치지 않고 물에 도로 놓아주는 플라이 낚시꾼과는 달리 루시퍼는 우리를 자진해서 놓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자신이 낚은 인간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지라, 그가 또한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니파이후서 2:18)

다른 총관리 역원들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오늘 루시퍼가 영리하고 간교하며 총명한 존재임을 말씀드립니다. 루시퍼는 거짓과 속임수로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천국 회의를 시작한 순간부터 사탄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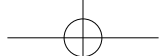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둘러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미끼를 던져놓고서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먹이를 물기만을 기다리며 속임수로 우리를 낚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선택의지를 빼앗기 위해 중독이란 수법을 사용합니다. 사전을 보면 모든 종류의 중독은 어떤 것에 굴복하여 선택의지를 잃고 인생을 파괴하는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sup>1</sup>

연구자들은 뇌 안에 있는 쾌감중추에서 한 가지 기제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sup>2</sup> 쾌감중추가 특정한 약물이나 행위로 활성화되면 이 중추는 의지력, 판단력, 논리력, 도덕성을 관장하는 뇌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중독에 빠진 사람이 옳다고 아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루시퍼에게 낚여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탄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인공 물질과 행위로 우리를 속아매고 낚는 방법을 압니다. 저는 한 사람이 자제력을 되찾고, 파괴적인 약물 남용과 중독에서 헤어나고, 자존심과 독립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받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남용할 경우, 뇌가 잠식되고 선택의지를 빼앗길 수 있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약물에는 니코틴, 헤로인, 아편, 진통제, 신경 안정제, 코카인, 알코올, 마리화나, 필로폰 등이 있습니다.

저는 통증이나 고통을 더는 데 적합한 약을 처방하도록 훈련 받은 의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교회 회원 일부를 포함한



너의 원대로 마시들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리 멘더슨 ©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INC.



수많은 사람들이 처방약에 중독되고 약을 남용합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도 이 사실을 압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선택의지를 빼앗고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그의 끔찍한 사슬로 속박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니파이후서 28:22 참조)

최근에 저는 지역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있는 한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훌륭한 결혼 생활, 그리고 가족을 잃고 정신질환, 건강 악화,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슬픈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처방 받은 진통제를 남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2년 전, 그 자매님은 자동차 사고로 등을 다쳤습니다. 의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픔을 덜어주고자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더욱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처방전을 위조해서 헤로인을 샀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사로잡고 속박했습니다. 약에 대한 집착으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했고, 자녀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약물을 복용해서 고통도 줄고, 일시적인 쾌락과 행복감도 커졌다고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효는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효력도 점점 줄어들어 드는 듯했습니다. 급기야 그 자매님은 약물을 더 많이 복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중독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버렸습니다. 약물은 그 자매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기 전날 밤, 그 자매님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신체적, 감정적, 영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빠져나올 길도, 희망도 없는 울가미에 걸렸다고 느꼈습니다.

이 처방전과 약물 남용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처방약 남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sup>3</sup>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멀리하십시오. 흡입 한 번, 알약 하나, 알코올 한 모금으로도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어떤 사람은 중독과 맑은 정신의 차이는 단 한 모금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압니다. 사탄이 중독으로 이끄는 가짜 미끼로 여러분을 재빨리 낚아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큰 통증을 겪는 사람에게 주는 처방약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은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의사들이 처방해 준 복용량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약을 어린이나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도박이나 사악한 외설물 같은 치명적이고 중독성 있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개개인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중독은 우리를 굴복시켜 선택의지를 빼앗고 중독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비디오 게임과 휴대전화 문자도 중독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게이머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등한시하면서 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도 사람과 나누는 대화라는 중요한 요소를 단절시키는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감독님은





나란히 서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도 그 대신 문자를 주고 받는 두 청소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자들은 중독을 “뇌 질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 누군가를 사로잡으면 그것이 영적인 질병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더라도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이는 아들에게 이런 영원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증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니파이후서 2:27)

중독에 빠져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속박에서 풀려나 영적인 자유를 얻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 즉 우리 영육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하고 열렬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릴 때나 모든 종류의 죄를 회개할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처방전은 경전에 나옵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모로나이서 7:48)

이 구절과 다른 많은 경전 구절은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열렬히 기도하면서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하며 온 영혼을 그분께 바칠 때 희망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신권 지도자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전문 상담사나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방지 12단계를 수정한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기도는 평안을 찾고, 중독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고, 평화를 찾을 영적인 힘을 얻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믿는 진실한 신앙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중독을 극복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교만을 모두 버리고 여러분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권능으로 채워지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치유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우리 목표는 더욱 구주를 닦는 것이고, 중독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마가 말한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엘마서 5:14 참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가짜 낚시꾼인 루시퍼가 던지는 가짜 미끼에 주의하십시오. 루시퍼가 던지는 위험한 수많은 유혹을 분별하고 뿌리칠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기릅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는 미끼에 걸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회복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보았습니다. 속죄의 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하고 선언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그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시기에 중독이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맹사인 중독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주인에게 굴복함”이다.(www.audioenglish.net/dictionary/addiction.htm)
2.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Drugs, Brains, and Behavior—the Science of Addiction*(2010), 18, drugabuse.gov/scienceofaddiction/sciofaddiction.pdf 참조.
3. Erika Potter, “Drug Deaths Overtake Auto Deaths in Utah”, Dec. 2009, universe.byu.edu/node/4477 참조.
4.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section IV, no. 30, drugabuse.gov/pubs/teaching/teaching2/teaching5.html 참조; 또한 drugabuse.gov/funding/budget08.html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번 연차 대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마치게 되어 제 가슴이 감사함으로 벅차 오릅니다. 각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해 준 권고와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배운 진리에 대해 제가 감사를 표할 때, 그것이 전 세계에 계신 모든 회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물론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위대한 베냐민 왕이 한 설교를 듣고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

“말을 되뇌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만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sup>1</sup>

엔사인과 리아호나 잡지 11월호에 실릴 연차 대회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컨퍼런스 센터에서 평화롭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대륙과 대양 건너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이 대회를 전달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청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영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 여러분, 오랜 세월 헌신하여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우리 모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에 기여해 주신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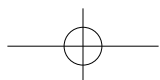
모임에 참여하신 태버나클 합창단과 다른 합창단들은 이번 대회를 고양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참으로 천상의 음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기량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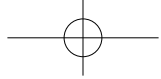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저는 충실한 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을 사랑하며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이해심 많은 분들이며, 그분들이 하는 봉사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다면 제가 부름 받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과 칠십인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사심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봉사하십니다. 본부 보조 조직 역원으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이생을 마감하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대하여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안고 있는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그분을 찾고, 그분 말씀을 연구하며,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돕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와 모든 총관리 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진척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과 예절과 주님의 영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워서 그 간증이 사탄의 매질을 방어하는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회는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느낀 영이 매일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머물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6개월 뒤에 우리 다시 만나 볼 그날까지 작별을 고합니다.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아서 5:2.

##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일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연구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추종자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 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에게 이 모임은 선물과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러분을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보듬어 안으며,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슬픔과 기쁨, 승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지위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딸이며,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성의 정체성과 본질,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 이 교회와 소중한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충실함에 따라 그 성공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필멸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충실히 살아가는 두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브라질 중부 지방에서 사십니다. 적토가

깔린 마당과 빨간 벽돌 담장이 있는 그분의 붉은 벽돌집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자녀들은 초등회 노래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집안 벽면에는 구주와 성전, 하나님의 선지자, 또 리아호나에서 오려낸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자매님과 남편은 자녀들이 성약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희생을 감수하며 성전 의식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복음의 빛과 진리, 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힘과 영감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홍콩에 사는 또 다른 자매님은 아파트 80층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분이시지만 쾌활하게 혼자 힘으로 생활하십니다. 그 자매님은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십니다. 작은 선반 위에는 경전과 상호부조회 교재, 그리고 그밖에 기타 교회 서적들이 꽂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영으로 충만한 안식처로 만든 이 자매님은 지부 회원들 모두에게 빛이 되십니다.



### 경고

우리는 많은 자매님들이 억압 받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늘 굶주리는 분들도 계시며, 어떤 분들은 실망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매일 용기를 내야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의 징조가 도처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지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기 성도 여성의 힘과 목적, 지위와 관련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팽배합니다. 현재 널리 알려진 그릇된 통념에 따르면 우리는 남성보다 덜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상냥하기는 하지만 뭘 잘 모르며,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역부족인 존재로 암시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sup>1</sup>

물론경에는 현재 일어나는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라, 그 날에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맹위를 떨쳐,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할 것임이라.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려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할 것이라 - 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또 보라, 다른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니 - 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그의 끈찍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니 이에서는 건져냄이 없느니라.”<sup>2</sup>

노력 없이 얻으려는 심리, 변명, 무관심, 유희가 점차 팽배하는 풍토 속에서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영감 받지 않는 하나님의 딸들은 점차 경전에 묘사되어 있는 “이방 신”<sup>3</sup>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여자”가 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역경과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은 자매님들이 진리보다는 잘못된 생각을 더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나 경전 읽기와 같은 필수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지금이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이 아니[라]’<sup>4</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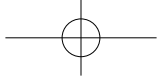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 방어책과 인식처가 되도록 조직된 상호부조회

성경에서 고통하는 때라 칭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딸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영감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교회의 여성들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정해지고 신권이 인도하는 이 조직은 상호부조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딸들이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돕는 가운데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호하는 그분의 딸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서로를 단합시킵니다. 자신의 본질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품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이 시대에 상호부조회는 충실한 여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날 의로운 여성들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저지하고 악과 영적인 파괴에 대항하기 위해 계시를 구합니다. 또한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을 구제함으로써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섭니다.





###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일

우리 회장단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숙고했고, 또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딸들이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sup>6</sup>에 맞서 강건해지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교회의 자매님들이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알고 그것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그 근간을 이루는 정체성과 충실한 여성의 가치가 강화됩니다.

그 결과, 교회 상호부조회 역사와 관련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내년에 이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리아호나 방문교육관 등에서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이 작업은 영감과 계시가 함께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상호부조회에 기대하신 미래상과 목적은 일요일에 따분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성 동호회 혹은 특정 관심사를 추구하는 오락 단체를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주님은 상호부조회에게 그분의 백성을 강화하고 성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조직을 세워 그분의 딸들이 그분의 일과 보조를 맞추며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돕도록 요청하셨습니다.

### 상호부조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기 위해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 사는 훌륭한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랍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연구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추종자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충실함과 봉사는 그분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우리의 개심과 다짐을 상징합니다. 1830년 7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된 초기에 그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첫 여성 지도자를 선택하셨고,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 딸 에머 스미스여, 내가 네게 말하는 동안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 됨이니라.”<sup>7</sup>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딸들을 사랑하시며, 특정한 책임을 부여하셨고, 딸들이 지상에서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드높이고 확증하며 충실한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상호부조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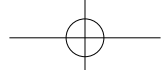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호부조회 모임과 방문 교사 방문, 연합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딸들은 주님의 일과 왕국에서 맡은 책임을 이행하고, 배우며, 보살핌을 받고, 영감을 받습니다. 와드와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들은 이 같은 일을 인도하기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작년에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는 상호부조회 모임과 관련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와드와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자매님들이 이 정책과 그 정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적 목적과 일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을 보며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매들의 모든 모임이 간단히 상호부조회 모임이라 명명되어 발표되면서 우리는 또한 상호부조회의 고결성, 정체성, 관련성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과 의로움이 커지고 가족과 가정이 강화되며 또한 자매님들이 상호부조회 모임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호부조회 모임, 방문 교육, 기타 상호부조회의 일과 관련한 모든 정책들은 상호부조회의 역사에 기초를 두며, 제일회장단이 승인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은 언제나 상호부조회가 해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된 이래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곳에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은 자매들이었으며, 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상호부조회를 떠나 그들은 초등학교, 청년, 주일학교, 기타 일에서 봉사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빛과 덕에서 본보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는 각 자매님들을 강화시켰고, 충실한 여성 수백만 명이 단합하여 펼친 봉사는 주님의 사업에서 놀라운 신앙의 힘을 빚어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회복이 시작된 이래 자매들은 최전선에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청년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준비시키며, 복음 안에서 함께 축복을 누리고자 친구와 이웃, 가족을 초대하며 복음을 전파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 모임을 통해 자매들에게 성전에 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시했다는 사실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상호부조회에 맡겨진 주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여성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를 들이지”<sup>8</sup> 않도록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상호부조회의 책임은 언제나 젊은 여성들이 온건하고 신중하며 정숙하도록 가르치고, 기혼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강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sup>9</sup>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며, 자립하고, 주님 왕국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상호부조회의 모든 역사에서 나타나는 한결같은 주제는 성신의 권능을 활용하는 자매들은 삶에 주님의 영감이 함께하고, 자신이 맡은 책임과 관련한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충실한 여성들을 단합시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가 충실한 여성들을 단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합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강하고 충실하며 목적 의식이 있는 여성들의 영감 어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일부로서 상호부조회는 이제 거의 170개 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인 여성은 중대하고 중요한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과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성전과 미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목표 설정 방법을 배웁니다. 상호부조회에 들어온 후에는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도움으로써 성전과 영생이 주는 축복을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충실한 자매들은 큰 찬사를 받지 못해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계속 일을 해 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부조회는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갚으시리라<sup>10</sup>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서 커 갑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일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독신이거나 기혼이거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팔로서 전 세계적으로 맺어진 자매애에 속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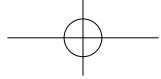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 역사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합니다. 결국 역사의 가치는 시간, 시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통해 원리, 목적, 따라야 할 모범을 배우고 우리가 누구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단합하여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영감에 인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상호부조회는 두려움, 의심, 이기심을 신앙, 소망,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앞으로 진일보시킴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충실한 자매들은 계속해서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상호부조회를 강화하시며 그분의 딸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베드로후서 2:1.
2. 니파이후서 28:20~22.
3. 여호수아 24:23.
4. 디모데후서 3:6.
5. 교리와 성약 63:58.
6. 교리와 성약 1:17.
7. 교리와 성약 25:1.
8. 니파이후서 9:51.
9. 디도서 2:4~5 참조.
10. 마태복음 6:4; 제3니파이 13:4 참조.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우리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모든 축복, 즉 영생과 승영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충실한 여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각국에 계신 여러분 중 수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여주신 충실함과 헌신으로 강해졌고, 선한 모범과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고무되었습니다. 또한 묵묵히 행하는 이타적인 봉사와 간증과 확신에 찬 말씀으로 제 마음은 겸손해졌습니다.

그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렸던 질문을 오늘 밤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1. 신앙을 시험하는 도전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여러분이 견디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답해 주신 내용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2.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속죄 희생으로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성취되리라는 희망.
3. 구속의 계획에 대한 지식.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나라 이 확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알고 사랑하시며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확신한 것은 열다섯 살 때 침례 물가로 들어서면서였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분들을 믿고 사랑했지만, 침례 성약을 맺는 것을 기뻐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하고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느껴 본 적은 없었습니다.

2백만 인구 가운데 선교사는 소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교사들이 저를 찾고 가르친 일은 크나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셨고 선교사를 저희 집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는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sup>1</sup>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신 이유입니다. 이생을 사는 목적은 우리가 영생과 승영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신앙을 시험받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택의지라는 소중한 은사를 주셔서 영속되는 행복에 이를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sup>2</sup>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sup>3</sup>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딸로서 만드시 필요하고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딸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름입니다. 여성이 받은 가장 고결한 직분은 영원한 가정을 세우는 성스러운 임무이며





이상적으로는 남편과 협력하여 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매님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충실한 사람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은 적절한 시기에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 영생을 얻[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sup>4</sup>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놓치는 축복은 “잠시뿐”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거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 기술, 영적인 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필수 의무들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여러분을 의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sup>6</sup>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왜 실망을 느끼는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늘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고 구원과 구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sup>7</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희생양이 됨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sup>8</sup>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sup>9</sup>

주님께서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온 인류가 부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멸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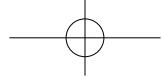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구원 의식들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러한 구원 의식들은 우리가 맺는 성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결속되고 신앙을 강화합니다. 이 필멸의 삶 동안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인생 역경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굳건함에서 용기와 확신을 얻습니다.

1992년, 남편이 파라과이 아순시온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는 파라과이 차코<sup>10</sup> 지방 외딴 곳에서 열린 지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포장도로를 네 시간 가량 달리고, 오래 된 도로를 일곱 시간 더 달린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긴 여행을 하며 겪은 위험과 불편은 우리를 기쁘게 환영해 준 미스톨랄 회원들을 만나면서 씻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지부 회장인 홀리오 예그로스와의 아내인 마가리타는 성전에서 인봉된 몇 안 되는 가족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성전에 다녀온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부가 인봉 받을 당시에 가장 가까운 성전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이었습니다. 편도로 스물일곱 시간이 걸리는 이 여행길에 어린 두 자녀도 함께했습니다. 한겨울이라 몹시 추웠지만 이 가족은 큰 희생을 감수하며 성전에 도착했고,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아이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도중에 아이들을 묻고서 쓸쓸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슬프고 외로웠지만 놀랍게도 위안과 평안을



뉴질랜드 오클랜드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인봉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아 영원히 함께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평안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합당하고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자녀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충실한 파라과이 회원들처럼 되기 위해 신앙과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과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제게 도움이 된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도, 경전 공부, 순종, 봉사입니다.

###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의사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고 그분께 우리를 축복하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앨마서 37장 3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

### 경전 공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sup>11</sup>

모든 자매는 반드시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진리에 친숙할수록 우리 생활에 진리를 적용하는 일이 수월해지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개인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면 우리 삶에 성신의 영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 순종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sup>12</sup> 우리가 충실히 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계발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받습니다.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 ....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sup>13</sup>

우리가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희망이 자라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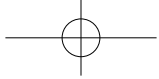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 봉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는 다양합니다. 자매들은 모두 우리 중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찾고 도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 각자는 또한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라는 명을 받았으며 선교 사업에 참여할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한 이들이 약한 사람들을 복돋아 주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강화하고 돌볼 때 우리 신앙도 커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를 완전히,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성으로서 우리가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이며, 그분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는 우리 한명 한명이 필요합니다. 속죄는 실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모든 축복, 즉 영생과 승영까지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세서 1:39 참조.
2. 창세기 1:27~28.
3. 모세서 5:5.
4. 니파이후서 31:20.
5. 교리와 성약 121:7.
6. 이사야 49:15~16.
7. 요한복음 15:9.
8. 이사야 53:4~5.
9. 교리와 성약 19:16.
10. 파라과이 서부 지역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고 인구가 별로 없다.
11. 요한복음 5:39.
12. 요한복음 14:15.
13. 교리와 성약 25:13, 15.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

인생을 변화시키고, 눈물을 닦아 주고, 간증을 자라게 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강화할 때 방문 교육은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힘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호부조회 초기 시절에 나부에서 자매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서로를 보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음식을 가져다주며,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각 여성과 가족들에게 동정심을 보였습니다.<sup>1</sup> 이 이야기들은 유다서에 있는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sup>2</sup> 이 구절과 의미를 음미하면서 저는 구주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언급된 여러 성구를 떠올렸습니다.

신약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돌봐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동정심으로 예수님은 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셨으며,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것입니다. 연민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하도록 명하셨습니다.<sup>4</sup> 서로의 짐을 지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며,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sup>5</sup> 주린 사람을 먹이며, 병든 사람을 찾아보고,<sup>6</sup> 약한 이를 도우며,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고,<sup>7</sup>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sup>8</sup>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행위가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문 교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방문 교육을 하면서 서로 돌보고 강화하며 가르칠 기회를 얻습니다. 아론 신권 교사가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sup>9</sup> 줄 책임을 맡는 것처럼, 방문 교사는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각 자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보입니다.

줄리 비 백 자매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하고, 알고, 봉사하여, 이해하고, 가르치고, 성역을 베푸는 이 성스러운 임무를 소중히 여깁니다.”<sup>10</sup>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방문 교사로 봉사하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받는 축복.

## 방문 교사로 봉사하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얼마 전에 저는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에 있는 자매님들을 방문했습니다. 한 방에 열두 분 정도 되는 자매님들이 함께하였고, 알래스카 주 전역에 있는 도시와 마을에 사시는 여섯 자매님들이 스피커폰으로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대다수가 교회 건물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분들이셨습니다. 자매님들은 제게 방문 교육에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자매를 직접 방문하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거나 자동차로 오랜 시간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합니다. 분명, 시간과 비용 때문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들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주 가 보지는 못해도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자매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화와 인터넷, 우편으로 계속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자신이 담당하는 자매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강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랑으로 봉사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사는 헌신적인 방문 교사 한 쌍은 한 자매와 아기를 방문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 자매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으며, 자신이 방문하는 이 사랑스러운 자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알고자 간구했습니다. 방문을 받는 자매님은 교사들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방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신만을 위한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자그마한 집에서 그 자매님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고양되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것이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동정심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 자매님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거리와 비용, 안전 문제 때문에 매달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하고 서로를 돌보고 강화하는 자매들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 주님께서 주신 이 부름을 수행할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영감 받은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과 함께 상의하고 와드의 각 자매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감독의 일을 돕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 교육을 지명합니다. 상의하여 계시를 받는 이런 과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매들을 돌보는 이 중요한 책임을 더 잘 인식하고 필요한 인도를 받고자 더욱 자신 있게 영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몇몇 여성들을 방문한 후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며 자랑스럽게 “방문 교육 끝!”이라고 외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해야 할 부분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제 방문 교육을 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문 교육의 아름다움은 월례 보고서에서

100퍼센트라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눈물을 닦아 주고, 간증을 자라게 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복돋아 주며, 주린 사람을 먹이고, 병든 이를 방문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 방문 교육은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사실 방문 교육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돌보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교육을 할 때 받는 또 다른 축복은 화합과 사랑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전에는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뗫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sup>11</sup>

충실한 방문 교사들이 매달 찾아와 보살피 주고 구조하며 사랑을 보이고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방문하여 나누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 외에는 삶을 더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리아호나에 담긴 방문 교육 메시지는 각 여성이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자선 봉사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방문하여 단순히 경청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경청은 위안과 이해와 치유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돕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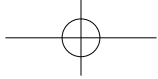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 불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차, 방문 교육을

해야지!’(제가 자매들을 방문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문 교육을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저는 방문 교육을 갈 때면 항상 기분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방문을 받는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고양되고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커지고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도록 계획하신 이 방법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문 교사로 봉사할 때 받는 또 다른 축복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을 사람과 알게 되고 친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방문 교육을 통해 이따금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계시와 영적 경험은 방문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와드와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겸손해지는 영적 경험들을 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함께 울고 웃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고양되고 축복 받았습니다.

월말을 앞둔 어느 저녁, 여행할 준비를 하는데 아직 방문을 하지 못한 자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동반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친구 줄리를 꼭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줄리의 딸 애실리는 파골증(뼈가 약해지고 쉽게 골절되는 질환-유킨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애실리는 거의 여섯 살이었지만 몸집이 아주 작았고 팔을 움직이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애실리는 매일 하루 종일 양탄자 위에 누워 지냈습니다. 애실리는 행복하고 명량한 아이였으며, 저는 애실리



곁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도착하자 줄리는 제게 들어오라고 했고 애설리는 무언가를 보여 주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애설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맞은편에 줄리가 앉았습니다. 애설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얼 하는지 보세요!” 애설리는 어머니에게서 조금 도움을 받아 몸을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바로 누웠습니다. 이토록 멋진 목표에 도달하는 데 거의 6년이 걸렸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함께 박수치고 환호하며 웃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방문 교육을 온 것과 이 멋진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비록 수년 전 일이고 사랑스러운 애설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애설리와 함께한 그 특별한 경험을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도 수년 동안 훌륭하고 헌신적인 방문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방문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끊임 없이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방문하는 자매의 가족들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그 자녀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한 다섯 살짜리 꼬마가

저희 어머니께 달려와 이렇게 말한 일을 기억합니다. “자매님은 제 방문 교사예요. 자매님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훌륭한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함께하시면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방문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경험이 따스하고 훌륭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별로 반기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자매를 만나야 할 때는 방문 교육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자매는 좋은 관계를 맺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그녀를 위해 기도하려 노력한다면 성신은 그 자매를 돌보고 강화할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구주처럼 사람들을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계속 사람들을 방문하고 도우십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관심과 격려와 도움과 위안과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아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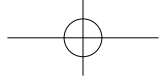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그리고 자애를 지니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매]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느니라.”<sup>13</sup>

우리가 방문하는 여성들은 보살핌을 받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동정심으로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시다.

저는 자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길 간구합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Jill Mulvay Derr, Janath Russell Cannon, and Maureen Ursenbach Beecher, *Women of Covenant: The Story of Relief Society*(1992), 32~33쪽 참조
2. 유다서 1:22.
3. 마태복음 9:36; 14:14.
4. 요한복음 13:15 참조.
5. 모사이야서 18:8~9 참조.
6. 모사이야서 4:26 참조.
7. 교리와 성약 81: 5 참조.
8. 교리와 성약 88:77.
9. 교리와 성약 20:53~54.
10.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13쪽.
11. 모사이야서 18:19, 21.
12.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86쪽.
13. 교리와 성약 12: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이 인생이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 여행객들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영혼의 기쁨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영감 받은 말씀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제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동안 주님의 영감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잘 보여주는 짧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부부인 리사와 존은 어떤 지역으로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리사는 창문으로 이웃이 빨래를 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사가 외쳤습니다. “빨래가 깨끗하지가 않잖아! 저 사람은 빨래할 줄을 모르나 봐!”

존은 잠자코 보기만 했습니다.

그 이웃이 빨래를 널 때마다 리사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몇 주 후, 리사가 창 밖을 내다보니 놀랍게도 이웃 뜰에는 잘 세탁된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존 여기 좀 봐요. 드디어 이웃 여자가 빨래를 제대로 하게 되었네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 답을

알려줄까?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집 창문을 닦았거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창을 통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느 부분을 먼저 보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sup>2</sup>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웃의 빨래는 보고 네 집의 더러운 창문은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에게서 흠을 찾아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를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비난 받아 마땅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실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 또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계명은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47년 전에 열린 이 대회에서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본부 신권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기에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어느 때처럼 신권위원회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를 어디로 가서 누구 옆에 앉아야 할지를 몰랐고, 심지어 태버네클 안에는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본부 보조조직 임원회의 일원이었던 저희 부부의 한 친구가 임원회 회원들에게 배정된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몬슨 자매에게 같이 앉자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잠시 후 발표될 제 부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몬슨 자매가 당황하여 헤매는 모습을 보고는 자애롭게도 자리를 권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이 친절에 안도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뒤쪽에서 임원회의 일원인 한 자매가 크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중 누군가가 뻔뻔스럽게도 본부 임원들만 앉도록 지정된 좌석에 외부 사람을 앉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도록 초청 받은 사람이 누구였든, 그 자매님의 그런 불친절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한 그 불청객이 바로 새로 부름 받은 사도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매님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려는 성향도 있지만,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은 옷 차림새나 머리 모양, 체구 등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좋은 예가 전국적으로 발간되는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실화인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들어 봐도 좋을 듯합니다.

메리 바텔 부인은 병원 병동 입구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 1층은 가족들이 쓰고, 위 층은 병원 외래환자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실로 험상궂은 얼굴을 한 노인이 하루 밤 묵을 방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깡마른 몸이 구부정하기까지 했으며, 얼굴은 벌겍게 벗겨지고 부어서 한 쪽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오부터 방을 구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 때문일 거예요. 끔찍하게 보인다는 건 알지만 좀 더 치료하면 나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현관에 있는 흔들의자에서 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노인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메리는 이 노인이 체구는 작지만 마음은 넓고 따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이 없었지만 메리는 노인에게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잠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잠들 시간이 되자 메리의 남편은 야전 침대를 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가 확인해 보니 침대보는 깨끗하게 개어져 있고 노인은 현관에 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침식사는 사양했으나 버스에 오르면서 다음 번에 치료 받으러 올 때도 묵을 수

있을지 물으며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서도 잘 자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다시 와도 좋다고 노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치료 차 그곳을 올 때면 노인은 메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부였던 노인은 올 때마다 선물로 해산물이나 채소 등을 들고 왔으며, 오지 않을 때에도 선물을 소포로 부치곤 했습니다.

그런 뜻 깊은 선물을 받을 때면 메리는 그 흥하고 구부정한 노인이 처음 집에서 자고 간 날 아침에 이웃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험상궂은 사람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나는 돌려보냈는데, 그런 사람을 받다가 다른 손님을 놓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한두 차례 손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메리는 ‘그 노인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불쾌히 여기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메리는 온실을 가꾸는 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꽃을 둘러보다가 메리는 예쁜 노란 국화를 보게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국화는 낡고 녹슬고 찌그러진 양동이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침 화분이 다 떨어졌거든. 나중에 만개하면 얼마나 예쁜 꽃이 될지 알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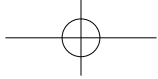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일단은 이런 낡은 양동이에서 시작해도 이 꽃은 개의치 않을 거라 생각했지. 정원에 옮겨 심을 때까지 잠시뿐이니까 말이야.”

메리는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하늘에서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왜소한 노인의 영혼을 보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여기 특별히 어여쁜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작고 흉한 몸에서 시작해도 개의치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기간은 벌써 지나갔고, 지금 그 사랑스러운 영혼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정원에서 있겠습니까<sup>3</sup>

외모는 그와 같이 속기 쉬운, 인간의 잣대일 뿐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sup>4</sup>

한번은 어느 여성 단체 회원 한 분이 그 단체 대표로 선출된 여성을 두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여성을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고서는 똥똥하다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직에 몸담은 여성이 수천 명이야. 분명 더 나은 대표가 뽑힐 수도 있었을 텐데.”

대표로 선출된 그 여성은 분명 모델처럼 늘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을 알고 그 여성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사진에 나타난 모습 이상을 보았습니다.



사진에서는 그 여성이 친절한 웃음과 믿음에 가는 인상을 준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그녀가 매우 충실하고 애정 어린 친구이며 또한 주님과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지적인 사람이라는 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는 그 여성이 지역 사회에서 술선수범하며 사려 깊고 남을 염려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사진은 그 여성의 참모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외모가 사람의 태도, 행위, 영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면 불평한 그 여성은 과연 그녀가 비난한 대표보다 외형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분도 있고,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분도 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혼했거나 미망인이 된 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어떤 분은 대학을 나왔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최신 유행 의상을 입을 형편이 되는 반면, 겨우 일요일에 입을 할당할 옷 한 벌만 가진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서로를 판단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까?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보낸 테레사 수녀님은 이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sup>5</sup> 구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sup>6</sup>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서로를 판단한다면 구주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sup>7</sup>

저는 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sup>8</sup> 라는 상호부조회의 모토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sup>9</sup> 레이맨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모로나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sup>10</sup>

저는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란 비판이나 판단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애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물질을 통해 구제하는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이란 다른 이를 너그럽게 여기고 그들의 행동을

관대하게 대하며 나타내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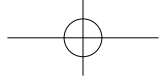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질병과 고통, 괴로움에 처했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약점을 보이고 실수할 때에도 동정과 연민, 자비를 보일 수 있는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용기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고통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이나 불행을 들으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만족감을 느끼는 일을 거부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불행에 처한 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이자 정치가였던 호라스 만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을 동정하는 일이 인간적인 행위라면 이를 치유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sup>11</sup>

사랑이란 기대를 저버린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화 내려는 충동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부족함과 결점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신체 외모를 너머 시간이 가도 희미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사람을 구분 지으려는 충동을 거부합니다.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독신 와드의 젊은 자매들이 그들 상호부조회에 속한 한 자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여행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헌신적인 방문 교사가 무관심하고 때로는 비판적이기도 한 자매를 매년, 매달 찾아가는 데서 드러납니다. 나이 많은 미망인을 기억하여 그분들을 와드 행사와 상호부조회 활동에 모셔오는



##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 말씀에서 나온 경험담과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상호부조회 모임에 홀로 앉아 있는 자매에게 “이리 와서 같이 앉아요.” 하고 청하는 모습에서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을 나타낼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이 인생이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 여행객들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깨닫고, 힘을 다해 그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자애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고 고귀하며 강한 종류의 사랑.”<sup>12</sup>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sup>13</sup>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이 오래된 상호부조회의 주제가,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토가 여러분 영혼에 바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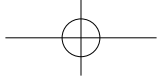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자매 여러분, 제 사랑을 전하며,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7:1.
2. 마태복음 7:3.
3. Mary Bartels, “The Old Fisherman”, *Guidepost*, 1965년 6월호, 24~25쪽에서 발췌.
4. 요한복음 7:24.
5. Mother Teresa, in R. M. Lala, *A Touch of Greatness: Encounters with the Eminent*(2001), x.
6. 요한복음 15:12.
7. 야고보서 1:26.
8. 고린도전서 13:8.
9. 모로나이서 7:47.
10. 모로나이서 10:21.
11. Horace Mann, *Lectures on Education*(1845), 297쪽.
12. 경전 안내서, “자애”.
13. 모로나이서 7:47.

연사	일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선교 사업 비용을 마련해 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부모님. (6)
로즈메리 엠 워섬	어머니가 눈보라 속을 운전하는 동안 기도한 자녀들. (9)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양털을 깎아 번 돈으로 선교 사업 비용에 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할아버지. (16) 자산을 불공평하게 분할한 동업자. (16)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스스로 구석에 갇힐 때까지 바닥에 니스를 칠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24)
쿠엔틴 엘 쿡 장로	부정직한 행위를 회개하도록 한 남성을 도운 감독. (27)
러셀 엠 넬슨 장로	친구에게 몰몬경을 소개해 준 러셀 엠 넬슨 장로. (47) Mormon.org를 살펴본 후 교회에 들어온 청년. (47)
패트릭 키아론 장로	전갈에 쏘인 패트릭 키아론 장로. (50)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가족 경전 공부를 하다가 딸에게 화를 낸 아버지. (53)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병원에 입원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아버지를 방문한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 (59)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에 농구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클레이튼 엠 크리스텐슨 형제. (67)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 옷을 모은 상호부조회 회장. (70)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뒤돌아보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회개중인 여성. (74)
제이 이 젠슨 장로	기도한 후 성신을 통해 간증을 얻은 제이 이 젠슨 장로. (7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는 교훈을 배운 가족. (87)
엘 톰 페리 장로	장애가 있는 남성이 성찬을 취하도록 도운 어린 제사. (91)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어떤 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집에 남아 있으라고 한 부모. (98)
머빈 비 아놀드 장로	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암소. (105)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처방약 때문에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한 여성. (108)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성전 인봉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비극을 겪은 가족. (116)
바바라 톰슨	애실리의 어머니에게 방문 교육을 하면서 축복을 받은 바바라 톰슨 자매. (119)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험상궂게 생긴 남성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한 주인 부부. (122)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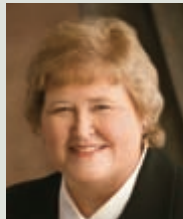
###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벅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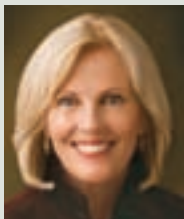


바바라 톰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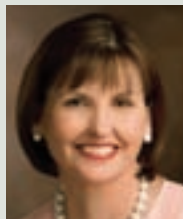
###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앤 엠 딕  
제2보좌

### 초등회



진 에이 스티브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위ksom  
회장



체럴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 청남



래리 엠 김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벅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킨기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토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다. 각 공과는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그것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권고한다.

###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안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들은 승인된 교과 자료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와 교리를 찾아본다. 또한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들)에서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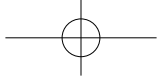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말씀(들)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게 하는 질문
-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
- 이해한 내용과 생각, 경험, 간증들을 나누게 하는 질문.
- 이러한 원리와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질문.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10년 11월 ~ 2011년 4월	2010년 11월호 <i>리아호나</i> 에 실린 말씀*
2011년 5월 ~ 2011년 10월	2011년 5월호 <i>리아호나</i> 에 실린 말씀*

\* 이 말씀들은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서(여러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 몬슨 회장,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촉구하고 새로운 성전 다섯 곳 발표

**도** 몬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0년 10월 2일과 3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 교회 제180차 연차 대회 개회를 선언하며 더 많은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촉구하고 새로운 성전 다섯 곳을 발표했다.

몬슨 회장은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들 역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몬슨 회장은 미국 코네티컷 하트퍼드,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 포르투갈 리스본, 멕시코 티후아나, 필리핀 우르다네타에 새로운 성전 다섯 곳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건축이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는 새로운 성전 수는 23개이다. 이들

23개 성전이 완공되면 전 세계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성전 수는 157개가 될 것이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계속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 성전은 점점 더 회원들과 가까운 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속 충실하게 참여합시다.”(“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4쪽)

포르투갈과 인디애나 주 및 코네티컷 주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은 그 지역에 건립되는 첫 번째 성전이다. 우르다네타 성전은 필리핀에서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이며, 티후아나 성전은 멕시코에서 세워지는 열세 번째 성전이다.

4월과 10월 연차 대회 사이 6개월 동안, 교회는 새로운 성전 네 곳을 헌납했다. 헌납된 성전은 애리조나 힐라 밸리,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필리핀 세부 시티,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다. 하와이 라이에 성전은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한 후, 2010년 11월 21일에 재헌납될 예정이다. ■

##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이 2010년 11월 13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새로운 교회 지침서(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 그리고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에 대해 교육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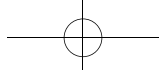
방송에 참석해야 하는 대상 회원은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단, 선교부 회장단, 성전 회장단, 지방부 회장단, 스테이크 및 지방부 서기, 스테이크 및 지방부 집행 서기,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청남 및 청녀 회장단, 초등학교 회장단, 주일학교 회장단, 감독단, 지부 회장단, 와드 및 지부 서기, 와드 및 지부 집행 서기, 대제사 그룹 지도자 및 보조, 장로 정원회 회장단, 와드 및 지부에서 봉사하는 상호부조회 회장단, 청남 및 청녀 회장단, 초등학교 회장단, 주일학교 회장단, 와드 선교 책임자이다.

훈련 모임은 30개가 넘는 여러 언어로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 시청 가능 여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신권 지도자에게 문의한다. ■

## 대회 말씀을 일상 생활에 적용합시다

**여** 러분은 가르침을 듣고, 영을 느끼고, 권고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연차 대회가 끝난 지금, 여러분은 다음 여섯 달 동안 그 권고를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할 것입니까?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연차 대회



가르침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일상 생활에 연차 대회 말씀 곁들이기**

운동이나 운전, 또는 집안 일을 할 때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할 때 말씀을 들으세요.

-제임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아침 식사 시간에 들을 말씀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선택하도록 하세요.

-애슐리, 미국 워싱턴 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연차 대회 말씀 일부를 시청하세요.

-그랜트,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가정의 밤 시간에 연차 대회 말씀 활용하기**

가족과 함께 되돌아보고 싶은 말씀들을 정한 다음, 식구들이 하나씩 말아서 다가오는 가정의 밤 시간에 가르치도록 하세요.

-번 및 제니퍼, 미국 유타 주



말씀을 읽거나 시청한 다음,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찾아보세요.

-토니, 미국 애리조나 주

**경전 공부에 말씀 활용하기**

변갈아 가면서 아침에는 경전을 읽고 저녁에는 연차 대회 말씀을 읽어 보세요.

-다이앤, 미국 워싱턴 주

매일 밤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연차 대회 말씀을 읽어 주세요.

-헤더, 미국 유타 주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에 인용된 참조 성구를 찾아보세요.

-베키, 미국 유타 주

총관리 역원들이 구체적으로 당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그 권고를 따르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헬렌, 호주

**주제별로 공부하기**

여러분 생활에서 개선하고 싶은 내용을

다른 연차 대회 말씀 주제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 한 번에 한 주제씩 공부하면서 다음 연차 대회 때까지 개선하려고 노력하세요.

-레베카, 미국 텍사스 주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며칠 동안 개인 경전 공부를 하거나 몇 주 동안 가정의 밤을 해 보세요.

-프랜시스, 나이지리아

**사람들과 말씀 나누기**

교회 회보나 주보에 연차 대회 말씀을 넣어보세요.

-토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만나서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그런 자리에 참여해 보세요. 매주 한 가지 말씀을 공부한 다음 배우고 느낀 점을 나누도록 준비한 후, 모임에 참석하세요.

-스테파니, 미국 유타 주

**정정**

**20** 10년 5월호 연차 대회 특집호 안쪽 표지에 실린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AI Rounds**에 관한 설명문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이곳에서 선지자 조셉은 물론경 대부분을 번역했으며”로 정정한다.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에서 4쪽과 5쪽에 있는 워싱턴 디시 성전 사진과 뒤표지에 있는 오리건 포틀랜드 성전은 로버트 에이 보이드가 촬영한 것이다. ■





# 가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업'(시편 127:3)이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